

연구보고 2012-30

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 및 요구조사

이윤진 이정원 김문정

머 리 말

2012년은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사에 이정표를 남긴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다.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각각 운영되었던 교육·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5세 누리과정」을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5세 누리과정」을 배우는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원한 것도 유아교육·보육 정책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무상·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배운다는 점에 견주어 본다면, 「5세 누리과정 과정」의 제정은 유아교육·보육이 국가 수준의 무상·의무 과정으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정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유아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추진하기 시작한 「5세 누리과정」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정부, 학계, 사회 각계각층에서 큰 관심으로 갖고 있다.

본 연구는 「5세 누리과정」 정책의 첫 번째 수혜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5세 누리과정」의 이용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여기서 산출된 데이터들이 향후 정책의 개선방향을 위해,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 약	1
I.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18
3. 연구 방법	19
4. 조사설계	26
II. 연구배경	33
1. 「5세 누리과정」 개요	33
2. 2007년~2011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36
3.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42
III. 「5세 누리과정」 이용 가구 특성	48
1. 인구·사회학적 특성	48
2.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53
3. 「5세 누리과정」 정책 인지 정도	56
IV. 「5세 누리과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실태	60
1. 기관 이용 현황 및 특성	60
2. 기관 이용 이유	73
3.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비용 변화	82
4. 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 홍보 및 반영 정도	108
V. 「5세 누리과정」 미이용 사례 분석	119
1. 가구 특성	119
2. 기관 이용 실태	121
3. 누리과정 미이용 이유	125
VI. 「5세 누리과정」 정책 만족도 및 요구	130
1. 5세 누리과정 시행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130

2. 무상 교육 · 보육에 대한 의견	144
3. 기타 육아지원정책 수혜 경험 및 요구	152
VII. 「5세 누리과정」 개선 방안	168
1. 정책홍보 측면	168
2. 관리·감독 측면	170
3. 비용지원 측면	171
참고문헌	174
Abstract	175
부록	177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179
부록 2. 면접조사 질문지	196
부록 3. 표본추출표	202
부록 4. 응답률과 협조율	204

표 차례

〈표 I-3-1〉 본조사 개요	20
〈표 I-3-2〉 설문내용	20
〈표 I-3-3〉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22
〈표 I-3-4〉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해당 자녀 특성	23
〈표 I-3-5〉 「5세 누리과정」 미이용 가구 일반특성	24
〈표 I-3-6〉 「5세 누리과정」 미이용 아동 일반특성	24
〈표 I-4-1〉 「5세 누리과정」 이용 만5세 유아 모집단 현황	27
〈표 I-4-2〉 지역별 기관유형별 표본추출	29
〈표 I-4-3〉 조사구별 설계가중치 분포	31
〈표 II-1-1〉 「5세 누리과정」 현행제도와 다른 점	33
〈표 II-1-2〉 「5세 누리과정」 지원 금액(2012~2016)	34
〈표 II-2-1〉 지역별 만 5세아 수(2007-2011)	37
〈표 II-2-2〉 만5세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2007-2011)	39
〈표 II-2-3〉 지역별 만5세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2011)	41
〈표 II-3-1〉 2011년 대비 만 5세 취원아수 지역별 증감 정도	43
〈표 II-3-2〉 2011년 대비 2012년 유치원·어린이집 총이용율 증감	44
〈표 II-3-3〉 2011년 대비 유치원 설립별 취원율 변화	45
〈표 II-3-4〉 2011년 대비 어린이집 이용율 변화	46
〈표 III-1-1〉 응답가구 특성	49
〈표 III-1-2〉 응답가구의 부모 특성 - 아버지	50
〈표 III-1-3〉 응답가구의 부모 특성 - 어머니	51
〈표 III-1-4〉 응답가구의 유아 특성	52
〈표 III-2-1〉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54
〈표 III-2-2〉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차이 정도 ..	55
〈표 III-3-1〉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정책 인지	56
〈표 III-3-2〉 「5세 누리과정」 정책 내용에 대한 인지	58
〈표 III-3-3〉 「5세 누리과정」 최초 인지 시기 및 접촉 경로	59
〈표 IV-1-1〉 현재 이용 기관 현황	60

〈표 IV-1-2〉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	61
〈표 IV-1-3〉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유형	63
〈표 IV-1-4〉	기관 평균 이용 시간	64
〈표 IV-1-5〉	기관 선택시 주요 고려 요인	65
〈표 IV-1-6〉	기관 이용 특성	66
〈표 IV-1-7〉	현재 이용 기관과 최초 기관 동일 여부	66
〈표 IV-1-8〉	올해 기관 변경 계획 여부	67
〈표 IV-1-9〉	올해 변경하고자 했던 기관	68
〈표 IV-1-10〉	기관 변경 계획의 주된 이유	69
〈표 IV-1-11〉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	70
〈표 IV-1-12〉	변경 직전 이용 기관 종류	71
〈표 IV-1-13〉	변경 직전 이용 기관 설립주체별	72
〈표 IV-1-14〉	처음 이용 기관 종류	73
〈표 IV-2-1〉	그동안 기관 미이용 이유	75
〈표 IV-2-2〉	처음 기관 이용에 '5세 누리과정'이 끼친 정도	77
〈표 IV-2-3〉	현재 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	78
〈표 IV-2-4〉	작년에 이용한 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이유	80
〈표 IV-2-5〉	올해 기관을 변경한 주된 이유	81
〈표 IV-3-1〉	「5세 누리과정」 전·후 기관 월 기본비용 변화	83
〈표 IV-3-2〉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기관 이용 시 월 기본비용(기관유형별) ..	84
〈표 IV-3-3〉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기관 이용 시 기본 비용(기관유형별) ..	85
〈표 IV-3-4〉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	86
〈표 IV-3-5〉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	87
〈표 IV-3-6〉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변화 ..	87
〈표 IV-3-7〉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비용(기관종류별) ..	88
〈표 IV-3-8〉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비용(기관종류별) ..	89
〈표 IV-3-9〉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시 월 기본비용	90
〈표 IV-3-10〉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시 월 기본비용(기관종류별)	91
〈표 IV-3-11〉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	92
〈표 IV-3-12〉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 ..	92
〈표 IV-3-13〉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기관종	

류별)	93
〈표 IV-3-14〉 작년과 동일 기관 이용 시 2011년·2012년 월 기본비용 변화	94
〈표 IV-3-15〉 작년과 동일 기관에서의 2011년 월 기본비용(기관종류별)	95
〈표 IV-3-16〉 작년과 동일 기관에서의 2012년 월 기본비용(기관종류별)	95
〈표 IV-3-17〉 작년과 동일기관에서의 2011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97
〈표 IV-3-18〉 작년과 동일기관에서의 2012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98
〈표 IV-3-19〉 작년과 동일기관 이용 시 2011년·2012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 램 비용 변화	99
〈표 IV-3-20〉 작년과 동일기관 이용 시 2011년·2012년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변화(기관유형별)	99
〈표 IV-3-21〉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교육·보육 내용변화 인지 정도	101
〈표 IV-3-22〉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교육·보육 내용 변화 만족도	102
〈표 IV-3-24〉 기관 변경 전·후 월 기본비용 변화	104
〈표 IV-3-24〉 변경 전·후 기관에서의 월 기본비용 변화(기관유형별)	104
〈표 IV-3-25〉 변경 전 기관에서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105
〈표 IV-3-26〉 변경 후 기관에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실태	106
〈표 IV-3-27〉 기관 변경 전·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변화	107
〈표 IV-3-28〉 기관 변경 전·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변화(기관유형별) ..	108
〈표 IV-4-1〉 이용 기관에서의 「5세 누리과정」 설명 시기	109
〈표 IV-4-2〉 이용 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	109
〈표 IV-4-3〉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인지 여부 - 기본생활습관 강조	110
〈표 IV-4-4〉 이용 기관에서의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반영 정도 - 기본생 활습관 강조	112
〈표 IV-4-5〉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인지여부 - 창의·인성교육 강조	113
〈표 IV-4-6〉 이용 기관에서의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반영 정도 - 창의·인 성교육 강조	114
〈표 IV-4-7〉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인식여부 -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115
〈표 IV-4-8〉 이용 기관에서의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반영 정도-초등교육 과정과의 연계	116

〈표 IV-4-9〉 월간·주간 계획안에 「5세 누리과정」 반영 정도	117
〈표 V-1-1〉 「5세 누리과정」 미이용 가구 일반특성	119
〈표 V-1-2〉 「5세 누리과정」 미이용 아동 일반특성	120
〈표 VI-1-1〉 「5세 누리과정」 비용 지원이 가계 도움 정도	131
〈표 VI-1-2〉 비용 지원으로 인한 절약금액의 주 사용처	134
〈표 VI-1-3〉 2011·2012년 해당자녀 이용 사교육 종류	136
〈표 VI-1-4〉 2011·2012년 해당자녀 사교육 비용	137
〈표 VI-1-5〉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정규시간대 실시 여부	139
〈표 VI-1-6〉 5세 누리과정 최우선 개선사항	141
〈표 VI-2-1〉 5세 무상교육·보육 찬성 여부	145
〈표 VI-2-2〉 5세 무상교육·보육 찬성하지 않는 이유	146
〈표 VI-2-3〉 3,4세 누리과정 인지 여부	148
〈표 VI-2-4〉 3,4세 누리과정 찬성 여부	149
〈표 VI-2-5〉 3,4세 누리과정 찬성하지 않는 이유	151
〈표 VI-3-1〉 정부 육아지원 정책의 인지 정도	153
〈표 VI-3-2〉 정부 육아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154
〈표 VI-3-3〉 정부 육아지원 정책 수혜시 가계 도움 정도	155
〈표 VI-3-4〉 정부 육아지원 정책 수혜시 추가출산에 미친 영향	156
〈표 VI-3-5〉 추가 출산 계획	157
〈표 VI-3-6〉 정부 육아비용지원정책이 추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158
〈표 VI-3-7〉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161
〈표 VI-3-8〉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서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사항	165

그림 차례

[그림 I-3-1] 조사진행 절차	25
[그림 II-1-1] 「5세 누리과정」 기대효과: 만 5세 교육·보육 내실화	36
[그림 II-2-1] 만5세아 인구 변화(2007-2011)	36
[그림 II-2-2] 지역별 만5세아 수(2011)	38
[그림 II-2-3] 만5세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변화(2007-2012) ①	40
[그림 II-2-4] 만5세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변화(2007-2012) ②	40
[그림 II-2-5] 지역별 만5세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2011)	42
[그림 II-3-1] 2011년 대비 만 5세 취원아수 지역별 증감 정도	43
[그림 IV-2-1] 그동안 기관 미이용 이유	74
[그림 IV-2-2] 처음 기관 이용 이유	76
[그림 IV-2-3] 처음 기관 이용에 「5세 누리과정」이 끼친 정도	77
[그림 IV-3-1] 「5세 누리과정」 전·후 기관 월 기본비용 변화	83
[그림 IV-3-2]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비용 변화(기관종류별)	89
[그림 IV-3-3] 작년과 동일한 기관에서의 2011년·2012년 수업료 변화	94
[그림 IV-3-4] 작년과 동일한 기관에서의 2011년·2012년 수업료 변화(기관종류별) ..	96
[그림 IV-3-5] 동일기관에서 2011년·2012년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률 변화	98
[그림 IV-3-6] 기관 변경 전·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변화	106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표본추출	202
<부록 표 2> 응답율과 협조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종류	204

요 약

1. 서론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정책의 수요자인 부모(보호자) 입장에서 '5세 누리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실태조사로서, '5세 누리과정'이 정부의 의도한 바대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제로 완화되었는지, 제도권 교육·보육으로 흡수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는지 등을 규명하고 '5세 누리과정' 정책의 보완점이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5세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으로 전국 15개 광역시도(제주도 제외)에서 조사 실시
 - 1605명 표집(유치원 이용 1,015명 어린이집 이용 590명)
 - 다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을 했으며, 주민등록인구통계(2012년), 보육통계(2011년), '5세 누리과정' 이용 유아 통계(교육과학기술부, 복지부) 등을 표본추출틀로 사용함.
 -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30일 ~ 9월 4일(약 5주)
- 학부모 면담조사
 - 5세 누리과정 이용 가구의 어머니 17명
 - 5세 누리과정 미이용 가구(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가구) 어머니 8명
- 담당공무원 자문회의
 - 설문지 검토 및 정책방안 자문

2. 「5세 누리과정」 이용 가구 특성

□ 가구 및 부모 특성

○ 응답자 전반의 가구 특성

-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40.8%, 39.8%, 읍면지역이 19.4%이었음. 약 89%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었고 가구원 수는 4명인 경우가 60.2%로 가장 많았음. 외벌이 가구는 53.1%로 맞벌이 가구보다 약간 더 많았으며 평균 가구소득은 약 331만원이었음.

○ 기관 이용 행태별 응답자 분포 및 가구특성

- 자녀가 만5세가 되는 2012년에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가 143가구(8.9%), 2011년에 이용하던 기관을 2012년에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1,079가구(67.2%), 2012년에 다니던 기관을 변경한 경우가 383가구(23.9%) 있었음.
- 2012년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는 읍면지역 보다는 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다른 두 유형보다 약간 더 많았고, 외벌이인 경우가 세 유형 중 가장 많았고, 평균 가구소득이 약 303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 2012년에 다니던 기관을 변경한 경우는 세 유형중 외벌이 비율이 가장 낮았고, 평균 소득은 약 336만원으로 가장 많았음.
- 2011년과 동일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는 읍면지역 거주 비율이 21.7%로 세 유형 중 가장 많았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인 경우가 약 91%로 가장 많았고, 맞벌이 가정인 경우가 약 45%로 가장 많았고, 평균 가구 소득은 약 331만원으로 중간 정도였음.

○ 전반적인 아버지 특성

- 연령은 평균 약 38세,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47.6%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사무종사자인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음.
- 2012년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아버지 직업은 사무종사자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가 많았고, 다른 두 유형에 비하여 전문직 비율이 적었음.

○ 전반적인 어머니 특성

- 연령은 평균 약 36세,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34.7%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 졸과 전문대 졸이 각각 33.3%, 30.4%로 있었음. 직업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5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13.8%), 서비스종사자(13.0%), 판매종사자(10.8%)가 많았음.
- 2012년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가 40.4%로 다른 두 유형보다 많았고 전업주부 비율이 더 높았음.
- 2012년 기관을 변경한 경우는 4년제 대학 졸인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비율이 가장 적었음.

□ 아동 특성

○ 응답가구의 해당 아동의 전반적 특성

- 96.1%가 「5세 누리과정」의 대상연령인 2006년 출생아였으며 아동의 성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였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57.7%로 가장 많았고 둘째인 경우는 36.9%있었음.
-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은 어린이집이 36.8%, 유치원이 63.2%이었고 기관 이용 시간 외 낮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으로는 어머니인 경우가 7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부모가 11.2%있었음.
- 2012년 처음 기관을 이용하거나 변경한 경우 첫째아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컸음.

□ 「5세 누리과정」 시행 및 정책내용 인지

○ 「5세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 전혀 알지 못한 경우는 5.5%로 매우 적었고 68.3%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으나 들어는 보았다고 응답하였고, 26.2%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둘째아 이상인 경우,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5세 누리과정」 정책 내용에 대한 인지정도

-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 받는다'(71.9%), '만 5세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공통 과정이다'(70.1%), '취학 1년 전(만 5세 유아)만 해당 되는 정책이다'(66.4%)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음.
-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본 결과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알고 있는 경우가 75.3%로 가장 많았고, '만 5세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공통 과정이다'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83.8%) 200만원 미만이 가장 적게 알고 있었음(57.8%).
- 「5세 누리과정」 정책을 처음 알게 된 시기
 - 2011년 12월~2012년 1월 기간인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고 처음 접하게 된 경로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인 경우가 4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인 경우가 25.0%로 많았음.

3. 「5세 누리과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실태

□ 현재 기관 이용 특성

- 총 1,605사례의 현재 기관 이용 특성을 보면, 작년과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1,079사례(67.3%)로 가장 많았고, 올해 기관을 변경한 경우는 383사례(23.9%)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자녀가 태어나서 올해 처음으로 올해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됨.
 - 공통적으로 사립유치원 이용이 가장 많은 가운데, 작년과 동일 기관 이용 사례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올해 기관변경 사례와 처음 이용 사례는 국공립유치원 이용비율이 높았음.
-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사례의 이용 기관 유형을 보면, 사립유치원 38.5%(55사례), 국공립유치원 29.4%(42사례), 민간어린이집 19.6%(28사례), 국공립어린이집 11.9%(17사례)로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았음.
- 올해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의 현재 기관 유형을 보면, 사립유치원(38.0%), 민간어린이집(29.0%), 국공립유치원(18.6%), 국공립어린이집(14.5%)

순으로 사립/민간 기관 이용율이 높았음.

- 이들 응답자들(1,079사례) 중 87.8%가 현재 이용 기관이 최초 이용 기관이며, 대다수(96.6%)가 올해 기관을 변경할 계획이 없었다고 응답함.
-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가구에서 최초 이용 기관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서, 학부모의 국공립 선호와 신뢰를 확인할 수 있음.
- 총 응답자의 기관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8시간이 35.9%로 가장 많고, 평균은 약 7시간임.

□ 현재 기관 이용 이유

- 총 응답자의 현재 이용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프로그램이 39.2%로 가장 많았고, 집과의 거리(25.3%), 안전한 환경(24.2%) 순임.
-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사례 대상으로 그동안 기관 미이용 이유와 올해 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를 알아본 결과,
 - 그동안 기관 미이용 이유로는 '가정내 양육이 바람직해서'가 32.0%로 가장 많고, 비용부담이 19.7%로 2순위를 차지함. 주로 대도시 거주가구에서 '가정내 양육이 바람직해서', 읍면 지역과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 '비용부담으로 그동안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음.'
 - 올해 처음 기관을 이용하게 된 주요 이유는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34.2%), 기관 이용 시 비용부담이 없어서(14.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13.8%) 등을 꼽음.
 - '5세 누리과정'으로 월 20만원 지원을 받아서 기관을 이용하게 된 가구는 10.2%로서, '5세 누리과정'이 처음 기관 이용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이들 응답자의 86.3%가 5세 누리과정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기관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
 - 그러나 월 200만원 미만 가구의 34.4%가 5세 누리과정의 월 20만원 지원이 없었더라면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5세 누리과정」 정책이 저소득 가구의 기관 이용에 일조함.
- 올해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 대상으로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주요 이

유로는 '초등학교 준비에 적절해서'(29.0%), '원장·교사가 마음에 들어서'(25.5%), '새로운 교육·보육과정을 접할 수 있어서'(11.6%) 순으로 응답함.

- 올해 기관을 변경한 경우, 현재 이용기관은 사립유치원(41.5%), 국공립유치원(38.4%), 민간어린이집(14.4%), 국공립어린이집(5.7%) 순임.
 - － 변경 직전 기관은 어린이집이 71.0%이며 이 중 민간어린이집이 85.0%를 차지함. 변경 한 기관은 주로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이거나 사립유치원임.
 - － 변경한 주된 이유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36.9%, “새로운 교육·보육프로그램은 접하고자” 22.2%, “월 20만원지원으로 기관 변경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해서” 11.8%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기관 이용 시 비용 부담

-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기관 이용 시 월 기본비용¹⁾ 변화
 - －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대상 학원 포함) 이용 시 월 평균 약 20만원이 소요됐다면, 시행 후에는 평균 11만원으로 약 9만원이 감소함.
 - － 기본보육료·수업료의 감소폭이 8만5천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른 기타 비용들도 작년에 비해 비용이 소폭 감소함.
- 「5세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기본비용
 - － 월 기본비용이 국공립유치원이 4만3천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사립유치원이 16만3천원으로 가장 비쌌. 유치원 간의 비용이 4배 차이가 남.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8만7천, 민간어린이집은 11만6천원으로 집계됨.
 - － 전체 평균 11만원보다 비용이 낮은 기관은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법인어린이집으로 국공립 기관이 비용부담이 낮음.
- 「5세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 －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기관에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이 4만1천원이 소요됐다면, 시행 후에는 4만5천으로 4천원이 상승함.
 - － 프로그램별 비용을 보면, 외국어(영어) 프로그램이 2만3천원으로 가장

1) 특별활동프로그램 비용 제외한 기본보육료·수업료, 현장학습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차량운행비, 각종행사비 등이며 '5세 누리과정' 월 20만원 제외한 비용임. 이하 동일

- 비쌌고, 한글이 8천원으로 가장 저렴함.
- 기관 유형별 비용을 보면, 국공립유치원 약 2만3천으로 가장 낮고 사립유치원이 약 5만9천원으로 가장 높음.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약 3만8천원, 민간어린이집은 약 4만4천으로 집계됨.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대체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이용하는 경우보다 많았지만, 2011년에 비해 이용수는 증가함. 이용하는 경우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있었음.
- 올해 처음 기관을 이용한 사례의 경우 월 평균 기본비용은 9만5천원으로 집계됨.
- 사립유치원이 12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민간어린이집 11만8천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11만2천원 순이며 국공립유치원은 3만1천원으로 다른 기관보다 현저히 낮음.
 -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으며, 학부모의 선택보다 의무로 이용한 경우가 많았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로그램(컴퓨터, 한글, 과학, 음악 등)에 대해 의무 이용이 높음. 외국어(영어) 프로그램이 월 비용 1만6천원으로 가장 비쌌지만, 학부모 선택이 가장 많았음.
- 작년과 동일한 기관 이용 사례의 경우 작년의 월 기본비용이 평균 19만6천원이었으나, 올해는 11만6천원으로 약 8만원 가량 감소함.
- 어린이집의 경우 2011년 17만3천원에서 2012년 9만8천원으로 7만5천원 감소했으며, 유치원은 21만3천원에서 13만원으로 약 7천원 감소함.
 - 올해 기관유형별 기본비용을 보면,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8만1천원, 민간어린이집 10만7천원, 국공립유치원 5만1천원, 사립유치원 16만7천으로 집계됨.
 -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을 작년과 올해 모두 '이용하지 않음'이 '이용함'보다 많으나 이용 사례수는 증가함. 특히, 비용이 가장 비싸고 의무 이용이 낮은 외국어(영어) 프로그램 이용이 작년 40.9%에서 올해 47.5%로 크게 증가함. 비용이 저렴한 프로그램(컴퓨터, 한글, 수학 등)은 의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기관에서 작년도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비용이 평균 2만7천원에
서, 올해는 2만3천원으로 약 4천원 감소함.
- 올해 기관을 변경한 사례의 경우 기관 변경 전 월 기본비용은 월 21만7천
원이었다면, 현재 기관은 10만5천원으로 11만2천원이 절감됨.
 - 변경 전 어린이집을 다닌 경우는 23만2천원, 유치원은 21만3천원을 지불
했다면, 변경 후 현재 어린이집은 12만1천원, 유치원은 10만2천원을 지
불함.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절감 비용은 11만1천원으로 동일함.
 - 올해 기관유형별 기본비용을 보면,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이 11만2천원 민
간어린이집 12만4천원, 국공립유치원 3만5천원, 사립유치원 16만4천원으
로 집계됨.
 - 변경 전·후 기관의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음”이 “이
용함”보다 많지만, 변경 전보다 후 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함.
앞의 사례들과 유사하게, 비용이 저렴한 프로그램(한자, 한글)은 의무이
용을 하며 외국어(영어), 미술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싼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의 선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외국어(영어) 프로그램이 2
만4천원으로 가장 비싸면서 이용 유아가 가장 많음.
 - 변경 전 기관에서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비용은 월 4만3천원이었는
데, 변경 후 기관에서는 월 4만9천원으로 6천원 상승함.
- 이용 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 홍보 및 반영 정도
 -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 시기
 - 원아모집 설명회 때가 가장 많았고(48.1%), 입학식(31.0%), 부모교육
(30.3%), 부모상담(27.6%), 부모교육책자 등 관련안내문(25.8%) 순임.
 - 전반적으로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나타남.
 -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 내용
 - 비용지원에 관한 설명을 가장 많이 들었고(79.4%) 그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이라는 내용이었음(67.5%).
 - 이전의 유치원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과의 차이점이나 '5세 누리과

정'에 대한 내용 설명은 각각 33.5%, 28.5%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며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특히 적었음.

- 「5세 누리과정」의 세 가지 주요 목표(기본생활습관 강조, 창의/인성교육 강조,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인지 및 이용기관의 반영정도
 - 85.0~86.9%(각 세부목표별)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94.0~97.7%(각 세부목표별)가 이용 기관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함.
- 현재 이용 기관에서 월간 및 주간 계획안에 「5세 누리과정」 관련 내용 반영 정도
 - 68.6%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9.9%는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21.5%는 “잘 모르겠다”고 함.
 -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17.5%).

□ 「5세 누리과정」 교육·보육내용 변화 인지 정도

-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작년과 비교해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라도 교육·보육과정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47.6%가 응답함.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은 21.7%이며 변화는 있지만,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한 변화보다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변화(심화)된 것 같다는 응답이 15.8%임.
- 「5세 누리과정」으로 교육·보육과정의 만족도는 3.80점(5점 척도)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기관 인식 변화

- 「5세 누리과정」 시행 전에 평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 여부를 알아본 결과,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53.7%로 ‘차이가 없다’ 42.0% 보다 많음.
 - 올해 기관을 변경한 사례에서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한 사례는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2.1%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관없이 동일하게 배우는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만

5세아의 교육·보육과정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5세 누리과정」 시행과 무관하게 교육·보육과정 차이는 여전히 있다는 응답이 66.6%로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29.6%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응답자가 답함.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사례에서 '교육·보육과정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 이용 사례가 '여전히 있다'는 응답이 72.0%로 가장 높았음.

3. 「5세 누리과정」 누리과정 미이용 사례 분석

□ 미이용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심층 면담을 진행한 누리과정 미이용 사례(총 8사례) 모두 유아대상 영어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음.
- 가구소득은 최저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이며 1,000만원 이상 소득 가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소득 가구임.
- 총사교육비 지출수준은 최소 96만원에서 최대 275만원 사이로 편차가 큼.

□ 기관 이용 경로

- 만 5세 이전에 대체로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대상 학원' 등 다양한 기관을 경험함.

□ 「5세 누리과정」 미이용 이유

- 남보다 일찍 영어 습득이 목적이므로 누리과정으로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어를 정식으로 가르치지 않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옮길 생각은 거의 없었음.
- 2012년도 중간에 다녔던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영어학원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음. 기관 변경의 주요 이유는 동일 기관을 몇 년 다니면서 자녀가 지루해 했다고 함.

□ '5세 누리과정' 미이용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 요구

- 교육·보육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용을 고려하며 기관을 방문한

사례들은 현재의 영어학원이 서비스가 더 낫다고 판단함.

4. 「5세 누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만족도

-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94.9%,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5.1%로서 '가계 경제 도움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 거주자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11년도 기관 이용시 비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집단보다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문제점 및 개선점

- 사교육 증가
 - 절약된 금액의 주 사용처는 가족생활비가 41.8%,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 39.3%, 다른 자녀의 사교육비 6.8%, 다른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으로 5.8%, 그밖에 기타비용으로 6.4%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자녀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가족생활비와 해당자녀의 사교육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며, 중소도시 거주가구는 가족생활비로(46.9%), 대도시 거주가구와 월소득 500만원 이상가구에서 사교육비 사용이 높게 나옴.
 -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의 사교육 이용 비율(43.6%에서 64.8%)과 이용 종류(1.48개에서 1.71개) 모두 증가함.
- 현재 이용 기관에서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시간대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오전에 실시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작년과 올해 모두 오전에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가장 컸음(44.3%).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오전에 실시하지 않음'은 12.8%에 그침.
- 「5세 누리과정」의 개선 요구
 - '창의인성을 기르는 기초교육 강화'를 가장 많이 요구함(27.9%).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는 25.7%, '누리과정 운영 평가의 강화', '가구(부모)에 대한 비용 지원보다는 기관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우선

이 각각 13.7%, 9.4%로 나타남.

- 도시지역에서 '기초교육 강화' 및 '누리과정 운영 평가 강화' 요구가 높았고, 초등연계 교육 강화는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무상 교육·보육정책 관련 의견

-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5세 누리과정」
 - 가구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만 5세 아에게 사실상의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5세 누리과정'에 대해 대부분(88.4%) 찬성함.
 - 무상교육·보육 반대 이유로는 '추가비용이 들고 있어 누리과정이 무상교육·보육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33.4%).
- '3, 4세 누리과정' 인지 및 찬성 여부
 - 2013년도에 실시될 '3, 4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56.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3, 4세 누리과정' 실시에 대해서는 63.5%만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5세 누리과정의 높은 찬성률과 대비됨.
 - '3, 4세 누리과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만 3,4세는 보편화된 형식적인 교육을 받기에는 아직 어리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음(39.3%).
-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30.1%), '민간·사립기관 수업료·보육료 경감 및 질적 수준 향상'(28.0%) 등을 가장 희망하는 정책으로 꼽음.
 - 지역별·가구소득별 희망정책에서 차이가 났는데, 대도시 거주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국공립기관 확충을 최우선 희망하는 정책으로 꼽았던 것에 반해, 중소도시 및 읍면거주 학부모는 민간/사립 기관의 비용 경감을 국공립확충보다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5. 「5세 누리과정」 개선방안

- 「5세 누리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홍보 측면
 -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홍보가 필요함

- 정부가 「5세 누리과정」 정책을 2011년 5월에 발표했는데, 학부모는 처음 알게 된 시기로는 2011년 12월~2012년 1월 기간인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음.
- 중요한 정책 정보가 6개월 이상 소요됨. 기관 이용이나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므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제안함
 - 처음 접하게 된 경로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서가 4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인 경우가 25.0%로 많았음.
 -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전달을 위해 인터넷, SNS 등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또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자주 가는 장소(예: 소아과, 산부인과, 문화센터 등)에 홍보 책자를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68.3%로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26.2%보다 훨씬 많았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는 누리과정 내용도 자연스럽게 홍보, 전달 될 것으로 기대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정책 홍보를 위한 역할 수행을 해야 함.
 -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를 항상 대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정책 홍보를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 기관임.
 - 입학 설명회뿐 아니라 부모교육이나 학부모 상담 시, 누리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함. 올해는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각되면서 교육·보육과정 내용 상의 홍보는 미흡한 면이 있음. 누리과정의 비용지원에 대한 홍보는 앞서 제안한 매체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만큼, 교육·보육과정 내용에 대한 홍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봄.
- 「5세 누리과정」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측면
 - 「5세 누리과정」이 지침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

- 「5세 누리과정」 운영 지침서에 따르면, 「5세 누리과정」은 오전 정규교육시간 내에 실시하며, 이 시간대에는 다른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본 설문조사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옴.
- 학부모의 응답이라 ‘잘 몰라서’ 또는 ‘잘못된 답’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대목임.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의무 이용에 대한 기관 내 협의를 통한 폐지 유도
 - 기관에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의무 이용이 상당히 높게 나옴. 다시 말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서 기관 이용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의무 이용이 높을수록 오전 정규시간대에 이를 운영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관장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로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의견도 많음. 따라서 학부모가 포함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에서 양쪽 간의 협의를 통해 의무 이용을 없애도록 제안함.
- 「5세 누리과정」 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 이는 주로 면담조사에서 나온 의견으로서, 학부모들은 취학 1년 전인 만큼 ‘5세 누리과정’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긴밀한 연계를 희망하였음.
 - 예를 들어, 취학 전에 한글을 익히고 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사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함. 「5세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공통과정이 있지만,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체계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따라서 기관에서는 ‘5세 누리과정’의 어떤 부분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지를 상세하게 알리는 ‘5세 누리과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모들이 초등학교 연계 내용을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5세 누리과정」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측면
 - 모든 계층에게 지원하되, 균등지원보다는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더 타당함.

- 고소득가구에서 월 20만원 지원금액을 사교육에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조사결과에 근거해서, 모든 가구에 비용지원을 하되 금액은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기관 간의 이용 비용 격차를 좁혀야 할 것임.
 -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기관 간의 이용 비용 격차를 좁히는 방안이 필요함. 특히,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비용격차가 더욱 커졌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예컨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국공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경우, 사립유치원(또는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비용은 국공립 기관을 다니는 경우와 동일하게 지불하게 하고, 정부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함.
- 「5세 누리과정」을 통한 취학 1년 전 실질적인 무상 교육·보육 실현 도모
 - 본 조사에서 만 5세아의 무상 교육·보육에 대해 88.4%라는 높은 찬성율을 보인 반면, '3, 4세 누리과정' 시행에 대해서는 63.5%만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임.
 - 무상 교육·보육을 3, 4세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취학 1년 전 실질적인 무상 교육·보육 완결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만 5세아의 무상 교육·보육을 완비해 나가는 방안 중에 하나로,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그렇지 않아서 급식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으므로,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유치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지역별·가구소득별에 따른 맞춤형 기관 이용 지원 정책 수립
 - 희망하는 정책으로 대도시 거주 가구 및 월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국공립 기관 확충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저렴하고 신뢰하는 기관이 대도시에는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 거주가구, 월 200~300만원 가구는 국공립확충보

다는 민간·사립 기관의 비용절감과 질적 제고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대도시에 비해 집주변에 국공립 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보다는 민간·사립유치원 기관을 보내고 싶으나 비용부담으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3월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을 정부가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잘 적시되어 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국무총리·교육과학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5. 2)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종류나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취학 1년 전 만 5세 유아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표준화 작업은 명실상부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초등학교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교육내용을 배운다는 점에 견주어 본다면, '5세 누리과정'의 도입은 유아교육·보육이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으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정부가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한 또 다른 배경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국무총리·교육과학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5. 2)라고 밝히고 있다. 만 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소득기준으로 전체의 70%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었는데, '5세 누리과정'을 통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동일 수준의 교육·보육비를 제공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요컨대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비용 경감이 '5세 누리과정' 도입의 주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원 단가를 2011년 월 17만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5세 누리과정'은 단지,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의 일원화 정책이 아니다. 양질의 공통과정 제정뿐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교육·보육비를

지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어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국무총리·교육과학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5. 2) 정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만 5세아 추계 인구는 443,583명인데(보건복지부, 2011.12)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한 유아는 149,278명(육아정책연구소, 2011: 25)이고 유치원 이용 유아는 244,654명(육아정책연구소, 2011: 23)으로 두 기관을 이용한 만 5세아는 약 393,932명으로 만 5세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취원율은 88.8%에 이른다. 그동안 막대한 재정지원과 다각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취원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전체 만 5세아의 약 12%정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있다. ‘5세 누리과정’이 미이용 유아를 제도권 교육·보육으로 유입할 수 있을 지 주목해야 하겠다.

올해는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첫 해이니 만큼, 정부, 학계, 사회 각계 각층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정책의 수요자인 부모(보호자) 입장에서 ‘5세 누리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실태조사로서, ‘5세 누리과정’이 정부의 의도한 바대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제로 완화되었는지, 제도권 교육·보육으로 흡수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는지 등을 규명하고 ‘5세 누리과정’정책의 보완점이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추이 변화와 현황을 파악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5세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취원율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둘째, ‘5세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한다.

셋째, ‘5세 누리과정’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5세 누리과정’의 인지 정도, 인지 경로, 인지 내용을 비롯해서 평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 정도에 대한 인식, ‘5세 누리과정’으로 양 기관의 차이가 좁혀졌는지 등을 알아본다.

넷째, ‘5세 누리과정’이 현재 이용 기관 선택에 미친 영향 정도를 3가지 유형을 분류해서 파악한다. 1)작년과 올해 이용 기관이 동일한 경우, 2)작년과 올해

이용 기관이 변경된 경우, 3)출생 후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서 기관 변경 또는 변경하지 않은 이유, 이용 실태, 이용 비용,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다. 1), 2), 3) 공통질문으로는 현재 육아지원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내용 전달 정도, 5세 누리과정 전후 교육·보육과정 변화 정도, 기본교육과정 시간대에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여부 등을 알아본다.

다섯째, '5세 누리과정'이 기본교육시간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프로그램이나 반일제 학원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살펴본다.

여섯째, '5세 누리과정'의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을 알아본다. 이에 '5세 누리과정'이 가구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월20만원 지원으로 사교육을 오히려 유발하지는 않았는지, 비용 지원정책이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내년부터 실시될 3, 4세 누리과정 인지여부 및 기대효과,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의견,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등을 알아본다.

일곱째,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5세 누리과정' 정책의 개선점이나 보완점을 도출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보육통계, 유치원교육통계, 5세 누리과정 관련 정부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홍보 리플렛, 최근 만 5세 취원율 통계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나. 설문조사

1) 예비조사

설문지 문항의 작성을 위해 '5세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 간담회를 총 5회 실시하였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중에서, 영어학원에서 올해 '5세 누리과정' 기관으로 옮긴 사례, 기관을 옮기려고 했으나 옮기지 않은

사례, 이외는 반대로 기관을 변경할 계획이 없었는데 옳긴 사례, 모의 취업여부, 가구소득별 등을 고려하여 총 17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간담회의 내용을 기초로 문항을 작성하였고, 작성한 설문지를 가지고 이들 17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2) 본조사

전국의 만 5세 유아 중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가 있는 1,605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2) 조사지역은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이다. 표본추출에 대한 상세 내용은 4장에서 기술하겠다.

〈표 1-3-1〉 본조사 개요

구분	세부사항
조사대상	5세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
조사지역	전국 15개 광역시도(제주 제외)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표본수	총 1,605명(유치원 1,015명, 어린이집 590명)
표본추출방법	다단계층화집락표본추출
표본추출틀	주민등록인구통계(2012년), 보육통계(2011년), '5세 누리과정' 이용 유아 통계(교과부, 복지부)
조사기간	2012년 7월 30일 ~ 9월 4일(약 5주)

주요 설문내용은 다음 <표 1-3-2>와 같다.

〈표 1-3-2〉 설문내용

구분	항목
부모 및 가구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족구성원,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아동특성	- 출생년도, 성별, 연령, 형제관계, 건강상태, 주양육자
5세 누리과정 정책 인지여부	- 인지여부, 인지내용, 인지시기, 인지경로 - 평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 정도, 5세 누리과정으로 양 기관의 차이에 대한 인식 변화

2) '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조를 얻어서, 부모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나 기관의 비협조 문제, 협조했다라도 낮은 회수율 및 응답의 신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구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표 1-3-2 계속)

구분	항목	
현재 이용 중 유치원·어린이집	- 기관종류(어린이집, 유치원), 설립주체(국공립, 사립, 단설, 병설, 민간, 법인, 가정, 부모협동, 직장), 기관 평균 이용시간, 이용시기, 기관선택 기준	
5세 누리과정이 기관 선택에 미친 영향 및 기관 이용 현황		
1)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기관 미이용 이유 - '5세 누리과정'이 기관 이용에 미친 영향 - 지금 이용 중인 기관 종류, 선택기준, 이용 이유, 기본 수업료·보육료, 현장학습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차량운행비, 행사비 등,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종류, 비용, 부모 선택여부 	1), 2), 3) 공통질문 -현재 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 관련 설명회 실시 시기, 설명 내용 - 5세 누리과정 목표 인지 정도 및 기관에서의 반영 정도 -오전 정규시간대에 영어 및 기타 특성화(특별활동) 실시 여부
2) 2011년에 다니던 기관을 올해 변경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기관과 동일 여부 - 현재 기관 이용 이유 - 올해 기관 변경 계획 여부, 변경하려고 했던 이유, 변경하고자 했던 기관 종류, 변경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작년과 비교 기본 보육료·수업료, 현장학습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차량운행비, 행사비 변화 정도 - 작년과 비교 특성화(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 종류, 비용, 부모선택여부 변화 - 5세 누리과정 전후 교육/보육과정변화정도(월간, 주간계획안 반영 정도), 만족도 	
3) 다니던 기관을 올해 변경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변경 주요 이유 - 변경 전 이용 기관 종류 - 변경 전·후 기관 기본 보육료·수업료, 현장학습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차량운행비, 행사비 변화 정도 - 변경 전·후 기관에서 이용한(이용하고 있는) 특성화(특별활동)프로그램 종류, 비용, 부모 선택여부 변화 	
5세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 개선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0만원 지원이 가계경제 도움 정도 - 월 20만원 지원으로 사교육 추가 실시 여부 - 5세 누리과정 개선 점 - 3, 4세 누리과정 인지여부 - 무상 교육/보육에 대한 의견 - 기타 정부 육아지원정책 수혜 여부, 종류, 만족도, 추가출산에 미친 영향 등 - 추가 출산계획, 비용지원정책이 추가 출산에 미친 정도 -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다. 학부모 대상 면담조사

만 5세아 자녀를 둔 부모 총 25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이용 기관별, 가구유형별(맞벌이, 홀벌이), 가구소득별 등 다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는 데 활용하였다.

1) '5세 누리과정' 이용 가구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7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력, 소득, 가정유형 등을 고려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1-3-3〉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사례	거주 지역	연령	가정유형	최종학력	월 가구소득
1	서울시 서초구	40대	외벌이	대졸	약 400만원
2	서울시 서초구	40대	맞벌이	대학원졸	약 500만원
3	서울시 서초구	30대	맞벌이	대졸	약 500만원
4	서울시 용산구	40대	외벌이	대졸	약 500만원
5	서울시 용산구	30대	외벌이	대졸	월 300만원
6	서울시 용산구	30대	맞벌이	대졸	약 500만원
7	경기도 성남시	30대	외벌이	대졸	약 350만원
8	경기도 성남시	30대	외벌이	대졸	약 400만원
9	경기도 성남시	30대	맞벌이	전문대졸	약 450만원
10	서울시 노원구	30대	맞벌이	전문대졸	약 450만원
11	서울시 서초구	30대	맞벌이	대졸	약 800만원
12	서울시 서초구	30대	맞벌이	대졸	약 650만원
13	서울시 서초구	30대	외벌이	전문대졸	약 350만원
14	서울시 서초구	30대	외벌이	대학원졸	약 400만원
15	서울시 서초구	30대	외벌이	대졸	약 700만원
16	경기도 안성시	30대	맞벌이	고졸	-
17	경기도 안성시	30대	외벌이	고졸	-

주: 피면담자 모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연령, 학력은 어머니 기준임.

다음 <표 1-3-4>는 피면담자 해당 자녀의 일반적 특성이다.

〈표 1-3-4〉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해당 자녀 특성

사례	출생년도	형제관계 (출생순위)	현재 이용기관	현재 이용기관 이용시기	월 사교육비
1	2006년	1(1)	사립유치원	-	-
2	2006년	1(1)	사립유치원	-	-
3	2006년	2(2)	사립유치원	-	-
4	2006년	1(1)	사립유치원	-	약255천원
5	2006년	2(2)	사립유치원	만 3세부터 이용	약 45천원
6	2006년	2(1)	사립유치원	만 5세부터 이용	약380천원
7	2006년	2(1)	어린이집		약150천원
8	2006년	2(1)	어린이집		약205천원
9	2006년	2(1)	국공립어린이집	만 1세부터 이용	약 80천원
10	2006년	1(1)	사립유치원	만 3세부터 이용	
11	2006년	2(1)	국공립어린이집	만 3세부터 이용	약130천원
12	2006년	2(2)	국공립어린이집	만 3세부터 이용	약270천원
13	2006년	2(1)	국공립어린이집	만 2세부터 이용	약390천원
14	2006년	2(2)	사립유치원	만 5세부터 이용 *영어학원에서 옮김	약401천원
15	2006년	1(1)	국공립어린이집	만 3세부터 이용	약460천원
16	2006년	2(1)	병설유치원	2012년 3월부터 이용	
17	2006년	2(1)	병설유치원	만 5세부터 이용	

주: 사교육비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용하는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은 제외한 것이며 면접조사 실시 시점의 금액임.

2) ‘5세 누리과정’ 미이용 가구: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가구 중심으로

‘5세 누리과정’비해당 기관을 다니고 있거나 반일제 이상—하루 3시간 이상, 주 3회 이상—기관을 다니고 있지 않는 만 5세아 또는 취학 1년 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총 8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까지 기관을 전혀 다니지 않는 사례는 찾지 못했다. 면담을 실시한 ‘5세 누리과정’ 미이용 가구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가 대부분이었다.

〈표 1-3-5〉 「5세 누리과정」 미이용 가구 일반특성

사 례	거주 지역	연령	학력	가정 유형	직업	월소득
1	서울시 강남구	40대	대졸	외벌이	전문직	700~1000만원
2	서울시 강남구	30대	대졸	맞벌이	전문직(부모)	1000만원이상
3	서울시 강남구	40대	대졸	외벌이	사무직	1000만원이상
4	서울시 서초구	30대	전문대졸	외벌이	사무직	700~1000만원
5	서울시 서초구	30대	대졸	외벌이	사무직	400~500만원
6	서울시 서초구	40대	대졸	외벌이	전문직	400~500만원
7	대전시	30대	대학원졸	맞벌이	전문직(부모)	1000만원이상
8	서울시 용산구	30대	대졸	외벌이	전문직	1000만원이상

주: 피면담자 모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연령, 학력은 어머니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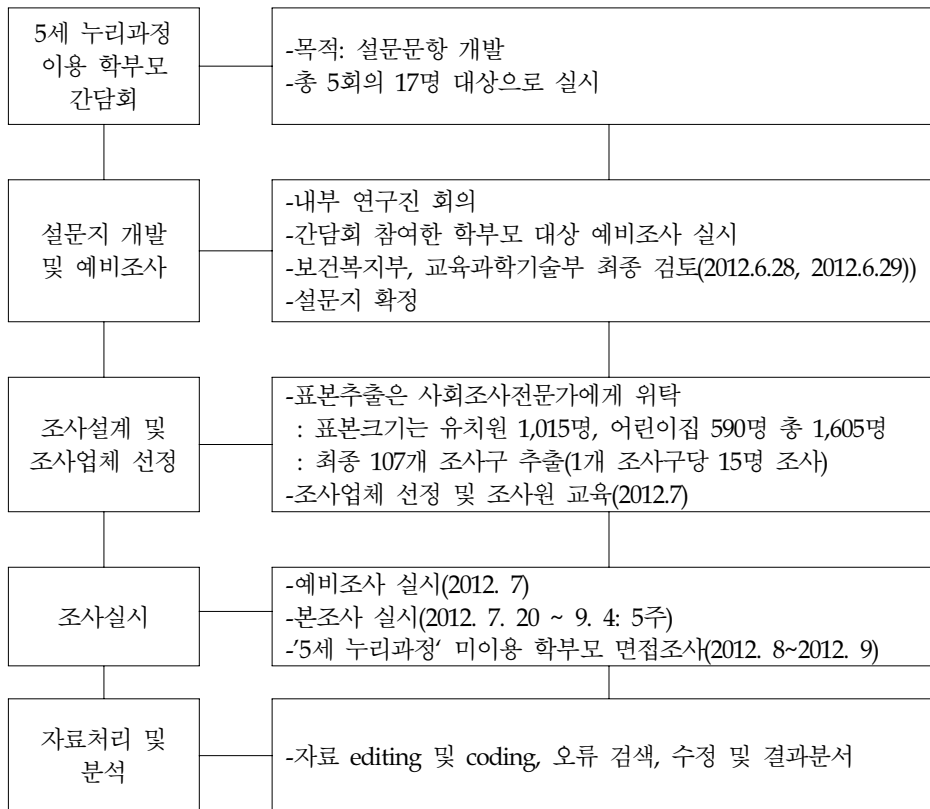
다음 〈표 1-3-6〉은 피면담자 해당 자녀의 일반적 특성이다. '5세 누리과정' 이용 아동보다 영어학원 비용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월사교육비가 월등히 많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표 1-3-6〉 「5세 누리과정」 미이용 아동 일반특성

구분	출생 연도	성별	형제관계 (출생순위)	현재 이용기관	월 사교육비 (영어학원비포함)
1	2006	여자	3(2)	영어학원	약 200만원
2	2006	여자	2(1)	영어학원	약 180만원
3	2006	여자	2(2)	영어학원	약 275만원
4	2006	남자	1(1)	영어학원	약 120만원
5	2006	여자	2(2)	영어학원	약 96만원
6	2006	남자	2(2)	영어학원	약 106만원
7	2006	여자	1(1)	영어학원	약 111만원
8	2006	남자	2(1)	영어학원	약 215만원

라. 담당 공무원 자문회의

연구 초기단계에서는 조사 설계와 설문지 검토 등을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정책제언 검토를 위해 담당 공무원(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본 연구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1] 조사진행 절차

4. 조사설계

가. 조사대상

1) 조사대상 가구

「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설문조사 시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5세(2006년 1월1일 ~ 12월 31일 출생)³⁾ 유아의 보호자”로 정의한다. 단, 원활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 행정 주민등록 DB에 등록된 만5세 유아의 거주 정보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 내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만 5세’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대상자를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적격 조사대상자

본 조사의 최종 조사대상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5세 유아의 보호자이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가 원칙이며, 조손가정과 같이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 아이의 양육을 담당하는 주양육자(예: 조부모)가 최종 조사대상자이다.

나. 조사지역 및 규모

전국 15개시도(제주도, 세종시 및 도서지역 제외)의 1,605가구이다.

다. 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야 하며, 조사방법

3) 취학 유예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세 누리과정’ 대상이므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2012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태생 아동 중 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 등을 확인하여 1년에 한하여 보육료를 재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다(보건복지부, 2012: 278). 한편, 만 4세아가 만 5세아반에 편성된 경우 어린이집 신청에 따라 시·군·구에서 승인하여 보육연령을 만 5세로 조정하고 해당 보육연령의 수납액을 적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 283)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례의 만 4세아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은 교육받은 전문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1:1 면접조사이다.

라. 표본설계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5세 유아의 보호자이다. 조사모집단 (survey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조건을 만족하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 DB에 포함되어 있는 만5세 유아의 보호자로 정의를 한다. 표본설계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도 상반기 만 5세 유아의 취원 결과의 전체 조사구의 만 5세 명단과 보건복지부의 2012년 ‘5세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 명단이며 제주도 및 도서지역은 제외하였다.

다음 <표 I-4-1>은 2012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유아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모집단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모집단 조사구는 229개이고, 가구수는 404,291가구이다.

<표 I-4-1> 「5세 누리과정」 이용 만5세 유아 모집단 현황

단위: 가구, %

행정구역	조사구 수	백분율(%)	가구 수	백분율(%)
전국	229	100.00	404,291	100.00
서울	25	10.92	62,697	15.51
부산	16	6.99	22,097	5.47
대구	8	3.49	19,296	4.77
인천	10	4.37	23,168	5.73
광주	5	2.18	13,858	3.43
대전	5	2.18	13,599	3.36
울산	5	2.18	9,792	2.42
경기도	31	13.54	109,750	27.15
강원도	18	7.86	12,112	3.00
충청북도	12	5.24	13,211	3.27
충청남도	16	6.99	18,932	4.68

(표 1-4-1 계속)

행정구역	조사구 수	백분율(%)	가구 수	백분율(%)
전라북도	14	6.11	15,338	3.79
전라남도	22	9.61	14,909	3.69
경상북도	23	10.04	21,194	5.24
경상남도	18	7.86	28,622	7.08
제주도	1	0.44	5,716	1.4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만5세아 취원현황 내부자료.

2) 층화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이고, 2차추출단위인 동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 표본크기 및 목표오차

「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목표 응답자는 1,605명이다. 표본설계에서는 각 표본 조사구에서 15가구(228개 행정지역에 따른 4개의 층의 조사구가 약 107개 라고 가정)의 표본 가구를 조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 수는 약 107개이다. 이 조사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의 최대 허용 오차 한계는 약 2.45%p 수준으로 예상된다.

모비율의 분산이 가장 크게 되는 경우인 $\pi = 50\%$ 를 가정하고 분산이 $\pi(1 - \pi)/n$ 인 경우 신뢰수준 95% 일 때 표본비율이 나타나게 될 범위는 식 (1)과 같다.

$$\pi - 1.96 \sqrt{\frac{\pi(1-\pi)}{n}} < p < \pi + 1.96 \sqrt{\frac{\pi(1-\pi)}{n}} \quad \dots\dots\dots(1)$$

각 항으로부터 π 를 빼게 되면 신뢰수준 95%일 때 $p - \pi$ 의 범위가 식 (2)와 같이 나타난다.

$$-1.96 \sqrt{\frac{\pi(1-\pi)}{n}} < p - \pi < 1.96 \sqrt{\frac{\pi(1-\pi)}{n}} \quad \dots\dots\dots(2)$$

이때 정밀도가 r%라 한다면 표본의 크기는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n = \frac{(1.96)^2 (\pi)(1-\pi)}{r^2} \dots\dots\dots(3)$$

식 (3)에 대하여 모비율인 재해율 π 에 대한 범위를 40%~60%, 정밀도(허용오차)를 2.00%~3.00%로 하여 시뮬레이션 한다면, 분산이 최대화 되는 모비율 50%에서의 1,600개의 표본을 조사할 경우 허용오차는 약 2.45%가 나타나고 있다.

바. 표본추출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 층화집락계통추출(층: 광역시의 시부·군부, 집락: 기초 지자체)이다. 추출된 조사구에서 해당 목표 표본수만큼 가구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법인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시설이란 공통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포함했으며 가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포함하였다. 표본 조사구의 기초 지자체는 부록 3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표 1-4-2〉 지역별 기관유형별 표본추출

행정구역	모집단 조사구 규모 (기초 지자체)	표본 조사구수 (조사구 당 15개 표본)	목표 표본수 (표본 가구)	기관유형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법인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전국	228	107	1605	391	624	195	395

사. 가중치와 응답률⁴⁾

1) 가중치 산정방법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각 시·도 구분과 각 지역의 시·군 구분 등을 이용한 지역 층화 26개 층과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

4) 응답률은 부록을 참조함

이집의 비율에 따른 층으로 세분하여 전체 78개 층을 구성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 2단 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 동(가구 및 개인)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제공된 비례하는 제공근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설계가중치는 추출율과 응답율에 대한 역수를 이용하여 산출을 하며 가중치 산정을 위한 개념에 대한 명칭 정의는 다음과 같다.

- L : 층의 수

- N_h : 층 h 의 모집단 조사구 수

-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조사구의 5세영유아 거주 가구 수)

- $S_h = \sum_{i=1}^{N_h} S_{hi}$: 층 h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조사완료+조사미완+조사미착수)

-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응답)

본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조사구에 대한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표본조사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표 1-4-3〉 조사구별 설계가중치 분포

	국립유치원 (가중치)	사립유치원 (가중치)	국공립어린이집 (가중치)	민간어린이집 (가중치)
서울-북서부	0.963	1.011	1.061	0.979
서울-북동부	1.035	0.994	1.076	0.981
서울-남서부	1.015	1.007	1.021	0.929
서울-남동부	0.995	1.008	1.057	0.962
부산광역시	1.005	1.005	1.011	0.852
대구광역시	1.019	1.003	1.064	0.662
인천광역시	0.982	0.989	0.967	1.001
광주광역시	1.032	0.998	0.944	0.732
대전광역시	0.994	0.995	1.004	0.866
울산광역시	1.000	1.017	0.796	0.963
경기-시	1.004	1.005	0.965	0.982
경기-군	0.976	1.025	0.883	0.926
강원-시	0.986	0.972	0.772	0.733
강원-군	1.005	1.053	1.260	0.540
충북-시	0.987	1.018	0.743	0.796
충북-군	1.014	0.980	1.272	0.865
충남-시	1.015	1.001	1.075	0.964
충남-군	0.969	1.022	0.924	0.507
전북-시	0.983	1.002	0.732	0.753
전북-군	0.954	1.040	4.482	0.660
전남-시	0.985	1.030	0.520	0.757
전남-군	1.020	1.000	4.670	0.528
경북-시	1.014	1.006	0.686	0.870
경북-군	1.014	0.970	1.955	0.787
경남-시	1.015	0.988	0.941	0.869
경남-군	1.004	0.968	1.793	0.847

2) 추정량

본 조사에서 주요 추정대상은 모평균이나 모비율이다.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모비율 추정의 경우 조사변수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는 점이 차이이다. 본 조사에서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w \dots}$$

여기서, w_{hij} 는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y_{hij} 는 각 응답결과로 모 비율 추정의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표본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의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이다.

$$w \dots = \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text{ 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이다.}$$

3) 추정량의 분산

앞서 제시한 모평균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2단 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를 반영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표본추출단위인 조사구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조사구의 응답자 수이다.

$$f_h = n_h/N_h, \quad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 \dots, \quad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II. 연구배경

1. 「5세 누리과정」 개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홍보자료로 '5세 누리과정 리플렛'을 제작하여 누리과정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본 연구가 학부모 대상 조사이므로 학부모 대상의 '5세 누리과정 리플렛'에 담긴 내용을 누리과정의 개요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도 도입의 의의

「5세 누리과정」이란 “대한민국의 만 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수준 높은 보육·교육 프로그램”(보건복지부, 2012)이라 하겠다. 2012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함으로써 만 5세 유아의 교육·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정책이다.

〈표 II-1-1〉 「5세 누리과정」 현행제도와 다른 점

구분	현행	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전 계층으로 확대 (100%)
교육·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지원 단가	국공립유치원 (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국공립유치원 (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2년 월 20만원) ※ 연차적 인상 : '16년 월 30만원
재원 부담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관리 체제	유치원 (교과부) 어린이집 (복지부)	현행 유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5세 누리과정 리플렛.

나. 5세 누리과정의 내용

만 5세 유아에 대한 공통과정으로서 '만 5세 공통과정'은 만 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하며,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다. 5세 누리과정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2012년의 경우는 200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아가 대상 아동이다.⁵⁾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따라서 사설학원·영어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 범위는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1-2〉 「5세 누리과정」 지원 금액(2012~2016)

연령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만5세	20만원	22만원 (↑2만원)	24만원 (↑2만원)	27만원 (↑3만원)	30만원 (↑3만원)

자료: 국무총리·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1. 5. 2). 보도자료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라.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방법

1) 신청 절차

신청자는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뿐만 아니라, 후견인 등 사실상의 보호자 포함도 된다. 신청장소는 읍면 주민센터이며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현행 보육료 지원신청 서류와 동일한데,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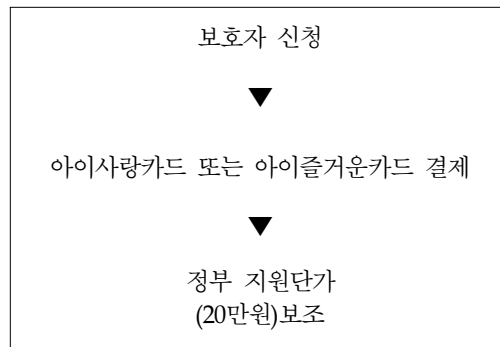
5) 각주 3)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는 취학 유예 및 조기 입학 아동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을 하고 있다.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다. 신청시기는 2012년 2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2)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 및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 발급

아이사랑카드는 2012년부터 신한카드에서 국민-우리-하나SK카드로 사업자를 변경했다. 기존 보육료 신청자는 전환등록해서 재발급을 받고, 기존 카드 미발급자는 신규발급받는다. 아이즐거운카드는 농협에서 발급 받는다.

발급받은 카드를 갖고 해당 기관에서 결제를 하면, 월 2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 홍보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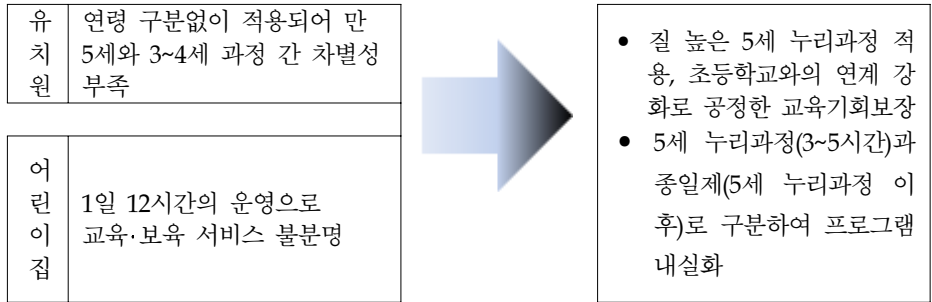
마. 5세 누리과정 기대효과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취학 1년 전 만 5세아가 유치원에 다니면 유치원교육과정을 배우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표준보육과정을 배우는 등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배우는 내용이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취학 1년전 만 5세아가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배움으로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게 되었고,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누리과정'을 오전 정규시간대에 운영하고⁶⁾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정규과정이 끝난 이후에 운영하도록 권고함으로써

6) 「5세 누리과정」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정규과정의 내실화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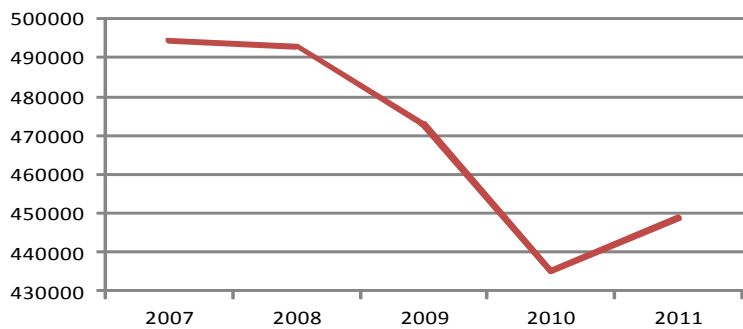
[그림 II-1-1] 「5세 누리과정」 기대효과: 만 5세 교육·보육 내실화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5세 누리과정 리플렛.

2. 2007년~2011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가. 지난 5년 만 5세 인구동향

지난 5년 동안(2007년~2011년) 사이 만 5세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약 49만명에서 2010년 약 44만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1년 약간 상승하여 약 45만명이었다.



[그림 II-2-1] 만 5세아 인구 변화(2007-2011)

자료: 통계청(각년도 12월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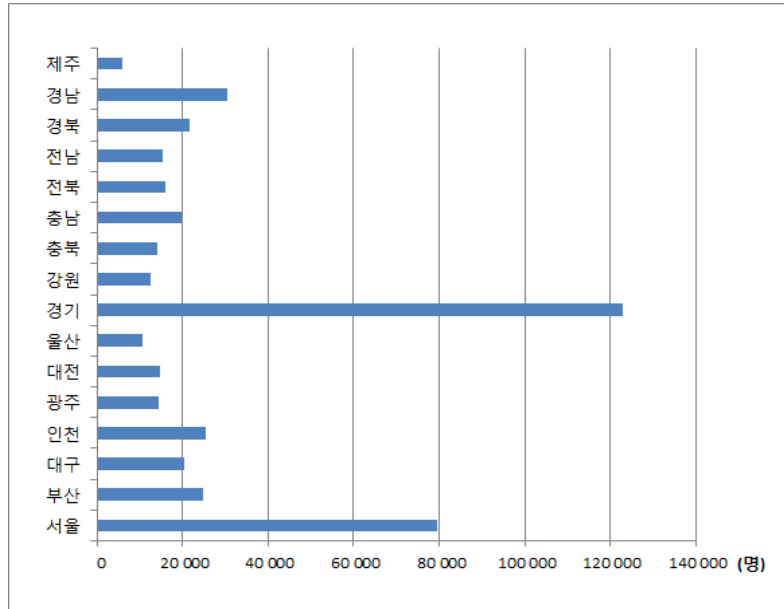
지역별로 연도별 만5세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 만5세아 인구 변화와 같은 추세로 나타난 지역은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이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증가가 있거나 2010년에서 2011년 감소가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감소가 있었던 지역은 대구, 강원, 전북이었다.

〈표 II-2-1〉 지역별 만 5세아 수(2007-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89,221	89,366	86,540	77,342	79,607
부산	28,933	28,776	26,942	24,410	24,820
대구	23,767	23,944	22,255	20,625	20,494
인천	27,154	27,521	26,126	24,156	25,391
광주	16,032	16,413	15,242	14,043	14,540
대전	16,080	16,214	15,588	14,189	14,831
울산	11,607	11,719	11,078	10,378	10,670
경기	128,789	129,909	126,222	117,294	122,917
강원	15,000	14,237	13,790	12,815	12,577
충북	15,459	15,138	14,769	13,578	13,979
충남	20,363	20,052	20,020	18,665	19,737
전북	18,746	18,063	17,190	16,059	15,894
전남	18,607	17,625	16,603	15,149	15,441
경북	24,746	24,306	22,748	21,401	21,539
경남	33,417	32,978	31,886	29,466	30,387
제주	6,606	6,653	6,113	5,711	5,950
전체	494,527	492,914	473,112	435,281	448,774

자료: 통계청(각년도 12월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1년도 지역별 만 5세아수를 비교해보면 경기도가 약 1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약 8만명으로 많았다. 그 외에 약 2만명에서 3만명 사이인 지역이 경남을 비롯한 5개 지역이었고, 1만명에서 2만명 미만인 지역은 충남을 비롯한 8개지역이었다. 제주는 약 6천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II-2-2] 지역별 만 5세아 수(2011)

자료: 통계청(2011). 주민등록인구통계(12.31 기준).

나. 지난 5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2007년에서 2011년 동안 만 5세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이용률은 2007년 91.2%에서 2009년 85.3%로 감소추세이다가 2010년 90.5%로 약간 증가하고 2011년에는 다시 82.7%로 감소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률 변화를 각각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률의 경우 전체 변화와 같은 추세였고 유치원의 경우는 2008년에서 2009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만 5세아의 유치원의 이용률은 2007년 54.9%에서 2011년 52.1%로 감소하였고, 어린이집 이용률은 2007년 91.2%에서 2011년 82.7%로 감소하였다.

한편, 2012년도 만 5세아 주민등록인구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계자료가 최종 산출되지 않은 시점이라 보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올 하반기에 알 수 있겠다. 정확한 만 5세아 모집단수를 알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취

원 대상아수로 되어 있는 448,774명(①)과⁷⁾ 2011년 만 4세아 인구수 494,388명(②)의 두 개 수치를 만 5세아 모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전자의 자료를 집계한 자료를 활용한 결과, 유치원 이용율은 56.2%로 지난해보다 4.1%로 상승했고,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2 참조). 두 기관 모두 2011년에 비해 이용율이 상승했는데, 유치원 이용율의 상승률이 어린이집의 상승률보다 높았다(그림 II-2-3 참조). 반면, 후자의 자료로 계산하면, 모집단이 커지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II-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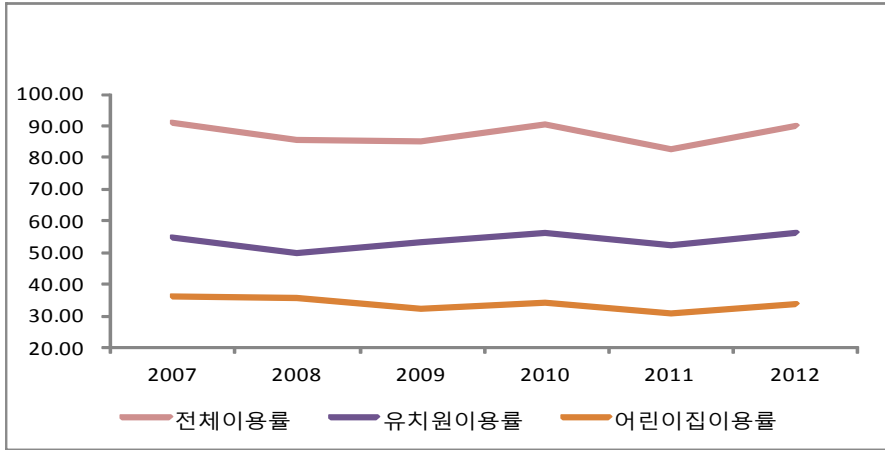
〈표 II-2-2〉 만 5세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2007-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만 5세아 인구	494,527	492,914	473,112	435,281	448,774	①448,774 ②494,388
유치원이용아수	271,326	246,871	251,067	244,654	233,724	252,084
유치원이용률	54.9	50.1	53.1	56.2	52.1	①56.2 ②51.0
어린이집이용아수	179,562	175,323	152,380	149,278	137,349	152,207
어린이집이용률	36.3	35.6	32.2	34.3	30.6	①34.0 ②30.8
전체이용아수	450,888	422,194	403,447	393,932	371,073	404,291
전체이용률	91.2	85.6	85.3	90.5	82.7	①90.1 ②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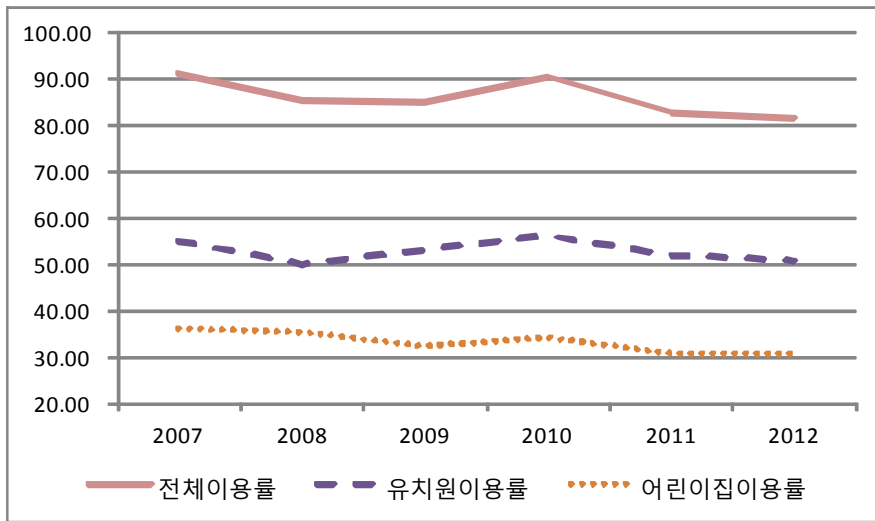
주: 2012년도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수는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임.

①은 2012년 취원대상아수, ②는 2011년 만4세아 인구수 및 이를 토대로 이용율 산출 자료: 통계청(각년도 12월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각년도 4월기준).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각년도 12월기준). 보육통계

7) 참고로 2012년 6월 현재 만 5세 주민등록인구수는 458,997명으로 교과부의 취원대상아수와 비슷함.



[그림 11-2-3] 만 5세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변화(2007-2012) ①



[그림 11-2-4] 만 5세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변화(2007-2012) ②

주: 2012년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수는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임. 2012년 만 5세아 인구는 2011년 만4세아 인구로 추정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12월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각년도 4월기준).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각년도 12월기준). 보육통계

2011년도 만 5세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을 합한 전체 기관이용률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지역이 제주로 99.5%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 전북 95.1%이었다. 90%이상인 지역은 제주와 전북을 비롯하여 총 7개 지역이 있었다. 그 외에 부산을 비롯한 7개 지역의 기관 이용률은 82.9~89.9% 이었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두 지역으로 각각 69.6%와 78.8% 이었다.

〈표 II-2-3〉 지역별 만 5세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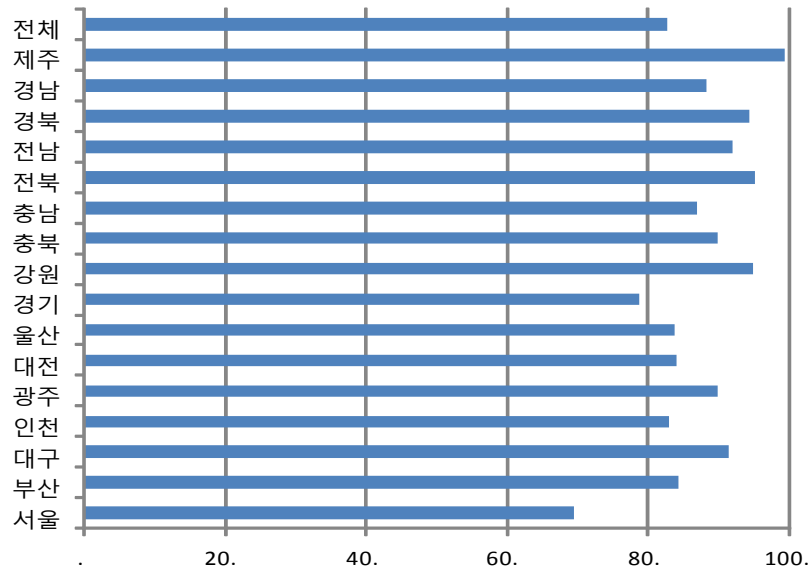
단위: 명, %

	만5세아 인구	유치원 이용아수	유치원 이용률	어린이집 이용아수	어린이집 이용률	전체 이용아수	전체기관 이용률
서울	79,607	31,722	39.8	23,697	29.8	55,419	69.6
부산	24,820	14,740	59.4	6,211	25.0	20,951	84.4
대구	20,494	13,708	66.9	5,064	24.7	18,772	91.6
인천	25,391	14,237	56.1	6,810	26.8	21,047	82.9
광주	14,540	7,151	49.2	5,929	40.8	13,080	90.0
대전	14,831	8,822	59.5	3,634	24.5	12,456	84.0
울산	10,670	6,925	64.9	2,031	19.0	8,956	83.9
경기	122,917	63,745	51.9	33,112	26.9	96,857	78.8
강원	12,577	6,312	50.2	5,625	44.7	11,937	94.9
충북	13,979	6,276	44.9	6,297	45.0	12,573	89.9
충남	19,737	9,845	49.9	7,303	37.0	17,148	86.9
전북	15,894	7,749	48.8	7,368	46.4	15,117	95.1
전남	15,441	6,808	44.1	7,400	47.9	14,208	92.0
경북	21,539	13,882	64.5	6,437	29.9	20,319	94.3
경남	30,387	18,659	61.4	8,152	26.8	26,811	88.2
제주	5,950	3,143	52.8	2,779	46.7	5,922	99.5
전체	448,774	233,724	52.1	137,349	30.6	371,073	82.7

자료: 통계청(각년도 12월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각년도 4월기준).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각년도 12월기준). 보육통계

2011년도 만 5세의 유치원 이용률은 52.1%, 어린이집 이용률은 30.6%로 유치원 이용률이 더 높았다.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이용률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2011년도 지역별 만 5세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을 전국의 이용률과 비교해보면, 기관 전체 이용률 82.7%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각각 69.6%, 78.8%이었다. 유치원 이용률이 전국 평균 52.1%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8개 지역이었고, 그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39.8%였고, 그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44.1%였다. 어린이집 이

이용률이 전국 평균 30.6%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9개 지역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19.0%이었다.



[그림 11-2-5] 지역별 만 5세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201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각년도 4월기준),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각년도 12월기준), 보육통계

3.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가. 2011년 대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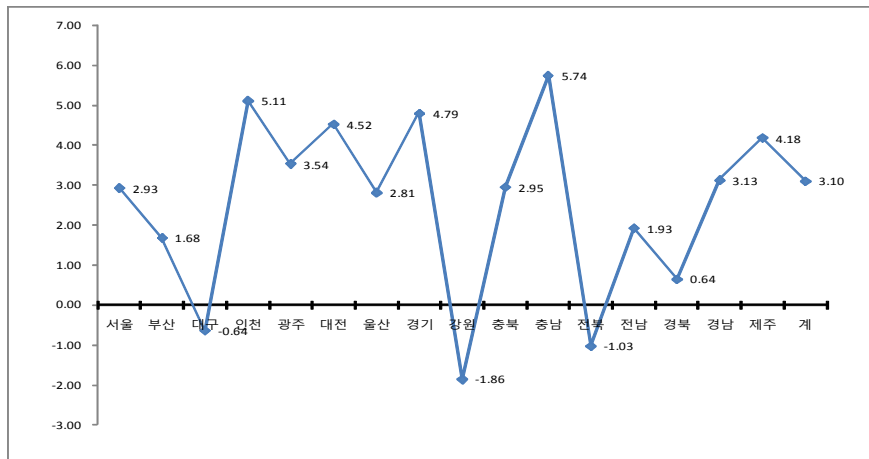
2011년도에 만 5세 전체 취원아수는 435,281명이었다가 2012년에는 448,774명으로 13,493명이 증가하였다. 증감비율은 3.10이다. 취원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이고, 인천, 경기, 대전 순이다. 반대로 취원아수가 감소한 지역은 강원이가 가장 감소폭이 컸고 전북,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3-1〉 2011년 대비 만 5세 취원아수 지역별 증감 정도

단위: 명, %

시도	취원대상아(5세)			
	'11년	'12년	증감	비율
서울	77,342	79,607	2,265	2.93
부산	24,410	24,820	410	1.68
대구	20,625	20,494	-131	-0.64
인천	24,156	25,391	1,235	5.11
광주	14,043	14,540	497	3.54
대전	14,189	14,831	642	4.52
울산	10,378	10,670	292	2.81
경기	117,294	122,917	5,623	4.79
강원	12,815	12,577	-238	-1.86
충북	13,578	13,979	401	2.95
충남	18,665	19,737	1,072	5.74
전북	16,059	15,894	-165	-1.03
전남	15,149	15,441	292	1.93
경북	21,401	21,539	138	0.64
경남	29,466	30,387	921	3.13
제주	5,711	5,950	239	4.18
계	435,281	448,774	13,493	3.1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내부자료.



[그림 II-3-1] 2011년 대비 만 5세 취원아수 지역별 증감 정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내부자료.

2011년 대비 2012년 유치원·어린이집 총이용율이 감소한 지역은 없다. 총이용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5.94), 경기(5.90), 울산(4.96)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영유아 대상 사설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역이란 점에서 이들 지역의 총이용율 증가는 의미는 수치라 하겠다. 사설학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세 누리과정'이 제도권 교육·보육 미이용 유아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해야 하겠지만, 이 두 지역의 높은 취원율 상승이 그럴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11-3-2〉 2011년 대비 2012년 유치원·어린이집 총이용율 증감

단위: 명, %

시도	계				취원율 증감
	'11년		'12년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서울	56,321	72.82	62,697	78.76	5.94
부산	21,148	86.64	22,097	89.03	2.39
대구	18,891	91.59	19,296	94.15	2.56
인천	21,268	88.04	23,168	91.24	3.20
광주	13,187	93.90	13,858	95.31	1.41
대전	12,503	88.12	13,599	91.69	3.58
울산	9,009	86.81	9,792	91.77	4.96
경기	97,814	83.39	109,750	89.29	5.90
강원	12,027	93.85	12,112	96.30	2.45
충북	12,643	93.11	13,211	94.51	1.39
충남	17,270	92.53	18,932	95.92	3.40
전북	15,185	94.56	15,338	96.50	1.94
전남	14,310	94.46	14,909	96.55	2.09
경북	20,459	95.60	21,194	98.40	2.80
경남	26,992	91.60	28,622	94.19	2.59
제주	5,451	95.45	5,716	96.07	0.62
계	374,478	86.03	404,291	90.09	4.1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내부자료.

나. 2011년 대비 유치원 설립별 취원율 변화

유치원 공립의 경우 2011년 대비 취원율이 증가한 지역이 단 한 지역도 없다. 공립유치원이 대개 농산어촌의 병설유치원으로 만 3, 4, 5세 혼합반 형태로 운영

되는 데, 병설유치원에서 올해 만 5세 원아모집이 힘들었다고 많은 현장 교사들이 증언하였다. 다음은 혼합반 병설유치원의 5세 누리과정의 적용을 다룬 「지역 및 기관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매뉴얼」(이윤진 외, 2012: 9) 연구에서 인용한 글이다 .

지금 (만) 3세가 7명, 4세가 4명, 5세가 2명 그러거든요.....주로 3세 어린 연령이 많이 있어요.

저는 만 3세가 4명이고 만 4세 3명, 만 5세가 2명 4, 3, 2 이런 구조로 혼합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만 3세가 7명이구요 만4세가 5명 만 5세가 3명.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제가 이 학교에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만 5세가 (전체 원아의) 반수를 차지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22명 그 재작년에는 27명.....이렇게 있었는데 거의 만 5세 반수가 11명으로 차지하고 나머지가 3세 4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5세 아이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립병설유치원의 만 5세 원아 모집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로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들은 국공립 유아학비는 59,000원인데 누리과정으로 월20만원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국공립유치원면 그 만큼 지원액이 줄어서 손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혼합반 병설유치원의 취원율 감소폭이 컸는데, 2011년 대비 2012년 취원율은 -1.60%로 감소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011년 대비 4.04%로 증가했다. 학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월 2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사립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이며, 경기, 경북, 인천, 대구의 취원율 상승이 높았다.

〈표 II-3-3〉 2011년 대비 유치원 설립별 취원율 변화

단위: 명, %

사도	공립					사립				
	'11년		'12년		취원율 증감	'11년		'12년		취원율 증감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서울	6,011	7.77	6,117	7.68	-0.09	25,745	33.29	29,473	37.02	3.74
부산	1,562	6.40	1,565	6.31	-0.09	13,221	54.16	14,099	56.80	2.64
대구	2,574	12.48	2,142	10.45	-2.03	11,163	54.12	11,973	58.42	4.30

(표 II-3-3 계속)

시도	공립					사립				
	'11년		'12년		취원율 증감	'11년		'12년		취원율 증감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인천	4,313	17.85	3,905	15.38	-2.48	9,978	41.31	11,635	45.82	4.52
광주	1,995	14.21	1,915	13.17	-1.04	5,165	36.78	5,707	39.25	2.47
대전	1,943	13.69	1,778	11.99	-1.71	6,897	48.61	7,645	51.55	2.94
울산	1,770	17.06	1,552	14.55	-2.51	5,163	49.75	5,934	55.61	5.86
경기	23,581	20.10	21,759	17.70	-2.40	40,285	34.35	49,010	39.87	5.53
강원	3,323	25.93	3,036	24.14	-1.79	2,976	23.22	3,332	26.49	3.27
충북	3,525	25.96	3,431	24.54	-1.42	2,719	20.03	3,207	22.94	2.92
충남	4,706	25.21	4,658	23.60	-1.61	5,116	27.41	6,071	30.76	3.35
전북	2,833	17.64	2,680	16.86	-0.78	4,933	30.72	5,262	33.11	2.39
전남	3,717	24.54	3,653	23.66	-0.88	3,116	20.57	3,513	22.75	2.18
경북	4,982	23.28	4,541	21.08	-2.20	8,953	41.83	10,058	46.70	4.86
경남	6,491	22.03	5,592	18.40	-3.63	12,228	41.50	13,717	45.14	3.64
제주	1,597	27.96	1,471	24.72	-3.24	1,556	27.25	1,653	27.78	0.54
계	74,923	17.21	69,795	15.55	-1.60	159,214	36.58	182,289	40.62	4.0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내부자료.

다. 2011년 대비 어린이집 이용율 변화

2011년 대비 어린이집의 이용율은 1.67로 사립유치원의 4.04보다는 낮았으나, 공립유치원의 -1.60보다는 높았다. 정리하자면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이용율 상승이 가장 컸고,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순으로 이용율이 감소하였다.

〈표 II-3-4〉 2011년 대비 어린이집 이용율 변화

단위: 명, %

시도	어린이집				
	'11년		'12년		취원율증감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서울	24,565	31.76	27,107	34.05	2.29
부산	6,365	26.08	6,433	25.92	-0.16
대구	5,154	24.99	5,181	25.28	0.29
인천	6,977	28.88	7,628	30.04	1.16
광주	6,027	42.92	6,236	42.89	-0.03
대전	3,663	25.82	4,176	28.16	2.34
울산	2,076	20.00	2,306	21.61	1.61
경기	33,948	28.94	38,981	31.71	2.77

(표 II-3-4 계속)

시도	어린이집				취원율증감
	'11년		'12년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강원	5,728	44.70	5,744	45.67	0.97
충북	6,399	47.13	6,573	47.02	-0.11
충남	7,448	39.90	8,203	41.56	1.66
전북	7,419	46.20	7,396	46.53	0.33
전남	7,477	49.36	7,743	50.15	0.79
경북	6,524	30.48	6,595	30.62	0.13
경남	8,273	28.08	9,313	30.65	2.57
제주	2,298	40.24	2,592	43.56	3.32
계	140,341	32.24	152,207	33.92	1.6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내부자료.

Ⅲ. 「5세 누리과정」 이용 가구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가구 특성

응답자 전반의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40.8%, 39.8%, 읍면지역이 19.4%이었다. 약 89%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었고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약 10%, 한부모 가족인 경우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3%이었다. 가구원 수는 평균 4명이었고 4명인 경우가 60.2%로 가장 많았다. 응답 가구 중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는 각각 44.0%, 53.1%로 외벌이 가구가 약간 더 많았으며 평균 가구소득은 약 331만원이었고 84.2%가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에 속하였다.

이를 기관 이용 행태에 따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용 행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동이 만 5세가 되는 2012년에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가 143가구(8.9%), 2011년에 이용하던 기관을 2012년에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1,079가구(67.2%), 2012년에 다니던 기관을 변경한 경우가 383가구(23.9%) 있었다. 기관 이용 행태별 가구 특성으로 2012년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는 읍면지역 보다는 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다른 두 유형보다 약간 더 많았고, 외벌이인 경우가 세 유형 중 가장 많았고, 평균 가구소득이 약 30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2012년에 다니던 기관을 변경한 경우는 세 유형중 외벌이 비율이 가장 낮았고, 평균 소득은 약 33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과 동일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는 읍면지역 거주 비율이 21.7%로 세 유형 중 가장 많았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인 경우가 약 91%로 가장 많았고, 맞벌이 가정인 경우가 약 45%로 가장 많았고, 평균 가구 소득은 약 331만원으로 중간 정도였다.

〈표 III-1-1〉 응답가구 특성

단위: 명(%), 명, 만원

구분	전체	2012년 기관 처음 이용	2011년과 동일기관 이용	2012년 기관 변경
계	1,605(100.0)	143(100.0)	1,079(100.0)	383(100.0)
지역규모				
대도시	655(40.8)	73(51.1)	426(39.5)	156(40.8)
중소도시	639(39.8)	60(42.1)	420(38.9)	159(41.6)
읍면	311(19.4)	10(6.9)	234(21.7)	67(17.6)
가족유형				
부부+자녀	1,421(88.6)	117(82.2)	984(91.1)	320(83.7)
한부모+자녀	19(1.2)	4(2.7)	8(0.7)	8(2.0)
조부모+부부+자녀	135(8.4)	18(12.3)	73(6.7)	45(11.7)
조부모+한부모+자녀	18(1.1)	3(2.0)	7(0.6)	8(2.0)
기타	11(0.8)	1(0.7)	8(0.8)	4(0.6)
가구원수				
3명 이하	348(21.7)	42(29.5)	221(20.5)	86(22.3)
4명	967(60.2)	75(52.8)	661(61.3)	230(60.1)
5명	234(14.6)	20(14.0)	163(15.1)	50(13.1)
6명 이상	56(3.5)	5(3.7)	34(3.1)	17(4.5)
평균(표준편차)	4.0(0.74)	3.9(0.81)	4.0(0.73)	4.0(0.75)
가구특성				
맞벌이 가정	707(44.0)	55(38.4)	482(44.7)	169(44.3)
외벌이 가정	852(53.1)	79(55.5)	575(53.3)	197(51.5)
한부모 가정	39(2.4)	7(4.8)	17(1.5)	15(4.0)
다문화 가정	5(0.3)	2(1.4)	2(0.2)	1(0.3)
조손 가정	2(0.1)	-	2(0.2)	-
기타	1(0.1)	-	1(0.1)	-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04(6.5)	15(10.3)	72(6.6)	18(4.7)
200~300만원미만	517(32.2)	53(37.4)	350(32.5)	114(29.7)
300~500만원미만	835(52.0)	72(50.2)	555(51.4)	208(54.4)
500만원 이상	149(9.3)	3(2.1)	103(9.5)	43(11.2)
평균(표준편차)	330.6(108.85)	303.2(95.94)	333.1(108.92)	335.7(112.69)

나. 부모 특성

응답 가구의 전반적인 아버지 특성으로 연령은 평균 약 38세,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47.6%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와 전문대 졸업이 각각 24.6%,

22.8%로 많았다. 직업은 사무종사자인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 전문직,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판매종사자가 각각 약 10~13% 있었다. 기관 이용 형태별 아버지 특성을 살펴보면 2012년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아버지 연령이 약 35세로 평균 보다 약간 낮은 편이었고 직업은 사무종사자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가 많았고, 다른 두 유형에 비하여 전문직 비율이 적었다.

〈표 III-1-2〉 응답가구의 부모 특성 - 아버지

단위: 명(%), 세

구분	전체	2012년 기관 처음 이용	2011년과 동일기관 이용	2012년 기관 변경
계	1,605(100.0)	143(100.0)	1,079(100.0)	383(100.0)
부연령				
35세 미만	257(16.0)	48(33.5)	150(13.9)	59(15.4)
35~40세 미만	738(46.0)	54(37.8)	503(46.6)	181(47.4)
40세 이상	610(38.0)	41(28.7)	427(39.6)	143(37.2)
평균(표준편차)	37.7(6.78)	35.4(9.09)	38.1(5.75)	37.4(8.17)
부 최종학력				
고졸 이하	394(24.6)	33(23.1)	281(26.0)	80(21.0)
전문대졸	366(22.8)	32(22.5)	251(23.3)	83(21.6)
4년제 대졸	763(47.6)	71(49.6)	499(46.2)	194(50.6)
대학원 이상	47(2.9)	-	34(3.1)	13(3.1)
해당없음	35(2.2)	7(4.8)	14(1.3)	13(3.5)
부 직업				
사무종사자	614(38.3)	61(42.4)	406(37.6)	148(38.7)
서비스종사자	204(12.7)	26(18.0)	136(12.6)	42(11.1)
전문직	194(12.1)	11(7.7)	137(12.7)	46(11.9)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72(10.7)	18(12.7)	119(11.0)	35(9.1)
판매종사자	161(10.1)	12(8.5)	112(10.3)	38(9.8)
장치/기계조작 및 관련종사자	89(5.6)	4(3.0)	61(5.6)	24(6.4)
관리자	61(3.8)	2(1.6)	40(3.7)	18(4.8)
농림어업 종사자	37(2.3)	-	33(3.0)	4(1.2)
무직	7(0.4)	1(0.7)	3(0.3)	2(0.6)
기타	32(2.0)	1(0.7)	19(1.7)	12(3.0)
해당없음	35(2.2)	7(4.8)	14(1.3)	13(3.5)

응답 가구의 전반적인 어머니 특성으로 연령은 평균 약 36세,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34.7%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 졸과 전문대 졸이 각각 33.3%,

30.4% 있었다. 직업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5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13.8%), 서비스종사자(13.0%), 판매종사자(10.8%)가 많았다. 기관 이용 형태별 어머니 특성을 살펴보면 2012년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가 40.4%로 다른 두 유형보다 많았고 전업주부 비율이 더 높았다. 2012년 기관을 변경한 경우는 4년제 대학 졸업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비율이 가장 적었다.

〈표 III-1-3〉 응답가구의 부모 특성 - 어머니

단위: 명(%), 세

구분	전체	2012년 기관 처음 이용	2011년과 동일기관 이용	2012년 기관 변경
계	1,605(100.0)	143(100.0)	1,079(100.0)	383(100.0)
모 연령				
35세 미만	537(33.4)	71(49.5)	358(33.1)	108(28.3)
35~40세 미만	820(51.1)	52(36.4)	561(51.9)	207(54.1)
40세 이상	244(15.2)	20(14.1)	158(14.7)	66(17.1)
평균(표준편차)	35.8(4.03)	34.7(3.89)	35.8(3.91)	36.2(4.34)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557(34.7)	58(40.4)	386(35.8)	114(29.7)
전문대졸	489(30.4)	47(32.8)	332(30.7)	110(28.8)
4년제 대졸	534(33.3)	38(26.9)	344(31.8)	152(39.7)
대학원 이상	20(1.2)	-	15(1.4)	5(1.3)
해당없음	5(0.3)	-	3(0.3)	2(0.5)
모 직업				
사무종사자	221(13.8)	21(15.0)	140(13.0)	59(15.4)
서비스종사자	209(13.0)	22(15.1)	140(13.0)	47(12.4)
전문직	85(5.3)	2(1.4)	62(5.7)	21(5.5)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11(0.7)	1(0.6)	9(0.8)	1(0.3)
판매종사자	173(10.8)	15(10.3)	121(11.2)	38(9.8)
장치/기계조작 및 관련종사자	2(0.1)	-	2(0.2)	-
관리자	2(0.1)	-	1(0.1)	1(0.3)
농림어업 종사자	11(0.7)	-	11(1.0)	-
전업주부	866(53.9)	81(56.8)	581(53.8)	203(53.1)
기타	21(2.3)	1(0.7)	10(0.9)	10(2.7)
해당없음	5(0.3)	-	3(0.3)	2(0.5)

다. 유아 특성

응답가구의 해당 아동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96.1%가 「5세 누리과정」의 대상연령인 2006년 출생아였으나 유예한 경우인 2005년생(0.3%)과 조기입학한 2007년생(3.6%)도 있었다. 아동의 성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였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57.7%로 가장 많았고 둘째인 경우는 36.9%, 셋째인 경우는 5.5%이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은 어린이집이 36.8%, 유치원이 63.2%이었고 기관 이용 시간 외 낮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으로는 어머니인 경우가 7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부모가 11.2%이었다.

기관 이용 행태에 따른 아동특성을 살펴보면 2011년과 동일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올 해 처음 기관을 이용하거나 변경한 경우 첫째아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컸다. 또한 변경하지 않는 경우보다 낮시간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적고 조부모인 경우가 더 많았다. 올 해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는 혼자지내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응답가구의 유아 특성

단위: 명(%)

구분	전체	2012년 기관 처음 이용	2011년과 동일기관 이용	2012년 기관 변경
계	1,605(100.0)	143(100.0)	1,079(100.0)	383(100.0)
출생년도				
2005년	5(0.3)	-	4(0.4)	1(0.3)
2006년	1,543(96.1)	137(96.2)	1,043(96.6)	363(94.7)
2007년	57(3.6)	5(3.8)	33(3.0)	19(5.0)
성별				
남	816(50.8)	82(57.7)	556(51.6)	177(46.2)
여	789(49.2)	60(42.3)	523(48.4)	206(53.8)
출생순위				
첫째	926(57.7)	90(62.8)	605(56.1)	231(60.4)
둘째	591(36.9)	46(32.1)	416(38.5)	130(33.9)
셋째 이상	87(5.5)	7(5.1)	59(5.5)	22(5.7)

(표 III-1-4 계속)

구분	전체	2012년 기관 처음 이용	2011년과 동일기관 이용	2012년 기관 변경
현재이용기관				
어린이집	590(36.8)	45(31.7)	469(43.4)	76(19.9)
국공립·법인	195(12.2)	17(11.9)	156(14.5)	22(5.6)
민간	395(24.6)	28(19.8)	312(28.9)	55(14.3)
유치원	1,015(63.2)	97(68.3)	611(56.6)	307(80.1)
국공립	391(24.3)	42(29.5)	201(18.6)	147(38.5)
사립	624(38.9)	55(38.7)	410(38.0)	159(41.6)
주양육자				
어머니	1,206(75.2)	96(67.0)	830(76.9)	280(73.2)
조부모	180(11.2)	18(12.9)	104(9.6)	57(14.9)
아이의 형제자매	749(4.6)	6(4.3)	46(4.3)	22(5.6)
혼자지냄	49(3.1)	13(8.8)	32(2.9)	5(1.4)
기타	96(6.0)	10(7.0)	68(6.3)	15(3.9)

2.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5세 누리과정」 시행 이전에 평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두 기관은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53.6%로 없다고 응답한 42.6%보다 조금 더 많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종류 및 지역규모, 가구소득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유치원 이용 부모들은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이용 가구에서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고, 사립유치원 이용 가구는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61.3%로 가장 많았다. 또한, 대도시 거주 가구가 다른 지역 거주 가구보다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월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63.0%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모학력이 높을수록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요약하자면, 유치원 이용 가구, 대도시 거주 가구, 월소득 500만원 가구, 모학력이 높은 가구에서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2-1〉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두 기관 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두 기관 간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기타	계	$\chi^2(df)$
전체	53.6	42.6	3.8	100.0(1,605)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어린이집	42.1	56.7	1.2	100.0(195)	68.19(6)***
민간어린이집	40.6	54.1	5.2	100.0(395)	
국공립유치원	60.1	34.1	5.9	100.0(391)	
사립유치원	61.3	36.3	2.4	100.0(624)	
지역규모					
대도시	57.0	42.1	0.9	100.0(655)	34.157(4)***
중소도시	51.2	43.1	5.8	100.0(639)	
읍면	51.5	42.7	5.8	100.0(3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3.6	43.4	3.1	100.0(104)	20.979(6)**
200~300만원 미만	56.8	40.7	2.4	100.0(517)	
300~500만원 미만	50.0	44.9	5.1	100.0(835)	
500만원 이상	63.0	35.6	1.3	100.0(149)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40.0	60.0	0.0	100.0(557)	14.107(8)
전문대졸	49.7	46.8	3.4	100.0(489)	
4년제 대졸	55.1	39.6	5.3	100.0(534)	
대학원 이상	56.3	40.9	2.8	100.0(20)	
모 부재	57.9	39.5	2.6	100.0(5)	
모 취업여부					
취업	53.4	42.7	3.9	100.0(734)	1.010(4)
미취업	53.9	42.4	3.7	100.0(866)	
모 부재	40.0	60.0	.0	100.0(5)	

** $p < .01$, *** $p < .001$

두 기관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860사례(42.6%)에게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 실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5세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차이가 여전히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상관없이 만 5세 유아가 공통으로 배우는 「5세 누리과정」이 실시하였지만, 두 기관에서 만 5세의 교육·보육과정의 차이는 여전히 있다고 66.6%가 응답하였다. 기존에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한 다수의 응답자들은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실시한다고 해서, 여전히 차이는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차이가 없어졌다는 응답이 44.4%로 상대적

으로 높았다. 여전히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사립유치원 이용 가구(72.0%),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77.9%)이다. 모학력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에서 차이가 없어졌다는 응답이 42.7%로 높게 나왔지만, 사례가 적어서 해석 시 유의할 필요는 있다.

〈표 III-2-2〉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차이 정도
단위: %(명)

구분	만 5세 교육·보육과정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	만 5세 교육·보육과정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기타	계	$\chi^2(df)$
전체	29.6	66.6	3.7	100.0(860)	
이용기관 종류별					
국공립·법인어린이집	44.4	51.1	4.5	100.0(82)	14.459(6)*
민간어린이집	33.0	64.3	2.7	100.0(161)	
국공립유치원	31.2	65.0	3.9	100.0(235)	
사립유치원	24.1	72.0	3.9	100.0(383)	
지역규모					
대도시	30.6	65.2	4.2	100.0(373)	2.002(4)
중소도시	28.6	67.6	3.8	100.0(327)	
읍면	29.5	68.0	2.4	100.0(16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0.7	64.0	5.3	100.0(56)	10.488(6)
200~300만원 미만	28.7	66.4	4.9	100.0(294)	
300~500만원 미만	32.6	64.6	2.8	100.0(417)	
500만원 이상	18.9	77.9	3.2	100.0(94)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33.3	63.0	-	100.0(277)	5.122(8)
전문대졸	25.8	69.8	3.7	100.0(269)	
4년제 대졸	29.3	67.3	4.4	100.0(301)	
대학원 이상	42.7	57.3	3.4	100.0(12)	
모 부재	-	100.0	-	100.0(2)	
모 취업여부					
취업	26.9	69.9	3.1	100.0(392)	5.957(4)
미취업	32.0	63.7	4.2	100.0(466)	
모 부재	-	100.0	-	100.0(2)	

* $p < .05$.

3. 「5세 누리과정」 정책 인지 정도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 시행 전에 「5세 누리과정」 정책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혀 알지 못한 경우는 5.5%로 매우 적었고 68.3%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으나 들어는 보았다고 응답하였고, 26.2%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아이가 둘째 이상인 경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셋째 이상인 경우는 전혀 알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지역규모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전혀 모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검정이 부적절하지만 어머니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정책 인지

단위: %(명)

구분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들어는 보았으나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전혀 알지 못했다	계	$\chi^2(df)$
전체	26.4	67.8	5.8	100.0(1,605)	
출생순위					
첫째	24.5	69.9	5.6	100.0(926)	16.124(4)**
둘째	28.5	66.5	5.0	100.0(591)	
셋째 이상	32.0	54.3	13.7	100.0(88)	
지역규모					
대도시	30.8	64.9	4.3	100.0(655)	30.427(4)***
중소도시	24.4	70.7	4.8	100.0(639)	
읍면	21.0	67.8	11.2	100.0(3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9.3	54.3	16.4	100.0(104)	41.069(6)***
200~300만원 미만	24.0	69.3	6.7	100.0(517)	
300~500만원 미만	25.4	70.6	4.0	100.0(835)	
500만원 이상	38.0	56.4	5.6	100.0(149)	

(표 III-3-1 계속)

구분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들어는 보았으나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전혀 알지 못했다	계	$\chi^2(df)$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30.6	63.0	6.4	100.0(557)	na
전문대졸	23.7	69.7	6.6	100.0(489)	
4년제 대졸	24.7	71.3	4.0	100.0(534)	
대학원 이상	23.9	63.4	12.7	100.0(20)	
모 부재	0.0	60.0	40.0	100.0(5)	
모 취업여부					
취업	25.6	68.4	6.0	100.0(734)	na
미취업	27.1	67.3	5.5	100.0(866)	
모 부재	0.0	60.0	40.0	100.0(5)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1$, *** $p < .001$.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 받는다’(71.9%), ‘만 5세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공통 과정이다’(70.1%), ‘취학 1년 전(만 5세 유아)만 해당 되는 정책이다’(66.4%)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무상 유아 교육/보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37.6%), ‘학원을 다니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31.7%),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저출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25.4%)에 대해서는 1/3정도만이 알고 있었다.

인지 정도를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본 결과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알고 있는 경우가 75.3%로 가장 많았고, ‘학원을 다니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월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40.7%). 또한 ‘만 5세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공통 과정이다’에 대해서 월 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83.8%) 월 200만원 미만이 가장 적게 알고 있었다(57.8%).

〈표 III-3-2〉 「5세 누리과정」 정책 내용에 대한 인지

단위: %(명)

구분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 받는다	71.9	63.3	75.3	71.1	70.8
만 5세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공동 과정이다	70.1	57.8	68.0	70.5	83.8
취학 1년 전 (만 5세 유아)만 해당 되는 정책이다	66.4	60.8	69.6	65.3	65.5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무상 유아 교육/보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7.6	31.1	40.2	36.2	41.4
학원을 다니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31.7	28.6	30.5	31.2	40.7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저출산에 기여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25.4	19.1	28.9	23.5	28.6
기타	0.1	0.5	0.1	-	-
계	100.0 (1,605)	100.0 (104)	100.0 (517)	100.0 (835)	100.0 (149)

주: 중복응답 결과임.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시기로는 2011년 12월~2012년 1월 기간인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한 2011년 5월경 알게 된 경우는 19.6%이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오리엔테이션 때 알게 된 경우는 11.5% 있었다.

면담조사에서도 「5세 누리과정」 인지 시기는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지난 가을이나 겨울 무렵에 알게 되었다는 어머니들이 많았다.

저는 직접적으로 기억이 나는 건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7살 지원이 되더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되고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그런데는 안된다. 그런말 들었죠. 작년 가을쯤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5세 누리과정' 이용 사례 14).

저도 작년에 한 후반기였던거 같아요. 매스컴에서 들긴 했는데 엄마들이 입소문이 좀 빠르니까.....정확한 (교육·보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누리과정하면 우리아이들 20만원씩 지원받는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들은 '와' 하고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어요('5세 누리과정' 이용 사례 13).

「5세 누리과정」을 처음 접하게 된 경로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인 경우가 4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인 경우가 25.0%로 많았다. 그 외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상의 커뮤니티 통해, 신문·잡지·책 등을 통해서인 경우는 총 약 18% 정도로 비율이 적었다.

〈표 III-3-3〉 「5세 누리과정」 최초 인지 시기 및 접촉 경로

		단위: %(명)	
인지 시기	비율(빈도)	접촉 경로	비율(빈도)
2011년 5월	19.6	주변 사람들을 통해	49.9
2011년 6월~8월	10.8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25.0
2011년 9월~11월	18.4	인터넷 기사를 통해	9.7
2011년 12월~2012년 1월	36.7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4.0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오리엔테이션	11.5	신문·잡지·책 등을 통해	4.0
기타	3.0	기타	7.5
계	100.0(1,605)	계	100.0(1,605)

IV. 「5세 누리과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실태

본 장에서는 올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유아의 기관 이용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한 사례, 2011년도에 다녔던 기관과 동일한 기관을 올해 다니는 사례, 2011년도에 다녔던 기관에서 올해 기관을 옮긴 사례를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기관 이용 특성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5세 누리과정」 시행을 전·후로 기관의 보육료·교육비 및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5세 누리과정」 시행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다.

1. 기관 이용 현황 및 특성

가. 기관 이용 현황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은 유치원이 63.2%, 어린이집이 36.8%로 유치원을 더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출생순위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부적절하지만 모 학력이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 전문대학 졸업 이하보다 유치원을 약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IV-1-1〉 현재 이용 기관 현황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36.8	63.2	100.0(1,605)		
출생순위					
첫째	36.8	63.2	100.0(926)	0.095(2)	
둘째	36.9	63.1	100.0(591)		
셋째 이상	35.0	65.0	100.0(88)		

(표 IV-1-1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	$\chi^2(df)$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1.5	58.5	100.0(104)	6.813(3)
200~300만원 미만	39.6	60.4	100.0(517)	
300~500만원 미만	35.8	64.2	100.0(835)	
500만원 이상	29.2	70.8	100.0(149)	
모학력				
고졸 이하	37.3	62.7	100.0(557)	na
전문대졸	39.1	60.9	100.0(489)	
4년제 대졸	33.9	66.1	100.0(534)	
대학원 이상	35.0	65.0	100.0(20)	
모 부재	60.0	40.0	100.0(5)	
모 취업여부				
취업	36.3	63.7	100.0(734)	na
미취업	37.0	63.0	100.0(866)	
모 부재	60.0	40.0	100.0(5)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590사례의 설립유형별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과, 민간어린이집 이용이 66.9%로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이용 33.1%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이용하는 어린이집 종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소도시 거주인 경우 민간어린이집 이용이 74.5%로 가장 높고,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이용은 25.5%로 가장 낮게 나온 것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이 43.0%로 가장 높고, 민간어린이집 이용은 57.0%로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별 기관 이용의 차이는 없었다.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지만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 약간의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둘째 이상인 경우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IV-1-2〉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

구분	어린이집 유형		계	$\chi^2(df)$
	국공립·법인	민간		
전체	33.1	66.9	100.0(590)	
출생순위				
첫째	31.0	69.0	100.0(341)	na
둘째	36.1	63.9	100.0(218)	
셋째 이상	34.0	66.0	100.0(31)	

단위: %(명)

(표 IV-1-2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형		계	$\chi^2(df)$
	국공립/법인	민간		
지역규모				
대도시	35.6	64.4	100.0(240)	11.711(2)**
중소도시	25.5	74.5	100.0(234)	
읍면	43.0	57.0	100.0(11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5.3	54.7	100.0(43)	5.296(3)
200~300만원 미만	28.6	71.4	100.0(205)	
300~500만원 미만	34.7	65.3	100.0(299)	
500만원 이상	30.6	69.4	100.0(43)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31.3	68.7	100.0(208)	na
전문대졸	29.3	70.7	100.0(191)	
4년제 대졸	39.6	60.4	100.0(181)	
대학원 이상	13.2	86.8	100.0(7)	
모 부재	42.4	57.6	100.0(3)	
모 취업여부				
취업	32.8	67.2	100.0(267)	na
미취업	33.2	66.8	100.0(320)	
모 부재	42.4	57.6	100.0(3)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1$.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1,015사례는 사립유치원 이용이 61.5% 국공립 유치원이 38.5%로 사립유치원 이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이용 사례와 동일하게 지역별 변인에서 이용 기관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인 경우 사립유치원 이용이 68.5%로 중소도시와 읍면 거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도시와 읍면 거주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지만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 약간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첫째인 경우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립 유치원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졌다.

〈표 IV-1-3〉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유형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계	χ ² (df)
	국공립	사립		
전체	38.5	61.5	100.0(1,015)	
출생순위				
첫째	36.4	63.6	100.0(585)	na
둘째	40.1	59.9	100.0(373)	
셋째 이상	49.5	50.5	100.0(57)	
지역규모				
대도시	31.5	68.5	100.0(415)	14.777(2)**
중소도시	43.1	56.9	100.0(405)	
읍면	43.9	56.1	100.0(19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6.2	63.8	100.0(61)	4.765(3)
200~300만원 미만	42.3	57.7	100.0(313)	
300~500만원 미만	35.7	64.3	100.0(536)	
500만원 이상	42.9	57.1	100.0(105)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31.3	68.7	100.0(208)	na
전문대졸	29.3	70.7	100.0(191)	
4년제 대졸	39.6	60.4	100.0(181)	
대학원 이상	13.2	86.8	100.0(7)	
모 부재	42.4	57.6	100.0(3)	
모 취업여부				
취업	32.8	67.2	100.0(267)	na
미취업	33.2	66.8	100.0(320)	
모 부재	42.4	57.6	100.0(3)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1$.

기관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8시간인 경우가 35.9%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약 7시간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이용기관의 유형, 소재지역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특히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대도시 지역보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할 경우 이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빈도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으나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약간 더 긴 경향성이 나타났다.

〈표 IV-1-4〉 기관 평균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미만	7시간	8시간	9시간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chi^2(df)$
전체	10.3	24.0	21.5	35.9	8.3	100.0(1605)	7.11(1.28)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3.3	28.6	18.6	38.4	11.0	100.0(195)	7.30(1.20)	67.962(12)**
민간 어린이집	6.1	17.7	20.8	42.5	12.8	100.0(395)	7.45(1.26)	
국공립 유치원	15.7	22.0	22.5	34.2	5.7	100.0(391)	6.92(1.33)	
사립 유치원	11.9	27.9	22.1	31.9	6.3	100.0(624)	6.94(1.23)	
지역규모								
대도시	12.3	30.2	17.5	30.7	9.3	100.0(655)	6.96(1.33)	56.641(8)**
중소도시	11.0	19.0	26.3	37.0	6.7	100.0(639)	7.12(1.22)	
읍면	4.8	21.5	19.9	44.4	9.5	100.0(311)	7.39(1.2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6	20.7	26.9	38.5	7.3	100.0(104)	7.28(1.28)	11.912(12)
200-300만원 미만	10.3	24.7	23.2	33.9	7.9	100.0(517)	7.07(1.22)	
300-500만원 미만	10.8	23.3	20.5	37.4	8.0	100.0(835)	7.11(1.30)	
500만원 이상	10.7	28.4	16.7	32.3	11.9	100.0(149)	7.10(1.34)	
모 취업여부								
취업	5.8	18.9	20.1	43.1	12.2	100.0(734)	7.43(1.28)	na
미취업	14.2	28.3	22.7	29.7	5.0	100.0(866)	6.83(1.22)	
모 부재	-	37.6	19.9	42.5	-	100.0(5)	7.05(1.00)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01$.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프로그램으로 39.2%가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집과의 거리(25.3%), 안전한 환경(24.2%)이 많았다. 이용기관에 따른 고려요인을 살펴보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 다음으로 집과의 거리, 안전한 환경, 교사 순으로 중요했고,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국공립 여부가 가장 중요하였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과 비용이 중요했고, 사립 유치원 이용의 경우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7.5%로 월등히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안전한 환경과 집과의 거리가 중요하였으며 비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였다.

〈표 IV-1-5〉 기관 선택시 주요 고려 요인

단위: %(명)

구분	전체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프로그램	39.2	39.7	35.6	29.3	47.5
집과의 거리	25.3	21.3	32.4	20.6	24.9
안전한 환경	24.2	20.8	23.2	23.3	26.4
교사	17.4	19.6	18.0	12.9	19.1
비용	14.9	16.2	11.7	27.5	8.7
간강/영양	13.5	15.0	13.3	14.9	12.3
살내외 환경	12.6	8.6	13.9	10.0	14.5
시설규모(아동수)	11.8	12.4	10.9	8.2	14.3
국공립 여부	10.5	11.3	1.8	33.5	1.4
주변의 평판	9.9	7.6	10.7	6.1	12.4
운영시간	9.8	13.5	13.4	9.7	6.4
원장	8.3	11.2	12.4	3.0	8.0
평가인증 통과 및 평가 실시 여부	1.8	1.4	2.2	1.0	2.1
기타	0.6	0.5	0.4	0.0	1.1

주: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한 결과임.

나. 기관 이용 특성

1) 전체

응답자 1,605명의 현재 기관의 이용 특성을 살펴보았다. 작년과 동일한 기관 이용 사례는 1,079명(67.3%)로 가장 많았고, 작년 이용 기관에서 2012년 변경한 사례는 383명(23.9%)이며, 태어나서 올해 처음 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는 143명(8.9%)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은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다.

기관 이용 특성별로 보면, 작년과 동일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많고, 올해 기관을 변경한 사례와 처음 기관을 이용한 사례 모두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기관을 변경한 사례가 전체 어린이집 이용이 20.1%(국공립·법인어린이집 5.7% + 민간어린이집 14.4%), 전체 유치원 이용이 79.9%(국공립유치원 38.4% + 사립유치원 41.5%)로 다른 두 집단보다 유치원 이용자가 많았으며, 작년과 동일 기관 이용 사례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이 33.4%, 전체 유치원 이용이 56.6%로 다른 두 집단보다 어린이집 이용자

가 많은 특성을 보였다.

〈표 IV-1-6〉 기관 이용 특성

	단위: %(명)				계
	국공립· 법인어 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올해 처음기관이용사례	12.0	19.7	29.6	38.7	100.0(143)
작년과 동일기관이용사례	14.5	28.9	18.6	38.0	100.0(1,079)
올해 기관변경 사례	5.7	14.4	38.4	41.5	100.0(383)
$\chi^2(df) = 91.54(6)^{***}$					

*** $p < .001$

다음은 기관 이용 특성별로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유형, 「5세 누리과정」이 기관 선택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고찰해 보겠다. 먼저, 가장 많이 표집된 2011년과 동일 기관 이용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자.

2) 2011년과 동일 기관 이용 사례

가) 기관 변경 계획 여부

본 설문조사에서는 1,605명 중에서 작년과 동일한 기관을 이용한 사례는 1,079 사례가 표집되었다. 작년(2011년)에 다녔던 기관을 변경하지 않고 올해(2012)에도 다니는 경우이다. 본 면담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1,079사례 중 87.8%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이 최초 이용기관이란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해당 자녀는 지금까지 기관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고 해당 기관만을 이용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IV-1-7〉 현재 이용 기관과 최초 기관 동일 여부

구분	단위: %(명)			$\chi^2(df)$
	예	아니오	계	
전체	87.8	12.2	100.0(1,079)	
이용기관 종류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93.0	7.0	100.0(156)	11.486(3)**
민간 어린이집	86.7	13.3	100.0(312)	
국공립 유치원	92.0	8.0	100.0(201)	
사립 유치원	84.6	15.4	100.0(410)	

** $p < .01$.

이용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법인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이 기관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보다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국공립 기관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와 신뢰, 만족도 등을 짐작할 수 있겠다.

현재 이용기관을 2012년도 올해 옮길 계획이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옮길 계획이 없었다’라는 응답이 96.6%로, 현재 이용기관의 충성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자가 유치원 이용자 보다 ‘옮길 계획이 있었다’가 조금 더 많았다. 국공립유치원 이용자들의 99.5%는 올해 기관을 옮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8〉 올해 기관 변경 계획 여부

단위: %(명)

구분	옮길 계획 있었음	옮길 계획 없었음	계	$\chi^2(df)$
전체	3.4	96.6	100.0(1,079)	
이용기관 종류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4.0	96.0	100.0(156)	17.454(3)**
민간 어린이집	6.7	93.3	100.0(312)	
국공립 유치원	0.5	99.5	100.0(201)	
사립 유치원	2.2	97.8	100.0(410)	

** $p < .01$.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을 4년째 이용하고 있는 취업모 사례 11도 자녀가 만 5세가 되면서 유치원으로 기관을 옮길까 고민을 잠시 했으나 현재 기관에 만족한 상황에서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이다.

제가 맞벌이니까 아침부터 늦게까지 보육이 되니까 일단 그게 안심이 되구요. 어차피 누리과정에 때문에 사실 고민은 했어요. 고민이라기 보다는 유치원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고 주위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대 찾아보니깐 저는 그냥 어린이집 만족했구요. 그리고 누리과정은 이제 다 똑같잖아요. 공통적인 교과목을 배우는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옮겨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5세 누리과정’ 사례 11)

실제로 옮길 계획이 있었다고 응답한 37사례 대상으로 ‘어느 기관으로 옮길

계획이었는데가' 질문에서 '유치원'을 88.3%가 꼽았다.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자 했던 사례는 2.0%(1명)에 불과했으며 유아대상 학원으로 9.7%(4명)에 그쳤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월평균 가구소득 300~500만원 미만 가구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 및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유아대상 학원으로도 옮길 계획이 있었다고 응답했다.⁸⁾

〈표 IV-1-9〉 올해 변경하고자 했던 기관

구분	단위: %(명)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	계
전체	2.0(1)	88.3(32)	9.7(4)	100.0(37)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	100.0	-	100.0(6)
민간 어린이집	3.5	84.0	12.4	100.0(21)
국공립 유치원	-	100.0	-	100.0(1)
사립 유치원	-	88.8	11.2	100.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100.0	-	100.0(2)
200~300만원 미만	-	100.0	-	100.0(7)
300~500만원 미만	3.3	84.2	12.5	100.0(22)
500만원 이상	-	86.3	13.7	100.0(6)

주: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나) 기관 변경 계획 이유

기관을 변경하려고 했던 주요 이유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새로운 교육·보육프로그램을 접하고자' 25.2%, '비용부담이 커서' 12.4%가 차지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이용 가구에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기관을 옮기려고 계획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59.9%),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가구에서 '시설/설비가 더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가 높게 나타났다(51.3%).

'비용부담으로 기관을 옮기려고 했던 가구는 현재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가구에서 많았다. 사례수는 많지 않지만 기관종류를 막론하고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는 '비용부담'을 꼽은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8) 이 중 유치원으로 기관을 변경하고자 했던 32명에게 유치원 설립유형을 묻은 결과, 국공립이 54.3%(공립병설 28.6%, 공립단설 25.7%), 사립유치원 45.7%로 국공립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0〉 기관 변경 계획의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교육/보육 프로그램 접하게 하고자	비용 부담이 커서	시설/설비 가 더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기 타	계
전체	50.6	23.7	12.5	8.5	4.7	100.0(37)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48.7	-	-	51.3	-	100.0(6)
민간 어린이집	61.1	27.4	8.0	-	3.5	100.0(21)
국공립 유치원	-	100.0	-	-	0.0	100.0(1)
사립 유치원	33.2	22.8	33.0	-	11.1	100.0(9)
$\chi^2(df) = 26.328(12)**$						

** $p < .01$

기관을 옮기려고 했으나, 변경하지 않은 이유로는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가 40.1%로 가장 많았다. 현재 이용 기관이 해당 자녀의 최초 이용기관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표 IV-1-8 참조) 자녀가 현재 이용 기관에 충분히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기관 변경으로 인한 낯선 환경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면담조사에서 현재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 모두(6명)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관을 변경하지 않았다. 다음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사례들에서 올해 기관을 옮기지 않은 이유인데 설문조사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저는 옮기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우리 애한테 물어봤는데 ‘옮기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맞벌이다보니 오후에 활성화 되어 있는 기관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5세 누리과정’이용 사례 12)

비용면에서 (사립)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도 구립 어린이집에 신청을 4살 때 했었는데 6세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니던 곳에서 또 다시 환경 바뀌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다녔던) 유치원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친구도 바뀌고 그런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5세 누리과정’이용 사례 10).

기관변경을 하지 않은 두 번째로 많이 꼽은 이유로는 ‘원하는 기관에 자리가 안 나서’ 20.5%이다. 여기서 “원하는 기관”이란, 현재 국공립 이용 가구에서 이 이유를 응답한 사례가 단 한 사례도 없고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이용 가구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 IV-1-11〉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이용기관 종류				$\chi^2(df)$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401	100.0	37.0	-	11.0	
보내려고 했던 기관에 서 자리가 안 나서	205	-	26.8	-	22.3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육·보육과정 차이가 없 어져서	128	-	12.9	-	22.7	23.139(12)*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월 20만원 지원을 받게 되어서	131	-	4.2	100.0	33.0	
기타	135	-	19.2	-	11.1	
계	1000(37)	100.0(6)	100.0(21)	100.0(1)	100.0(9)	

* $p < .05$

이에 비해 '5세 누리과정'은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기관변경을 가장 원했던 민간어린이집 이용 가구(표 IV-1-11 참조)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육·보육과정 차이가 없어졌다고 보고, 기관을 옮기지 않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의 인용 글은 '5세 누리과정'이 공통과정으로 시행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립유치원으로 옮길 계획을 수정한 사례를 보여준다. 참고로 이 사례의 경우는 집 주변에 국공립유치원이 없어서 유치원이라 하면 사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취학전 일년은 유치원으로 보낼까 생각은 했지만 누리과정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랑 똑같이 가르치는데 굳이 옮기지 말자. 그런 얘기는 엄마들하고 많이 했었어요('5세 누리과정' 이용 사례 15).

비용부담으로 기관변경을 가장 원했던 사립유치원 이용자에서는(표 IV-1-11 참조) '5세 누리과정'으로 월 20만원 지원을 받게 되면서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3) 2011년 이용 기관에서 2012년에 변경한 사례

가) 변경 전·후 기관 종류

본 설문조사에서 기관을 변경한 사례는 총 383명이다. 383명의 현재 기관 이용 종류는 사립유치원이 159명으로 가장 많고, 국공립유치원 147명, 민간어린이집 55명,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설문조사 실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의 바로 직전에 이용한 기관(변경 전 기관)은 어린이집 71.0%(272명), 유치원 22.0%(85명), 유아대상 학원 7.0%(27명) 순으로 나왔다.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가구에서 기관을 변경했음을 알 수 있다.

변경 직전의 기관으로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현재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이 이용자가 81.8%로 가장 많았고, 변경 직전 기관이 유치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현재 국공립유치원 이용자가 34.0%로 가장 많았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에서 유치원으로 동일 기관 유형내에서 변경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변경 직전이 기관이 유아대상 학원인 경우는 현재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사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직전 이용기관이 어린이집이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많았다. 유아대상 학원을 직전 기관으로 이용한 사례는 대도시가 가장 많고, 읍면 지역이 가장 적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직전 이용기관이 어린이집이 많았고,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직전 이용기관으로 유치원이 많았다.

유아대상 학원도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12 참조). 이들 유아대상 학원의 월 순수 교습비(특별활동비 제외)만이 평균 51만원(영어학원 61만원, 놀이학교 48만원)이란 조사결과(이윤진 외, 2009)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이용 비중이 높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표 IV-1-12〉 변경 직전 이용 기관 종류

구분	단위: %(명)			계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	
전체	71.0	22.0	7.0	100.0(383)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81.8	12.6	5.6	100.0(22)
민간 어린이집	74.7	17.1	8.2	100.0(55)
국공립 유치원	61.9	34.0	4.1	100.0(147)
사립 유치원	76.7	13.8	9.5	100.0(159)
$\chi^2(df) = 22.260(6) ***$				

(표 IV-1-12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	계
지역규모				
대도시	72.8	17.1	10.2	100.0(156)
중소도시	66.4	27.9	5.7	100.0(159)
읍면	77.8	19.4	2.8	100.0(67)
	na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3.5	16.5	0.0	100.0(18)
200~300만원 미만	77.0	16.8	6.2	100.0(114)
300~500만원 미만	72.1	21.4	6.6	100.0(208)
500만원 이상	44.5	41.4	14.1	100.0(43)
	$\chi^2(df) = 19.118(6)^{**}$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1$ *** $p < .001$

변경 직전의 이용기관을 설립주체별로 상세히 분석해 보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직전 이용기관은 국공립보다는 민간이나 사립이 월등히 많았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직전 이용기관으로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주로 이용하였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는 직전 이용 기관 역시,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 많았다.

〈표 IV-1-13〉 변경 직전 이용 기관 설립주체별

구분	단위: %(명)					
	어린이집		계	유치원		계
	국공립·법인	민간		국공립	사립	
전체	15.0	85.0	100.0(272)	32.0	68.0	100.0(84)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34.8	65.2	100.0(18)	0.0	100.0	100.0(3)
민간 어린이집	8.7	91.3	100.0(41)	31.1	68.9	100.0(10)
국공립 유치원	18.7	81.3	100.0(91)	32.0	68.0	100.0(50)
사립 유치원	11.5	88.5	100.0(122)	36.3	63.7	100.0(22)
지역규모						
대도시	14.8	85.2	100.0(114)	22.2	77.8	100.0(27)
중소도시	18.9	81.1	100.0(106)	33.8	66.2	100.0(44)
읍면	7.8	92.2	100.0(52)	45.8	54.2	100.0(13)

주: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읍면 거주에서 직전이용 기관으로 민간어린이집이 92.2%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거주는 사립유치원이 77.8%로 가장 많았다. 월소득 200만원 가구에서 직전이용한 기관으로 민간어린이집이 93.4%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가구에서 사립유치원을 다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사례

자녀가 태어나서 올해 처음으로 다니는 경우, 기관 종류는 유치원이 97명으로 어린이집 45명보다 많았다. 취학 1년 전은 초등학교 대비를 위하여 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모집단 특성이 반영된 응답 결과로 볼 수 있다. 기관 설립별로는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을,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더 많이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4〉 처음 이용 기관 종류

						단위: %(명)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국공립/법인	민간	계	국공립	사립	계	
37.6	62.4	100.0(45)	43.4	56.7	100.0(97)	100.0(143)

2. 기관 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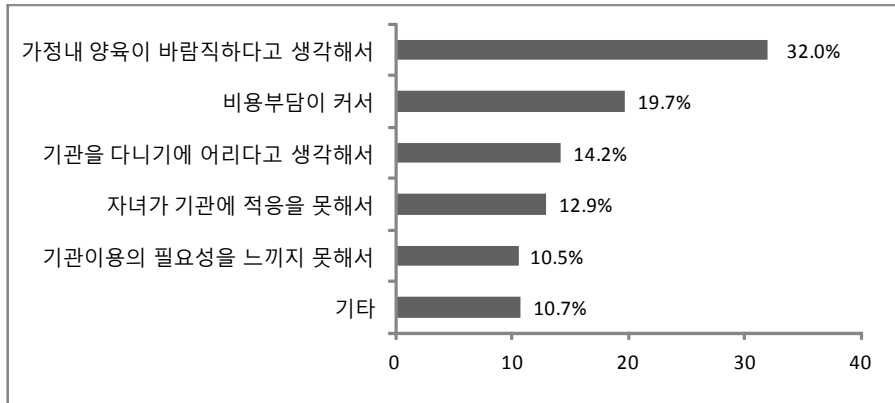
가.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사례

1) 그동안 기관 미이용 이유

5세 누리과정 대상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올해 기관을 이용한 143사례를 대상으로 그동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취학 전에는 기관보다는 가정내 양육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가 32.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용부담이 커서 19.7%', '기관을 보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가 14.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V-2-1 참조).

143사례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300~500만원 미만인 72명, 200~300만원 미만이 53명, 200만원 미만 15명, 500만원 이상이 3명으로 집계되었다. 즉, 가구소득이 양 극단에 있는 경우 기관 미이용 사례가 적었고, 중간 지점에 있는 가구에서 기관 미이용 사례가 더 많았다.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조차 자녀가 만 5세

가 될 때까지 기관을⁹⁾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정책으로 인해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에서도 기관 미이용 사례는 많지 않지 않았다.



[그림 IV-2-1] 그동안 기관 미이용 이유

기관 미이용 이유 중에서 비용부담으로 그동안 자녀를 기관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에 주목하여 지역과 소득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읍면 지역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사례에서 비용부담에 대한 수치가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례수가 많지 않아서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이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란 기초를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층을 확대해 왔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비용부담으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가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육아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정책방안 발굴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비용부담으로 그동안 자녀를 기관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에 주목하여 지역과 소득 변인으로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읍면 지역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사례에서 비용부담에 대한 수치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그러나 사례수가 많지 않아서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란 기초를 유지해 왔고, 지원 대상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비

9) 여기서 기관 이용이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유아대상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을 주 3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한달 이상을 이용한 경우를 말함.

용부담으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육아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정책방안 발굴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표 IV-2-1〉 그동안 기관 미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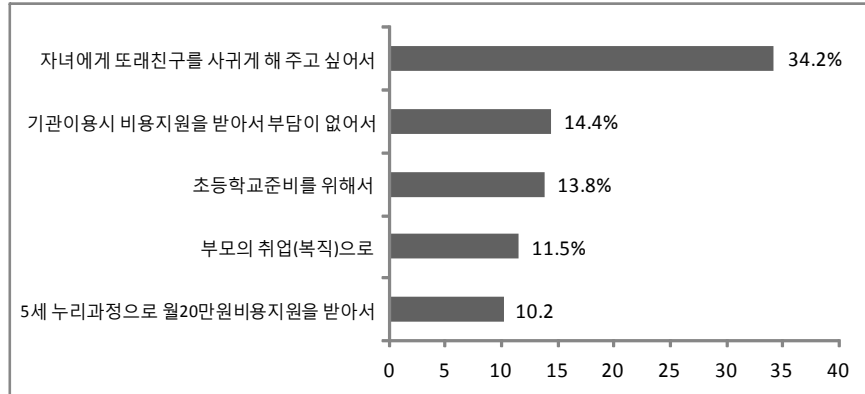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취학전에는 가정내 양육이 더 바람직해서	보육기관 비용부담이 커서	기관을 보육기관 어리다고 생각해서	기관에 적용하지 못해서	기관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계
전체	32.0	19.7	14.2	12.9	10.5	10.7	100(143)
지역규모							
대도시	34.2	16.4	10.1	18.9	9.4	11.0	100(73)
중소도시	31.8	20.5	19.8	6.1	11.8	10.0	100(60)
읍면	17.0	39.3	10.0	10.3	10.4	13.0	100(1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6	51.7	6.8	6.8	14.0	-	100(15)
200-300만원 미만	29.9	16.7	23.4	8.1	13.3	8.5	100(53)
300-500만원 미만	34.4	16.2	9.4	16.9	8.1	15.0	100(72)
500만원 이상	66.6	-	-	33.4	-	-	100(3)

주: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2)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이유

태어나서 올해 처음으로 ‘5세 누리과정’ 해당 자녀를 기관에 보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아이에게 또래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가 34.2%로 가장 많았고 기관 이용시 비용지원을 받아서 14.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13.8%, 부모의 취업(복직)으로 11.5% 순으로 응답하였다.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20만원 지원을 받게 되어서’는 10.2%로 응답비율이 적게 나왔다(그림 IV-2-2 참조).



[그림 IV-2-2] 처음 기관 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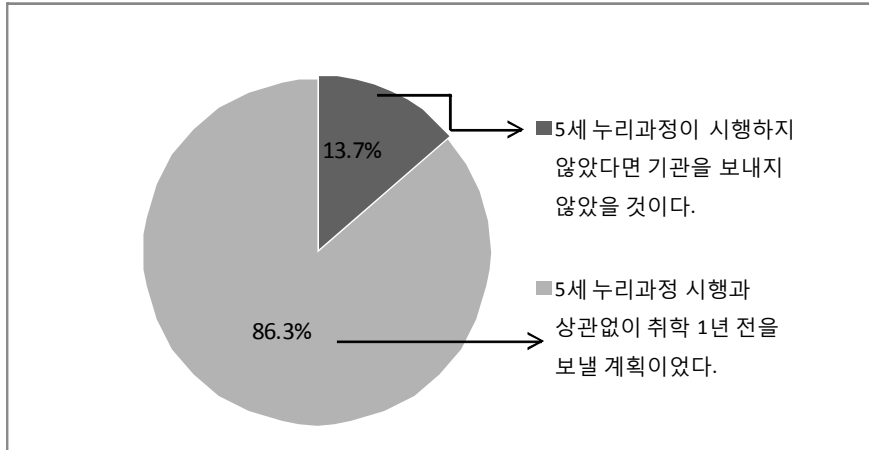
다음의 “월 20만원 비용지원이 없었더라도 올해 기관을 보낼 계획이었느냐”는 질문에서 86.3%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결과로 봤을 때, ‘5세 누리과정’이 기관 이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학 1년 전에 해당하는 만 5세아의 경우, 이미 어린이집 이용시 비용지원액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고¹⁰⁾, 비용부담으로 인해 기관을 다니지 못한 사례가 많은 읍면 지역의 경우, 주로 법인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¹¹⁾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은 교사인건비 등을 지원받기 때문에 월 보육료·교육비가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월 20만원 지원의 ‘5세 누리과정’ 정책이 기관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이용시 비용지원을 받아 부담이 없어서’(14.4%)가 ‘5세 누리과정의 월 20만원 지원’(10.2%)보다 더 많은 응답이 나온 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취학 1년 전에 또래 친구도 사귀면서, 초등학교 준비 차원에서 기관을 이용할 계획을,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상관없이, 학부모들은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IV-2-3 참조).

10) 2011년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아의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액수는 월 177천원임(보건복지가족부, 2011)

11) 본 조사에서 읍면지역에는 법인어린이집 29.6%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 44.7%로 가장 많았다.



[그림 IV-2-3] 처음 기관 이용에 「5세 누리과정」이 끼친 정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5세 누리과정'으로 월 20만원 비용지원이 기관 이용에 영향을 많이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앞서 읍면 지역에서 '비용부담이 커서' 그동안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 항목에서는 '5세 누리과정' 정책과 상관없이 기관을 보낼 계획에서는 대도시가 가장 낮게 나왔으나 이 역시 통계적 유의하지는 않았다. 비용부담 이유가 가구소득 변인에서는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역변인에서는 일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처음 이용 기관으로 유치원을 선택한 가구가 '5세 누리과정'에 상관없이 기관에 보낼 계획이 89.6%로 어린이집을 선택한 가구보다 취학 1년 전의 기관 이용 의사가 좀 더 강했다고 보인다.

<표 IV-2-2> 처음 기관 이용에 '5세 누리과정'이 끼친 정도

단위: %(명)

구분	'5세 누리과정' 비용지원이 없었다면, 기관을 보내지 않을 계획이었다	'5세 누리과정' 비용지원과 무관하게 취학 1년 전은 보낼 계획이었다	계
전체	13.7	86.3	100.0(143)
지역규모			
대도시	15.1	84.9	100.0(73)
중소도시	12.6	87.4	100.0(60)
읍면	9.5	90.5	100.0(10)

(표 IV-2-2 계속)

구분	'5세 누리과정' 비용지원이 없었다면, 기관을 보내지 않을 계획이었다	'5세 누리과정' 비용지원과 무관하게 취학 1년 전은 보낼 계획이었다	계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4.4	65.6	100.0(15)
200~300만원 미만	14.8	85.2	100.0(53)
300~500만원 미만	9.2	90.8	100.0(72)
500만원 이상	0.0	100.0	100.0(3)
이용기관 종류			
어린이집	20.8	79.2	100.0(45)
유치원	10.4	89.6	100.0(97)

주: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나. 2011년과 동일 기관 이용 사례

1) 현재 기관 이용 이유

작년과 동일한 기관을 다니고 있는 1,079명에게 지금 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가 43.5%로 가장 많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가 27.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현재 이용기관의 이용이유에서 사회성 발달(어린이집 29.0%, 유치원 26.0%), 전인적 발달(어린이집 28.5%, 유치원 38.3%)을 주로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다(서문희 외, 2009: 179).

변인별로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가구, 읍면 거주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가구에서 '비용부담이 없어서'의 응답비중이 높게 나왔다.

〈표 IV-2-3〉 현재 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

구분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부모 취업 (복직) 으로	기관이용시 비용지원으로 이용부담 없어서	기 타	단위: %(명)
						계
전체	43.5	27.9	9.4	8.7	10.5	1000(1,079)

(표 IV-2-3 계속)

구분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부모 취업 (복직) 으로	기관이용시 비용지원으로 이용부담 없어서	기 타	계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35.0	19.9	17.4	15.0	12.6	100.0(156)
민간 어린이집	46.5	25.0	10.2	6.3	11.9	100.0(312)
국공립 유치원	41.6	23.9	9.0	16.5	9.0	100.0(201)
사립 유치원	45.3	35.2	6.1	4.2	9.3	100.0(410)
$\chi^2(df) = 66.893(12)^{***}$						
지역규모						
대도시	38.7	30.9	9.5	9.4	11.5	100.0(426)
중소도시	48.2	28.7	6.9	5.9	10.2	100.0(420)
읍면	43.7	21.1	14.0	12.1	9.1	100.0(234)
$\chi^2(df) = 25.934(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5.5	29.0	15.1	11.8	8.6	100.0(72)
200~300만원 미만	42.7	30.7	6.6	9.8	10.2	100.0(350)
300~500만원 미만	43.9	28.2	9.5	8.6	9.9	100.0(555)
500만원 이상	49.5	16.3	15.0	2.9	16.3	100.0(103)
$\chi^2(df) = 25.480(12)^{**}$						

** $p < .01$ *** $p < .001$

2) 현재 기관 계속 이용 이유

현재 이용 기관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로는 초등학교 준비를 할 수 있고 (29.0%), 원장·교사에 만족해서(25.5%)를 주로 꼽았다. 취학 1년 전 자녀에게 ‘초등학교 준비는 기관 선택이나 변경에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 가구는 지금 기관이 “초등학교 준비에 적절한 기관”과 “비용부담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 비율에 비해 많았다. 반면,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원장·교사에 만족해서 이용하는 응답이 많았다. 사립유치원은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지만, 이용 부담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는 원장·교사에 만족해서 기관을 계속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면,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초등학교 준비에 적절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표 IV-2-4〉 작년 이용한 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준비하기 적절하다 생각해서	원장· 교사 자질에 만족해서	새로운 교육·보육 프로그램 을 접할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이 없어서	기 타 ¹²⁾	계
전체	29.0	25.5	11.6	9.4	24.5	100.0(1,079)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27.0	24.0	3.6	10.7	34.7	100.0(156)
민간 어린이집	23.4	30.9	9.3	8.8	27.7	100.0(312)
국공립 유치원	39.8	15.5	9.9	20.9	13.8	100.0(201)
사립 유치원	28.7	26.8	17.4	3.7	23.5	100.0(410)
	$\chi^2(df) = 105.274(12)^{***}$					
지역규모						
대도시	35.0	21.1	9.0	10.7	24.2	100.0(426)
중소도시	25.9	32.0	12.0	8.4	21.6	100.0(420)
읍면	23.4	21.9	15.6	8.8	30.3	100.0(234)
	$\chi^2(df) = 31.822(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1.0	30.1	17.9	11.1	19.9	100.0(72)
200~300만원미만	30.1	26.0	14.8	9.8	19.3	100.0(350)
300~500만원미만	29.4	25.1	8.7	8.9	27.9	100.0(555)
500만원 이상	28.1	22.3	12.6	9.6	27.4	100.0(103)
	na					
모취업여부						
취업	24.1	25.4	10.0	9.4	31.1	100.0(495)
미취업	33.2	25.8	12.9	9.1	19.0	100.0(581)
모부재	-	-	27.4	72.6	-	100.0(3)
	$\chi^2(df) = 39.207(8)^{***}$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정이 절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 $p < .001$

다. 올해 기관 변경 사례의 변경이유

올해 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강한 주요 이유로는 “초등학교 준비”를 가장 많이 꼽았고, 새로운 교육·보육프로그램을 위해서”가 2순위를 차지했다. ‘5세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월 20만원 비용지원이 공통과정보다 기관 변경에 더 많이 작

12) 기타에는 자녀의 친한 친구가 다니고 있어서, 주변에 보낼만한 다른 기관이 없어서, 타 기관 대비 시설·설비가 좋아서, 기관 이용시간이 편해서(예: 일찍 또는 늦게까지 기관 이용 가능) 등이다.

용하였다. 월 20만원 지원을 받게 되면서 기관을 옮기는 게 비용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11.8%), 월 20만원 지원을 받게 되면서 원했던 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8.9%) 기관을 변경한 경우가 교육·보육과정의 차이가 없어서(0.8%, 기타로 처리)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을 직전 기관으로 다녔던 경우에서 '새로운 교육·보육프로그램'을 위해 기관 변경이 26.5%로 높게 나왔으며 유아대상학원을 다닌 가구에서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기관을 변경했다가 63.0%를 차지했다.

월 20만원 지원을 받게 되면서 기관을 옮기는 게 비용면에서 유리한 사례는 수업료가 저렴한 기관을 다닌 경우(국공립·법인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에 주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국공립유치원은 월 기본 수업료가 5만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입장에서는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다는 게 크게 와 닿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료가 비싼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 <표 IV-43>에서 국공립유치원이 많은 읍면 지역에서 '기관변경이 비용면에서 유리해서'의 이유로 기관을 옮긴 경우가 22.4%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표 IV-2-5> 올해 기관을 변경한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접하고자	월20만원 지원으로 기관변경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	월20만원 지원으로 원했던 기관으로 옮길수있어서	보내고 싶었던 기관이었는데 마침 연락이와서	기타	계
전체	36.9	22.2	11.8	8.9	7.5	12.8	100.0(383)
na							
변경 전 기관종류별							
어린이집	34.6	26.5	11.0	10.3	7.4	10.3	100.0(272)
유치원	35.3	12.9	14.1	7.1	8.2	22.4	100.0(85)
유아대상학원	63.0	11.1	11.1	-	7.4	7.4	100.0(27)
na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9.1	13.6	13.6	22.7	22.7	18.2	100.0(22)
민간어린이집	14.8	31.5	9.3	7.4	9.3	27.8	100.0(54)
국공립유치원	52.4	10.2	12.2	6.1	8.2	10.9	100.0(147)
사립유치원	34.0	30.8	11.9	10.1	4.4	8.8	100.0(159)

$\chi^2(df) = 62.268(12) ***$

(표 IV-2-5 계속)

구분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접하고자	월20만원 지원으로 기관변경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	월20만원 지원으로 원했던 기관으로 옮길수 있어서	보내고 싶었던 기관이었는데 마침 연락이와서	기 타	계
지역규모							
대도시	39.7	27.6	11.5	6.4	8.3	6.4	100.0(156)
중소도시	37.7	20.1	8.2	12.6	6.9	14.5	100.0(159)
읍면	28.4	13.4	22.4	6.0	6.0	23.9	100.0(67)
$\chi^2(df) = 24.005(8)**$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1$, *** $p < .001$

다음 사례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사립유치원으로 올해 옮긴 사례이다. 이 경우는 첫째 자녀가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해당 자녀를 같이 보냈는데 영어학원이 학습위주로 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껏 놀게 해 주고 싶어서 유치원으로 옮긴 드문 사례이다. 즉, 초등학교 준비보다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어서 기관을 변경했다. 다만, 국공립을 보내고 싶었으나 갈 수 있는 공립유치원은 주변에 없고, 구립어린이집은 자리가 없어서 사립유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영어유치원에서는 사실 공부위주예요. 아무리 놀아도 노는 거 같지 않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동요도 배우고 싶고, 영어로 말해야하는 스트레스도 안받고 노는 거 놀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기관을 옮기게) 된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침 누리과정이 있어서 저야 더 좋죠. 그래도 구립유치원이 워낙에 평이 좋으니깐 보낼려고 했다가 사실 너무 자리가 없어서. 7세는 자리가 있다고 그 전에 들었어요. 근대 입학이 안되는 거예요. 누리과정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는 일반유치원 다닐 수밖에 없었구요('5세 누리과정'이용 사례 14).

3.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비용 변화

가. 전체

1) 기본 비용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기관 이용 시 기본비용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5

세 누리과정' 시행 전의 기관¹³⁾ 이용 시 월 평균 201,200원이 소요됐다면, 시행 후에는 111,800원으로 89,400원이 감소되었다. 기본 보육료·수업료의 감소폭이 123,500원에서 38,900원으로 84,600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른 기타 비용들도 작년에 비해 비용이 소폭 감소하였다(그림 IV-3-1 참조).

〈표 IV-3-1〉 「5세 누리과정」 전·후 기관 월 기본비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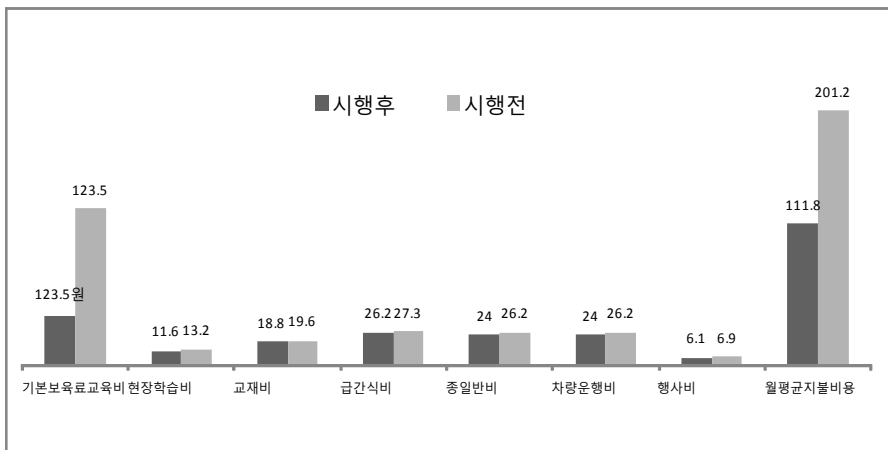
단위: 천원, 명

구분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사례수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본보육료·수업료	123.5	119.3	1,462	38.9	59.6	1,598
현장학습비	13.2	16.4	1,179	11.6	13.2	1,295
교재비	19.6	21.4	1,173	18.8	20.8	1,290
급간식비	27.3	21.9	1,141	26.2	23.3	1,266
종일반	26.2	35.3	1,086	24.0	32.9	1,200
차량운행비	6.9	11.0	1,059	6.1	10.8	1,182
각종 행사비	7.7	18.2	1,080	7.2	13.6	1,177
월평균 지불비용	201.2	145.1	1,462	111.8	90.3	1,605

주: 비헤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5세 누리과정 시행 후'비용은 월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이용 기관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외의 유아대상 학원도 포함됨.



[그림 IV-3-1] 「5세 누리과정」 전·후 기관 월 기본비용 변화

13)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아대상 학원 포함

다음 <표 IV-3-2>는 기관유형별로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기관 이용 시 기본비용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월 기본비용이 가장 저렴한 기관은 국공립유치원으로 월평균 140,100원의 비용을 지불했었다. 반면, 가장 비용이 비싼 기관은 사립유치원으로 월평균 257,900원으로 국공립유치원보다 117,800원을 더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용면에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이에 국공립·법인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각각 159,800원, 191,300원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비용 차이는 31,500원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차이보다는 적었다.

전체 기본비용에서 기본 수업료·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고, 기관유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급간식비와 종일반 등에 지불하는 비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2>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기관 이용 시 월 기본비용(기관유형별)

단위: 천원, 명

구분	기관종류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표준편차)	민간어린이집 (표준편차)	국공립유치원 (표준편차)	사립유치원 (표준편차)	사례수
기본보육료·수업료	98.5(100.1)	115.6(111.2)	77.1(94.0)	164.8(129.8)	1,462
현장학습비	13.6(19.7)	14.7(16.1)	10.8(14.3)	13.6(16.6)	1,179
교재비	14.4(18.1)	19.4(19.2)	13.9(18.9)	24.8(23.8)	1,173
급간식비	18.2(19.6)	26.3(20.0)	23.9(20.7)	32.8(22.9)	1,141
종일반	21.1(27.4)	26.0(33.9)	20.9(28.7)	31.5(41.3)	1,086
차량운행비	6.2(9.8)	6.3(9.6)	4.1(9.4)	9.0(12.5)	1,059
각종 행사비	6.3(9.6)	7.5(10.5)	5.1(7.7)	9.8(26.4)	1,080
월평균 지불비용	159.8(124.7)	191.3(131.4)	140.1(123.1)	257.9(151.1)	1,462

주: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이용은 0원으로 응답한 결과임.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기관종류별 월 기본비용은 국공립유치원이 43,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사립유치원이 163,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유치원 간의 비용이 무려 4배 차이가 발생하였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87,000원, 민간어린이집은 116,000원으로 집계되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이에 국공립·법인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평균 118,000원보다(표 IV-3-1 참조) 비용이 현저히 낮은 기관은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법인어린이집으로 국공립 기관들이 비용부담이 낮았다.

〈표 IV-3-3〉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기관 이용 시 월 기본 비용(기관유형별)

단위: 천원, 명

구분	기관종류별				사레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표준편차)	민간어린이집 (표준편차)	국공립유치원 (표준편차)	사립유치원 (표준편차)	
기본보육료·수업료	27.8(43.4)	35.2(50.0)	4.4(19.8)	66.2(71.9)	1,598
현장학습비	11.2(13.7)	14.3(15.9)	7.4(10.5)	12.8(12.0)	1,295
교재비	14.7(19.5)	20.9(21.0)	7.6(11.5)	25.4(22.4)	1,290
급·간식비	14.5(19.0)	24.5(21.6)	18.2(18.8)	35.9(24.3)	1,266
종일반	22.9(28.4)	25.9(31.7)	11.9(22.2)	31.0(38.3)	1,200
차량운행비	5.4(9.2)	5.7(9.1)	1.5(5.3)	9.2(13.2)	1,182
각종 행사비	6.9(13.7)	7.8(11.2)	2.9(6.2)	9.6(17.1)	1,177
월평균 지불비용	87.4(77.9)	110.6(71.9)	43.0(42.9)	163.1(94.4)	1,605

주: '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월 20만원 제외한 비용임.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이용은 0원으로 응답한 결과임.

2)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및 비용 변화

가) 이용 변화

1,605명에 대해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기관에서의 특별활동(특성화) 이용 실태와 비용을 알아보았다. '5세 누리과정' 시행 전의 이용실태를 보면,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이용했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표 IV-3-4 참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외국어(영어)¹⁴⁾로서 40.0%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미술 35.6%, 음악 29.2%, 체육 26.6%, 한글 23.3%순으로 이용하였다.

이용자 중에서 부모의 선택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은 외국어(영어)가 63.7%로 가장 많았고, 미술 57.6%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부모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의무적으로 이용한 프로그램은 수학

14) 여기서 외국어란 영어라고 해도 무리는 없겠다. 이윤진 외(2010) 「유아 외국어 교육의 실태와 대책」 연구에서 영어교육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경기도 거주 유아들은 '유아기 때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경험한 적이 없다'가 98.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이윤진 외, 2010: 95-96).

66.1%이며 한글 62.9%, 과학 6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4〉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단위: %(명)

구분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이용여부		계	부모선택여부(이용자 중에서)		계
	이용안함	이용함		선택가능	의무이용	
미술	64.4	35.6	100.0(1,462)	57.5	42.5	100.0(520)
음악	70.8	29.2	100.0(1,462)	48.7	51.3	100.0(427)
체육	73.4	26.6	100.0(1,462)	43.7	56.3	100.0(389)
과학	83.2	16.8	100.0(1,462)	38.8	61.2	100.0(246)
수학	81.7	18.3	100.0(1,462)	33.9	66.1	100.0(267)
한글	76.7	23.3	100.0(1,462)	37.1	62.9	100.0(341)
컴퓨터	98.4	1.6	100.0(1,462)	42.9	57.1	100.0(24)
한자	94.4	5.6	100.0(1,462)	43.3	56.7	100.0(82)
외국어	60.0	40.0	100.0(1,462)	63.7	36.3	100.0(585)
기타	94.2	5.8	100.0(1,462)	76.3	23.2	100.0(85)

‘5세 누리과정’ 시행 후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실태를 보면,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이용한다는 응답보다 많았지만, 그 비중은 시행 전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V-3-4참조).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응답도 시행 전에 비해 많이 나온 사실과 견주어 봤을 때, 자녀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증가는 자녀의 연령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외국어(영어)로 45.4%이었고, 시행 전의 이용률 40.0%에 비해 5.4%가 증가하였다. 미술 40.5%(시행 전 35.6%), 음악 32.9%(29.2%), 체육 29.7%(26.6%), 한글 24.7%(23.3%) 순으로 주로 이용하며 시행 전에 비해 이들 모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용자 중에서 부모의 선택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은 외국어(영어)가 68.6%로 가장 많았고, 미술, 음악, 과학, 컴퓨터 등의 프로그램이 부모가 선택가능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부모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한글 60.9%이며 수학 60.7%, 체육 56.2%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5〉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단위: %(명)

구분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이용여부		계	부모선택여부(이용자 중에서)		계
	이용안함	이용함		선택가능	의무이용	
미술	59.5	40.5	100.0(1,605)	60.1	39.9	100.0(650)
음악	67.1	32.9	100.0(1,605)	51.4	48.6	100.0(527)
체육	70.3	29.7	100.0(1,605)	43.8	56.2	100.0(477)
과학	76.3	23.7	100.0(1,605)	50.9	49.1	100.0(380)
수학	78.7	21.3	100.0(1,605)	39.3	60.7	100.0(342)
한글	75.3	24.7	100.0(1,605)	39.1	60.9	100.0(396)
컴퓨터	97.4	2.6	100.0(1,605)	50.8	49.2	100.0(42)
한자	92.3	7.7	100.0(1,605)	43.2	56.8	100.0(123)
외국어	54.6	45.4	100.0(1,605)	68.6	31.4	100.0(729)
기타	91.7	8.3	100.0(1,605)	78.0	22.0	100.0(134)

주: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나) 비용 변화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를 기점으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변화를 알아보았다. ‘5세 누리과정’ 시행 전에는 월평균 지불비용이 41,000원이었는데 ‘5세 누리과정’ 시행 후에는 45,400원으로 4,400원 상승하였다. 프로그램별로는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한자 등의 비용이 상승했고 음악, 체육, 기타가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 많이 이용하는 미술과 외국어는 각각 15,000원에서 15,100원, 23,200원에서 23,300원으로 아주 소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IV-3-6〉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변화

단위: 천원, 명

구분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사례수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미술	15.0	17.5	520	15.1	17.1	650
음악	11.5	13.2	427	10.9	12.7	527
체육	11.2	13.0	389	9.8	12.0	477
과학	10.5	14.6	246	11.4	11.9	380
수학	7.7	11.5	267	10.5	25.5	342
한글	7.2	12.7	341	8.4	11.8	396
컴퓨터	8.9	11.3	24	10.5	12.2	42
한자	7.1	11.0	82	10.4	12.3	123
외국어	23.2	24.2	585	23.3	21.0	729
기타	27.1	19.6	85	24.4	23.3	134

(표 IV-3-6 계속)

구분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월평균지불비용	41.0	39.7	(996)	45.4	41.9	(1,177)

주: 비혜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다음 <표 IV-3-7>은 기관종류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을 분석하였다.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를 각각 제시하였는데(표 IV-3-6 참조) 시행 전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다.

국공립유치원이 31,100원으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월평균 이용 비용이 가장 저렴하였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도 31,400원으로 국공립유치원과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이 39,500원 사립유치원이 50,600원으로 집계되어 사립유치원이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국공립유치원과 가장 비싼 사립유치원의 비용 차이는 19,500원으로 비용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IV-3-7>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비용(기관종류별)

단위: 천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국공립·법인	민간	국공립	사립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미술	10.1(12.9)	15.2(20.1)	9.2(10.9)	19.3(18.6)	520
음악	10.2(15.8)	10.9(11.5)	8.5(10.4)	14.2(14.6)	427
체육	8.9(14.0)	11.3(12.1)	7.8(10.9)	14.8(13.9)	389
과학	6.1(7.6)	9.0(11.6)	7.1(11.1)	14.7(18.0)	246
수학	5.6(9.8)	8.3(12.8)	4.2(7.3)	10.6(12.9)	267
한글	5.9(9.0)	6.5(10.6)	3.4(7.4)	10.4(16.6)	341
컴퓨터	12.6(9.5)	6.8(13.3)	3.0(6.3)	18.3(12.7)	24
한자	2.6(6.3)	7.0(9.2)	7.3(11.1)	8.7(13.2)	82
외국어	18.4(18.3)	21.7(18.4)	18.6(19.5)	28.5(30.4)	585
기타	31.4(25.4)	18.5(13.6)	25.5(13.3)	28.6(19.8)	85
월평균 지불비용	31.4(40.6)	39.5(34.4)	31.1(31.6)	50.6(44.0)	996

주: 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월20만원을 제외한 비용임.

비혜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다음 <표 IV-3-8>은 「5세 누리과정」 시행 후의 기관유형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분석한 표이다.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5세

누리과정」 시행 전에 비해 비용이 상승하였다. 국공립유치원은 31,100원에서 23,700원으로 7,400원으로 감소하였다.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38,500원으로 7,100원 상승했으며, 민간어린이집은 39,500원에서 44,700원으로 5,200원 상승했고, 사립유치원은 50,600원에서 59,300원으로 8,700원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그림 IV-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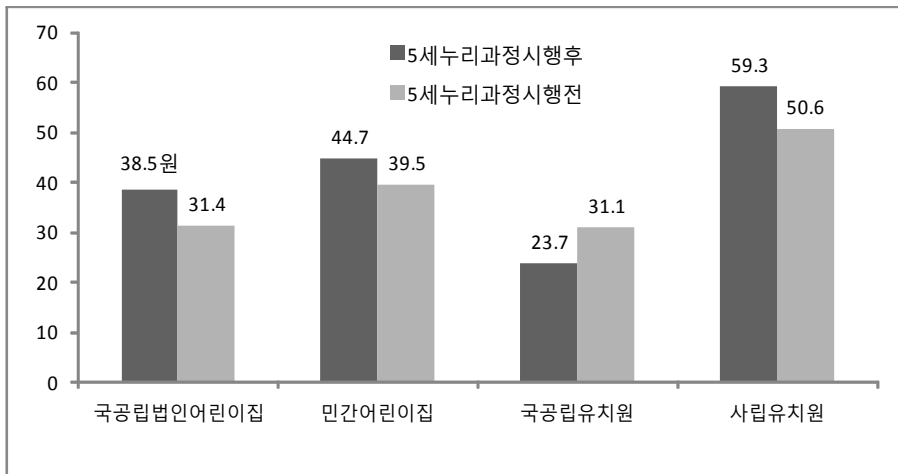
〈표 IV-3-8〉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비용(기관종류별)

단위: 천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국공립·법인	민간	국공립	사립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미술	12.7(14.2)	14.7(17.0)	7.6(11.3)	20.0(18.8)	650
음악	7.6(8.9)	11.7(10.9)	5.0(7.2)	15.3(15.7)	527
체육	7.1(8.6)	10.8(8.2)	4.7(8.2)	14.3(13.5)	477
과학	8.8(10.2)	11.4(11.0)	5.3(9.6)	15.3(12.4)	380
수학	14.4(36.3)	9.3(12.7)	3.1(6.3)	14.4(32.6)	342
한글	7.7(11.1)	9.0(11.0)	3.6(6.9)	11.0(14.0)	396
컴퓨터	14.1(9.0)	8.6(11.1)	4.7(9.0)	16.5(14.8)	42
한자	9.2(11.8)	11.6(10.5)	6.6(10.1)	13.2(14.8)	123
외국어	17.8(14.9)	24.1(20.5)	13.8(14.4)	28.9(23.5)	729
기타	28.8(24.2)	17.9(13.1)	8.3(11.2)	30.6(26.7)	134
월평균지불비용	38.5(36.4)	44.7(35.3)	23.7(27.1)	59.3(48.0)	1,177

주: 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월20만원을 제외한 비용임.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그림 IV-3-2]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비용 변화(기관종류별)

나. 처음 기관 이용 사례

1) 기본 보육료·수업료

올해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143명에게 '5세 누리과정'으로 지원받는 월 20만원을 제외하고 기관에 지불하는 보육료·수업료를 비롯해서 현장학습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방과후 과정), 차량운행비 등의 소요되는 월비용을 알아보았다.

현재 기관을 이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월 평균 95,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항목은 기본 보육료·수업료이며 차량운행비가 가장 적게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불하는 기본 보육료·수업료 31,000원을 제외하면 약 64,000원을 현장학습비, 교재비, 급간식비 등의 기타 항목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관을 다니려면 기본 보육료·수업료 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비용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3-9〉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시 월 기본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기본보육료·수업료	30.7	48.7	0	220.0	142
현장학습비	9.9	15.3	0	75.0	114
교재비	18.5	17.8	0	70.0	115
급간식비	22.0	19.0	0	66.0	123
종일반	19.5	30.4	0	150.0	111
차량운행비	3.2	7.6	0	35.0	110
각종 행사비	6.9	16.3	0	70.0	105
월평균 지불비용	95.0	86.5	0	370.0	143

주: 지불금액은 누리과정 지원비용 월20만원을 제외한 비용임.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¹⁵⁾

이용기관 종류별로 세분화해서 기본 보육료·수업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 유치원이 월평균 지불비용이 약 31,200원으로 가장 저렴하였다. 다음으로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이 111,500원, 민간어린이집 118,300원이며¹⁶⁾ 사립유치원이 12만

- 15) 올해 처음 기관을 이용하는 사례에서 무상이용 사례수는 기본보육료·수업료 86명(60.8%), 현장학습비 58명(50.6%), 교재비 30명(25.7%), 급간식비 40명(32.5%), 종일반 68명(61.4%), 차량운행비 90명(81.7%), 각종 행사비 80명(76.5%)임. 차량운행비, 행사비, 종일반, 기본 보육료·수업료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교재비, 급간식비가 무상 이용 사례가 낮았다.
- 16) 참고로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유형별 월평균 보육비용은 168,000원으로 집계되었다. 만 5세아의 설립별 보육비용은 국공립어린이집은 97,000원, 사립법인 83,000원, 기타

7천원으로 가장 비쌌다. 어린이집은 설립주체별 비용 차이가 크지 않는 것에 비해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의 비용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0〉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시 월 기본비용(기관종류별)

단위: 천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국공립·법인	민간	국공립	사립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기본보육료·수업료	15.8(24.6)	52.6(55.7)	4.1(12.0)	44.3(57.2)	142
현장학습비	17.4(16.0)	16.0(25.0)	3.8(5.9)	7.8(9.5)	114
교재비	23.2(18.3)	20.0(17.4)	11.8(12.8)	20.4(19.8)	115
급·간식비	12.1(20.0)	16.8(16.8)	14.0(13.9)	32.4(17.6)	123
종일반	35.4(41.6)	8.3(14.8)	7.8(20.0)	29.2(33.7)	111
차량운행비	6.9(2.6)	4.2(8.0)	0	5.6(9.8)	110
각종 행사비	14.9(28.1)	12.0(19.5)	0	5.5(10.6)	105
월평균 지불비용	111.5(98.8)	118.3(80.8)	31.2(21.7)	126.6(92.1)	143

주: 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월20만원을 제외한 비용임.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¹⁷⁾

2)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비용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 부모선택 가능 여부, 월 평균 비용 등을 알아본 결과, 모든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에서 ‘이용함’보다는 ‘이용하지 않음’이 많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미술(49.4%), 음악(41.9%), 외국어(40.8%), 체육(39.1%), 한글(29.6%) 순으로 나타나서, 음·미·체와 언어 중심의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 대상으로 선택가능 여부를 알아본 결과, 미술과 외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부모선택이 아니라, 기관에서 의무 이용을 요구해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의무 이용이 많은 컴퓨터, 과학, 수학 프로그램이 대개 선택이 가능한 프로그램(외국어, 미술 등) 보다 이용 비용이 저렴했다. 흥미로운 점은 학부모는 비용이 비싸고 선택 가능한 외국어와 미술 프로그램의 이용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법인 115,000천원, 민간 173,00원으로 나왔다(서문희 외, 2009: 261).

17) 기관유형별 무상이용 사례수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 11명(68.8%), 민간어린이집 9명(30.0%), 국공립유치원 37명(88.1%), 민간어린이집 29명(52.7%)임.

〈표 IV-3-11〉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단위: %(명)

구분	이용여부		계	부모선택여부(이용자중)		계
	이용안함	이용함		선택가능	의무 이용	
미술	50.6	49.4	100.0(143)	55.0	45.0	100.0(70)
음악	58.1	41.9	100.0(143)	47.0	53.0	100.0(60)
체육	60.9	39.1	100.0(143)	36.0	64.0	100.0(56)
과학	73.8	26.2	100.0(143)	43.6	56.4	100.0(37)
수학	75.4	24.6	100.0(143)	40.6	59.4	100.0(35)
한글	70.4	29.6	100.0(143)	38.8	61.2	100.0(42)
컴퓨터	94.3	5.7	100.0(143)	24.9	75.1	100.0(8)
한자	87.6	12.4	100.0(143)	40.6	59.4	100.0(18)
외국어	59.2	40.8	100.0(143)	65.6	34.4	100.0(58)
기타	92.5	7.5	100.0(143)	58.3	41.7	100.0(11)

처음 기관에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는 122명이며 월 평균 비용은 35,600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기본 보육료·수업료 3만1천원보다 비싼 금액이다. 비용이 가장 비싼 프로그램은 외국어(영어)로 1만6천원이며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7천원이다.

〈표 IV-3-12〉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미술	11.0	12.7	0	60.0	70
음악	9.0	11.1	0	40.0	60
체육	10.1	12.9	0	50.0	56
과학	8.2	12.6	0	40.0	37
수학	10.5	14.1	0	40.0	35
한글	8.6	10.5	0	40.0	42
컴퓨터	6.8	9.6	0	20.0	8
한자	13.5	10.5	0	30.0	18
외국어	16.2	12.5	0	60.0	58
기타	18.1	22.1	0	80.0	11
월평균 지불비용	35.6	31.3	0	140.0	122

주: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처음 이용 기관에서 특성화(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기관종류별로 분석해 보았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 48,300원으로 비용이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 44,000원, 민간어린이집 31,500원, 국공립유치원이 20,400원으로 집계되었다. 국공

립·법인어린이집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이 국공립유치원의 2배 이상 높게 나온 점이 눈에 띄지만, 사례수가 많지 않아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IV-3-13〉 올해 처음 기관 이용 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기관종류별)
단위: 천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국공립·법인	민간	국공립	사립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미술	20.9(18.3)	11.1(11.0)	5.0(8.4)	13.0(12.1)	70
음악	6.9(6.2)	13.6(12.6)	4.3(6.8)	11.9(13.1)	60
체육	7.2(6.4)	4.9(7.4)	4.7(9.9)	15.7(14.7)	56
과학	20.2(23.0)	7.7(10.3)	3.3(8.2)	10.5(11.7)	37
수학	22.2(21.1)	10.1(1.6)	4.5(9.5)	10.0(12.2)	35
한글	13.0(16.9)	13.2(15.1)	7.3(9.6)	6.8(6.6)	42
컴퓨터	20.0(0.0)	20.0	0	7.5(10.6)	8
한자	19.0(11.5)	-	7.1(8.2)	12.8(9.1)	18
외국어	10.4(7.1)	11.7(5.8)	13.7(12.6)	20.6(13.9)	58
기타	10.4(0.6)	11.1(7.7)	0	40.0(34.5)	11
월평균 지불비용	48.3(31.5)	31.5(21.3)	20.4(27.1)	44.0(32.9)	122

주: 비례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다. 2011년과 동일 기관 이용 사례

2011년과 2012년도에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1,079사례 대상으로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의 기본 보육료·수업료 등의 기본비용과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이용실태 및 비용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1) 기본비용

기본 보육료·수업료 외에 현장학습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차량운행비, 각종 행사비 등 기관을 다니려면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 2011년과 2012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2011년 대비 가장 차이를 보인 항목은 기본 보육료·수업료로서 2012년도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월 20만원 지원을 받은 결과라 하겠다. 작년에는 월 기본 보육료·수업료로 약 117,300원을 지불했다면, 올해는 78,300원이 줄어든 39,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도 작년 대비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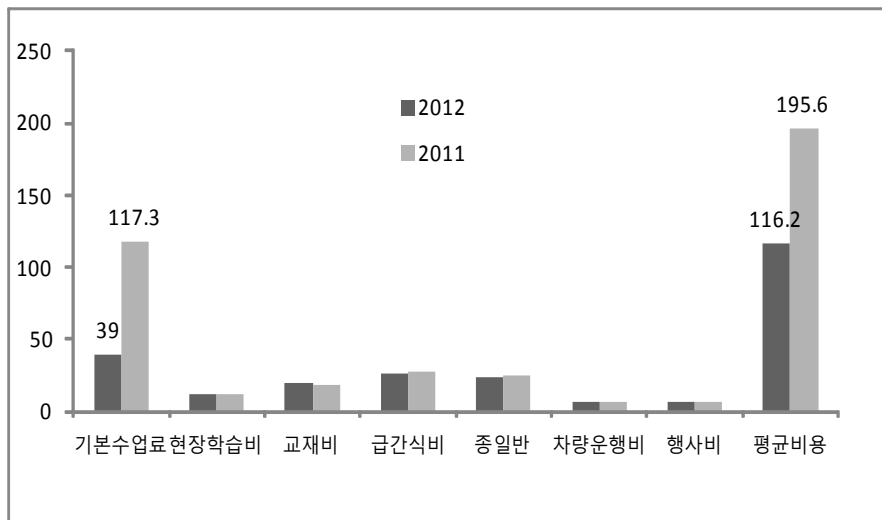
은 수치지지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일 기관 이용 시 2011년도에는 195,600원이 소요됐다면, 2012년도에는 116,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월 20만원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월 79,400원이 절약되었다(IV-3-14 참조).

〈표 IV-3-14〉 작년과 동일 기관 이용 시 2011년·2012년 월 기본비용 변화

단위: 천원, 명

구분	2011년			2012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기본보육료·수업료	117.3	120.5	1,079	39.0	58.4	1,079
현장학습비	12.6	17.1	895	11.5	13.3	892
교재비	18.2	19.7	908	19.4	21.8	914
급간식비	27.8	22.2	874	27.0	24.3	871
종일반	25.0	33.2	839	24.2	32.2	850
차량운행비	6.5	11.0	813	6.4	11.0	820
각종 행사비	7.4	19.7	823	7.2	14.1	819
월평균 지불비용	195.6	148.2	1,079	116.2	89.9	1,079

주: 2012년도는 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월20만원을 제외한 비용임.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그림 IV-3-3] 작년과 동일한 기관에서의 2011년·2012년 수업료 변화

작년과 동일한 기관을 다니는 경우 기본비용에 대해 기관종류별로 살펴보았

다. 2011년에 평균 월 기본비용인 195,600원(표 IV-3-14 참조)보다 비용이 높은 기관은 사립유치원으로서 269,600원으로 보고되었다. 전체 평균보다 74,000원을 상회하는 높은 비용이라 하겠다. 민간어린이집은 평균보다 낮기는 하지만, 사립유치원 다음으로 비용이 높게 나왔으며 국공립·법인어린이집 146,900원, 국공립유치원 98,100원 순으로 나타났다(표 IV-3-15 참조).

〈표 IV-3-15〉 작년과 동일 기관에서의 2011년 월 기본비용(기관종류별)

단위: 천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국공립·법인	민간	국공립	사립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기본보육료·수업료	89.1(96.4)	111.1(109.3)	44.3(72.8)	168.6(132.2)	1,079
현장학습비	12.9(20.2)	14.1(16.5)	8.3(12.3)	13.6(18.2)	895
교재비	13.1(16.3)	17.7(17.5)	8.4(12.0)	25.4(22.6)	908
급간식비	17.5(19.2)	25.9(20.3)	23.0(20.9)	35.4(22.8)	874
종일반	20.4(26.3)	25.1(28.9)	15.3(23.8)	32.0(40.7)	839
차량운행비	5.9(9.6)	6.0(9.5)	2.6(7.5)	9.0(13.0)	813
각종 행사비	5.9(9.9)	6.8(9.8)	4.0(6.3)	10.2(29.6)	823
월평균 지불비용	146.9(116.8)	185.6(130.5)	98.1(96.9)	269.6(155.0)	1,079

주: 비례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2012년도에 들어와서 동일기관에서의 월 기본비용을 보면, 기관종류별에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서 작년보다 비용이 감소되었다(표 IV-3-16 참조). 가장 비용이 저렴한 기관은 국공립유치원으로 51,600원이며 가장 비싼 기관은 사립유치원으로 167,800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기본 보육료·수업료의 낙폭이 모든 기관에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항목들을 보면, 2011년에 비해 비용이 감소한 항목은 현장학습비와 급간식비 정도이며 교재비, 종일반비, 차량운영비, 각종 행사비 등을 증가하였다.

〈표 IV-3-16〉 작년과 동일 기관에서의 2012년 월 기본비용(기관종류별)

단위: 천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국공립·법인	민간	국공립	사립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기본보육료·수업료	25.7(39.2)	30.8(45.9)	3.8(12.5)	67.7(71.9)	1,079
현장학습비	10.0(13.5)	13.7(15.3)	7.2(10.1)	12.9(12.5)	892
교재비	13.2(18.4)	20.0(19.9)	7.9(11.0)	27.0(24.1)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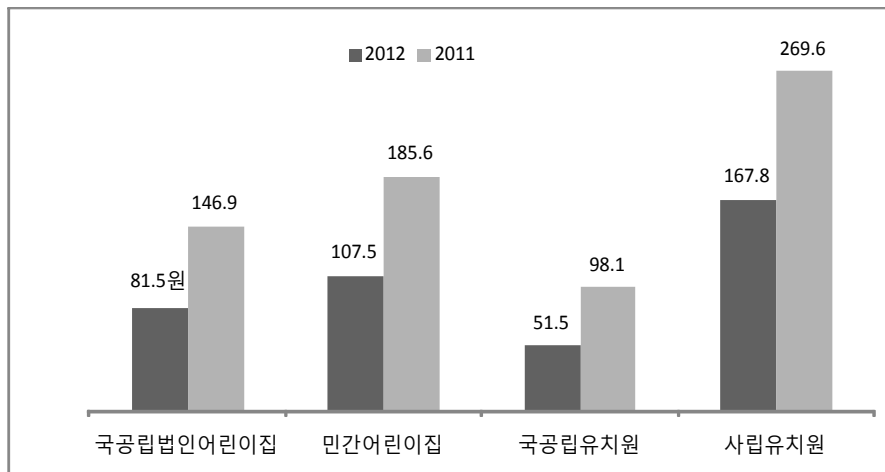
(표 IV-3-16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국공립·법인	민간	국공립	사립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급간식비	14.4(18.6)	25.0(21.7)	19.4(19.9)	37.0(26.1)	871
종일반	21.7(26.8)	27.2(32.1)	14.6(24.5)	28.2(36.5)	850
차량운행비	6.4(10.0)	5.7(9.0)	2.1(6.4)	9.0(13.5)	820
각종 행사비	6.0(10.5)	7.1(10.0)	3.4(5.9)	9.8(19.4)	819
월평균 지불비용	81.5(70.5)	107.5(72.3)	51.6(4.7)	167.8(95.7)	1,079

주: 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월20만원을 제외한 비용임.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동일기관에서의 2012년도의 월 평균 기본비용의 변화를 보면, 사립유치원이 167,800원으로 여전히 가장 높지만 2011년에 비해 101,800원이 감소하여 낙폭이 컸다.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기관으로는 민간어린이집 78,100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65,400원, 국공립유치원 46,600원 순으로 보고되었다. 월 기본비용이 저렴한 기관일수록 작년 대비 비용 감소폭이 적었다(그림 IV-3-4 참조).



[그림 IV-3-4] 작년과 동일한 기관에서의 2011년·2012년 수업료 변화(기관종류별)

2)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비용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이용 시 2011년과 2012년의 이용 실태 및 비용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 경우는 해당 자녀가 2011년에는 만 4세였다가 2012년에

만 5세로 연령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작년 대비 특별활동의 이용 및 비용 변화는 '5세 누리과정'시행으로 인한 변화보다는 연령변화가 더 주요 요인일 수도 있다. 앞에서 줄곧 드러났듯이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초등학교 준비'가 기관 이용의 주요 이유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음”이 2011년과 2012년 모두 “이용함”보다 대체로 많았으나, 2012년에 “이용함”이 조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외국어, 미술, 음악, 체육 순으로, 순서는 동일한 가운데 이용율만 2012년에 변화가 있었다. 한자를 제외한 모든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이용율이 2012년에 상승했으며 이 중 과학 7.0%, 외국어 6.6%로 2011년 대비 이용율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그림 IV-3-4 참조).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의 선택 여부를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았다.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부모 선택가능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으나,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이 여전히 많았다. 학부모의 선택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외국어(영어)이며, 이와는 반대로 학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한글, 수학이다. 비용이 비싼 외국어나 미술과 같은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선택으로 운영하고, 비용이 저렴한 한글이나 수학은 의무 이용하도록 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처음 기관을 이용한 사례와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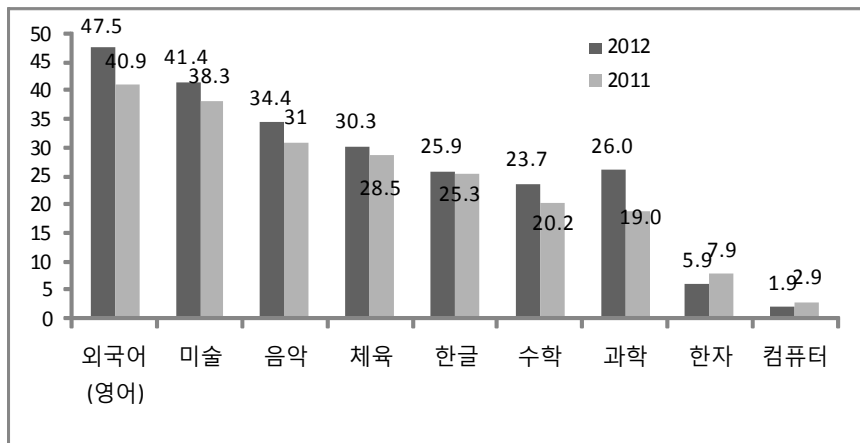
〈표 IV-3-17〉 작년과 동일기관에서의 2011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단위: %(명)

구분	2011년					
	이용여부		계	부모선택여부(이용자 중)		계
	이용안함	이용함		선택가능	의무이용	
미술	61.7	38.3	100.0(1,079)	57.4	42.6	100.0(413)
음악	69.0	31.0	100.0(1,079)	46.2	53.8	100.0(335)
체육	71.5	28.5	100.0(1,079)	42.1	57.9	100.0(308)
과학	81.0	19.0	100.0(1,079)	39.7	60.3	100.0(205)
수학	79.8	20.2	100.0(1,079)	32.5	67.5	100.0(218)
한글	74.7	25.3	100.0(1,079)	36.6	63.4	100.0(273)
컴퓨터	98.1	1.9	100.0(1,079)	39.5	60.5	100.0(21)
한자	94.1	5.9	100.0(1,079)	43.4	56.6	100.0(64)
외국어	59.1	40.9	100.0(1,079)	64.3	35.7	100.0(442)
기타	94.5	5.5	100.0(1,079)	75.2	24.8	100.0(59)

〈표 IV-3-18〉 작년과 동일기관에서의 2012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단위: %(명)

구분	2012년					
	이용여부		계	부모선택여부(이용자 중)		계
	이용안함	이용함		선택가능	의무이용	
미술	58.6	41.4	100.0(1,079)	58.2	41.8	100.0(447)
음악	65.6	34.4	100.0(1,079)	51.1	48.9	100.0(371)
체육	69.7	30.3	100.0(1,079)	42.6	57.4	100.0(327)
과학	74.0	26.0	100.0(1,079)	47.5	52.5	100.0(280)
수학	76.3	23.7	100.0(1,079)	36.8	63.2	100.0(256)
한글	74.1	25.9	100.0(1,079)	35.6	64.4	100.0(280)
컴퓨터	97.1	2.9	100.0(1,079)	52.9	47.1	100.0(31)
한자	92.1	7.9	100.0(1,079)	42.8	57.2	100.0(85)
외국어	52.5	47.5	100.0(1,079)	68.4	31.6	100.0(512)
기타	91.8	8.2	100.0(1,079)	81.3	18.7	100.0(88)



[그림 IV-3-5] 동일기관에서 2011년·2012년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률 변화

다음은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2011년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은 월 평균 40,300원의 768명이 이용했다면, 2012년에는 월 448,000원의 827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과 이용하는 유아수 모두 상승하였다. 2011년에 비해 비용이 대부분 상승하였다(음악,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한자, 외국어). 외국어 프로그램이 24,4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한글이 8,300원으로 가장 저렴하였다(기타 제외).

〈표 IV-3-19〉 작년과 동일기관 이용 시 2011년·2012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변화

단위: 천원, 명

구분	2011년			2012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미술	15.3	18.4	413	15.2	17.7	447
음악	10.5	12.2	335	11.2	13.1	371
체육	10.3	12.2	308	9.9	12.0	327
과학	10.3	14.9	205	11.2	11.4	280
수학	7.0	10.7	218	9.3	19.0	256
한글	6.8	12.5	273	8.3	12.4	280
컴퓨터	8.1	11.2	21	10.9	12.5	31
한자	6.7	10.5	64	10.6	12.9	85
외국어	23.1	23.4	442	24.4	21.7	512
기타	27.8	21.9	59	23.2	24.1	88
월평균지불비용	40.3	39.1	768	45.8	41.7	827

주: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동일기관에서 작년과 올해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의 변화를 살펴본다. 기관유형을 불문하고 작년 대비 올해 비용이 상승하였는데, 어린이집은 35,600원에서 42,400원으로 6,800원이 증가했으며 유치원은 44,100원에서 48,500원으로 4,400원이 증가했다. 가장 비싼 프로그램은 외국어로서, 유치원은 비용 변화가 없지만, 어린이집은 19,800원에서 22,600원으로 2,800원이 증가했다. 대개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이 저렴한 가운데, 2012년도에 수학, 컴퓨터 프로그램이 유치원보다 비용이 비싼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외국어, 미술, 음악, 체육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표 IV-3-20〉 작년과 동일기관 이용 시 2011년·2012년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변화(기관유형별)

단위: 천원, 명

구분	2011년			2012년		
	어린이집		사례수	유치원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미술	13.9(18.6)	16.1(18.2)	413	14.0(16.4)	16.0(18.5)	447
음악	10.1(10.1)	10.9(13.8)	335	10.8(10.5)	11.6(14.8)	371
체육	9.7(11.2)	10.9(13.0)	308	9.4(11.3)	10.3(12.6)	327

(표 IV-3-20 계속)

구분	2011년			2012년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과학	7.5(10.1)	12.0(16.9)	205	10.1(10.3)	12.0(12.2)	280
수학	6.5(10.9)	7.3(10.5)	218	10.6(25.6)	8.2(10.9)	256
한글	5.8(9.2)	7.6(14.5)	273	7.6(10.0)	8.8(13.9)	280
컴퓨터	10.7(11.6)	6.8(11.2)	21	12.3(9.2)	10.5(13.4)	31
한자	5.6(8.5)	7.3(11.7)	64	9.3(10.5)	11.8(14.8)	85
외국어	19.8(17.7)	26.1(27.2)	442	22.6(19.5)	26.1(23.4)	512
기타	26.6(23.0)	28.6(21.4)	59	24.4(20.3)	22.2(27.0)	88
월평균 지불비용	35.6(33.8)	44.1(42.5)	768	42.4(37.1)	48.5(45.0)	827

주: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기본 보육료·수업료 등 기본비용은작년에 비해 절감되었지만,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이 증가하여 학부모의 비용절약에 대한 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면담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월 20만원 지원을 받아서 비용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으나, 이런 저러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비용절감의 체감은 1~2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제가 아는 다른 지역의 어떤 엄마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었는데 (올해)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고. (누리과정으로) 20만원을 지원받으면 당연히 내가 내는 돈이 줄어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 비용으로 차량운행비 무슨 활동비으로 계속 계속 돈이 늘어나니깐 솔직히 내가 (20만원) 지원을 받았다 라는 그런 만족감이 없는 거죠('5세 누리과정' 이용 사례 16).

이번에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데.....오히려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비용이 좀 커지더라고요. 1-2만원 차이예요. 오히려 7세반(만 5세아반) 애들 지원이 확대되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이집은 1-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던데요? 그리고 6세에서 7세로 가면은 원비자체가 틀려요. 더 적어요. 근대 그것도 1-2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던데.....이것저것 뺏으니깐...('5세 누리과정' 이용 사례 17).

3) 이용 기관에서의 교육·보육과정 변화 및 만족도

작년과 동일한 기관을 이용한 1,079사례는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의 교육·보육과정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이용 기관에서의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한 교육·보육과정의 변화를 학부모

가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 지 질문한 결과, 47.6%가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가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작년에 비해 변화가 있다(조금 있다와 크게 있다 합침)는 21.7%에 그쳤으며, 내용 변화가 있기는 하나 '5세 누리과정'이라기 보다는 만 4세에서 만 5세로 올라가면서 나타난 변화인 것 같다고 15.8%가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14.9%가 나왔다.

모연령이 많을수록 자녀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교육·보육내용의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관 이용 경험이 많은 학부모일수록 교육·보육내용의 변화를 잘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읍면과 중소도시 거주 가구보다는 대도시 거주 가구에서 교육·보육내용의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IV-3-21〉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교육·보육 내용변화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작년과 비교해서 교육·보육 내용변화는 거의 없다	작년과 비교해서 교육·보육 내용변화가 조금 있다	작년과 비교해서 교육·보육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만 5세로 올라가면서 내용이 변화(심화)된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47.6	19.3	24	15.8	14.9	1000(1079)
모연령						
35세 미만	53.9	13.1	1.5	17.2	14.3	1000(358)
35~40세 미만	45.3	21.8	2.7	15.2	15.0	1000(561)
40세 이상	41.7	25.3	3.0	14.6	15.5	1000(158)
모 부재	27.4	-	-	31.9	40.7	1000(3)
	$\chi^2(df) = 21.412(12)^*$					
출생순위						
첫째	50.8	16.8	1.1	16.7	14.6	1000(605)
둘째	43.4	23.5	3.9	15.7	13.5	1000(416)
셋째 이상	44.0	16.1	5.1	7.5	27.3	1000(59)
	$\chi^2(df) = 30.071(8)^{***}$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54.3	15.7	2.8	15.8	11.3	1000(386)
전문대졸	41.4	22.7	2.4	15.6	18.0	1000(332)
4년제 대졸	46.6	20.4	1.7	16.1	15.2	1000(344)
대학원 이상	37.9	19.7	6.4	10.3	25.7	1000(15)
모 부재	27.4	-	-	31.9	40.7	1000(3)
	na					

(표 IV-3-21 계속)

구분	작년과 비교해서 교육·보육 내용변화는 거의 없다	작년과 비교해서 교육·보육 내용변화가 조금 있다	작년과 비교해서 교육·보육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만 5세로 올라가면서 내용이 변화(심화)된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계
지역규모						
대도시	426	243	12	175	144	100.0(426)
중소도시	51.2	16.5	3.2	15.8	13.2	100.0(420)
읍면	50.1	15.3	3.0	12.7	18.8	100.0(234)
$\chi^2(df) = 30.071(8)^{***}$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5$, *** $p < .001$

교육·보육과정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234명 학부모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 ‘초등학교 연계 과정이 더 많아졌다’ ‘기본생활 습관이 좋아졌다’ ‘프로그램이 다양해 졌다’ ‘인성교육이 강화되었다’ ‘학습량이 많아졌다’ 등을 언급하였다.

변화된 교육·보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0점으로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만족한다 76.3%). 교육·보육 내용 변화가 있다고 인정한 연령이 많은 어머니 집단과 자녀 출생순위에서 불만족하다(매우 불만족 포함)는 응답이 높게 나온 점이 흥미롭다. 변화를 인정한 집단에서 그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종류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이 ‘불만족’이 9.6%로 높게 나왔으며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매우 만족’이 한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표 IV-3-22〉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교육·보육 내용 변화 만족도

구분	단위: %(명), 점					계	평균 (표준편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5	21	19.0	66.4	9.9	100.0(234)	3.80(0.75)
모연령							
35세 미만	-	1.9	23.3	62.2	12.5	100.0(52)	3.85(0.65)
35~40세 미만	2.9	1.5	16.5	69.7	9.4	100.0(137)	3.81(0.74)
40세 이상	4.5	4.5	21.6	60.8	8.6	100.0(45)	3.64(0.88)
na							
출생순위							
첫째	0.9	2.8	16.6	68.9	10.8	100.0(108)	3.86(0.67)
둘째	3.5	1.8	22.5	63.8	8.5	100.0(114)	3.72(0.79)
셋째 이상	8.2	-	8.0	68.0	15.8	100.0(12)	3.83(1.01)
na							

(표 IV-3-22 계속)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표준편차)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안어린이집	25	-	203	771	-	100.0(38)	3.72(0.60)
민간 어린이집	-	3.0	22.5	61.9	126	100.0(66)	3.84(0.67)
국공립 유치원	9.6	-	3.3	71.1	15.9	100.0(31)	3.84(1.03)
사립 유치원	20	3.1	21.2	63.7	10.1	100.0(99)	3.77(0.75)
$\chi^2(df) = 21.137(12)^*$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5.6	-	14.2	72.1	8.2	100.0(72)	3.77(0.83)
전문대졸	2.4	1.2	24.3	61.5	10.6	100.0(83)	3.77(0.75)
4년대졸	-	5.3	18.8	65.9	10.0	100.0(76)	3.81(0.69)
대학원 이상	-	-	-	75.3	24.7	100.0(4)	4.25(0.50)
na							
모 취업여부							
취업	2.9	1.0	16.8	63.7	15.6	100.0(104)	3.88(0.78)
미취업	2.3	3.1	20.8	68.5	5.3	100.0(130)	3.71(0.72)
na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5$

라. 올해 기관 변경 사례

1) 기본비용

올해 기관을 변경한 383사례의 변경 전과 후의 비용 변화를 알아보았다.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직전 이용했던 기관의 기본 수업료를 포함해서 월 평균 비용은 217,000원이었는데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월 평균 비용은 106,000원으로 집계되었다. '5세 누리과정'으로 월 20만원 지원으로 111,000원이 절감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기관을 옮기지 않을 때의 절감 비용인 79,400원보다 많은 비용이다. 즉, 올해 기관을 옮긴 사례가 그렇지 않은 사례보다 월 31,600원의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하겠다.

가장 많이 절감된 항목은 기본 보육료·수업료로 141,000원에서 41,000원으로 100,000원이 감소하였다. 급간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도 이전 기관에 지불했던 금액보다 감소되었다.

〈표 IV-3-23〉 기관 변경 전·후 월 기본비용 변화

단위: 천원, 명

구분	변경 전(2011년)		사례수	변경 후(2012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본보육료·수업료	141.0	114.2	383	41.8	66.4	378
현장학습비	15.0	13.6	284	12.5	11.9	288
교재비	24.4	25.8	265	16.8	18.4	261
급간식비	25.5	20.7	266	26.0	21.9	272
종일반	30.2	41.6	247	25.3	36.3	239
차량운행비	7.9	11.0	246	6.5	11.0	252
각종 행사비	8.4	11.8	256	7.3	10.1	253
월평균 지불비용	217.0	135.1	383	105.5	92.0	383

주: 2012년 비용은 5세 누리과정 월 20만원을 제외한 비용임.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기관유형별로 보면¹⁸⁾ 변경 전의 어린이집의 월평균 지불비용이 23만2천원으로 유치원 21만3천원보다 비쌌다. 그리고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비용이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은 차량운행비와 급간식비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비용이 낮았다. 유치원의 비용이 어린이집보다 낮은 이유는 유치원 이용 유아 중 국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가 48%를 차지하기 때문에(383명 중 국공립 유치원 이용 147명, 사립유치원 159명) 전체 평균 비용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IV-3-24〉 변경 전·후 기관에서의 월 기본비용 변화(기관유형별)

단위: 천원, 명

구분	변경 전(2011년)			변경 후(2012년)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기본보육료·수업료	148.6(114.6)	139.1(114.1)	383	51.5(64.9)	39.3(66.7)	378
현장학습비	18.9(13.0)	14.1(13.6)	284	16.3(11.8)	11.6(11.7)	288
교재비	29.5(25.6)	23.1(25.8)	265	25.5(22.6)	14.6(16.5)	261
급간식비	26.7(19.8)	25.3(20.9)	266	23.4(22.4)	26.5(21.8)	272
종일반	30.7(52.1)	30.1(38.8)	237	26.2(31.3)	25.1(37.5)	239
차량운행비	8.4(10.0)	7.8(11.2)	246	5.7(9.9)	6.7(11.2)	252
각종 행사비	11.4(12.1)	7.7(11.6)	256	8.3(10.3)	7.1(10.1)	253
월평균 지불비용	232.2(135.6)	213.2(134.9)	383	120.8(76.7)	101.7(96.1)	383

주: 변경후는 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월20만원을 제외한 비용임.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18) 기관 변경 사례의 경우, 변경 전의 유아대상 학원이 포함되었으므로 설립주체별에 따른 기관 종류별로 세분화하지 않았다.

2)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비용

변경 전·후 이용기관에서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와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체로 변경 전보다 변경 후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처음 기관 이용 사례와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와 동일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학부모의 선택권은 대체적으로 이전 기관보다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용’이 여전히 많았다.

다음은 올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사립유치원으로 옮긴 사례로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서 월 1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한다고 진술하였다.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외에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등을 포함한 월 18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했다. 5세 누리과정으로 20만원 지원을 받지만, 월 28만원이 기타 부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지금 유치원 보내면서 20만원 제하고 월 최소 18만원예요. 거기에 (기타 여러 항목으로) 붙이는 것은 제가 안한다고 해도 안할 수가 없는 것들이예요. 저는 (특별활동) 안하고 싶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10만원은 내야합니다. 여기에 (급간)식비 해가지고 해서 최소예요. 방과 후 아무것도 안하고 18만원을 내야 해요. 165,000원……정확히……제가 차량(운행비)를 하기 때문에……차량(운행비까지) 포함하면 18만원이에요(‘5세 누리과정’이용 사례 14).

외국어처럼 비용이 비싼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선택으로, 비용이 저렴한 프로그램(체육, 한글)은 의무 이용으로 비용이 가장 비싼 외국어를 학부모들은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다. 앞서 사례들(처음 기관 이용 사례,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과 비슷하게 외국어 프로그램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미술, 음악, 체육, 한글 순으로 나타났다(표 IV-3-25, 표 IV-3-26 참조).

〈표 IV-3-25〉 변경 전 기관에서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실태

단위: %(명)

구분	변경 전 기관					
	이용여부			부모선택여부(이용자 중)		
	이용안함	이용함	계	선택가능	의무이용	계
미술	71.9	28.1	100.0(383)	57.6	42.4	100.0(108)
음악	75.9	24.1	100.0(383)	57.7	42.3	100.0(92)
체육	78.8	21.2	100.0(383)	49.7	50.3	100.0(81)
과학	89.3	10.7	100.0(383)	34.2	65.8	100.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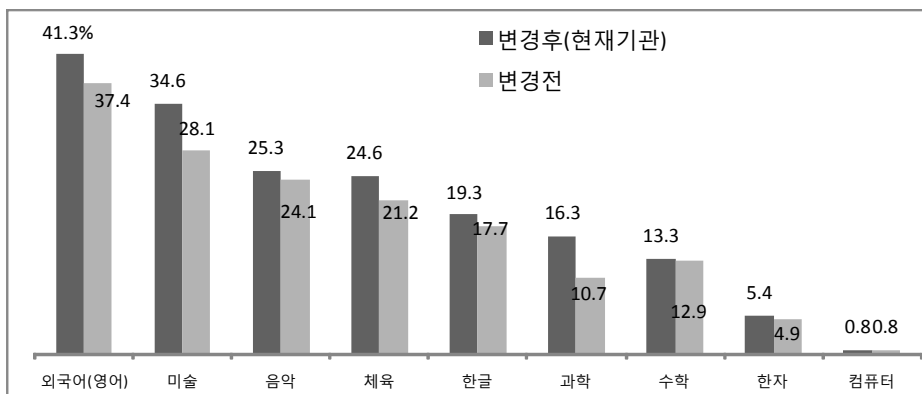
(표 IV-3-25 계속)

구분	변경 전 기관					
	이용여부		계	부모선택여부(이용자 중)		계
	이용안함	이용함		선택가능	의무이용	
수학	87.1	12.9	100.0(383)	39.8	60.2	100.0(49)
한글	82.3	17.7	100.0(383)	39.1	60.9	100.0(68)
컴퓨터	99.2	0.8	100.0(383)	66.2	33.8	100.0(3)
한자	95.1	4.9	100.0(383)	42.9	57.1	100.0(19)
외국어	62.6	37.4	100.0(383)	61.8	38.2	100.0(143)
기타	93.4	6.6	100.0(383)	80.5	19.5	100.0(25)

〈표 IV-3-26〉 변경 후 기관에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실태

단위: %(명)

구분	변경 후 기관					
	이용여부		계	부모선택여부(이용자 중)		계
	이용안함	이용함		선택가능	의무이용	
미술	65.4	34.6	100.0(383)	69.3	30.7	100.0(133)
음악	74.7	25.3	100.0(383)	55.0	45.0	100.0(97)
체육	75.4	24.6	100.0(383)	52.4	47.6	100.0(94)
과학	83.7	16.3	100.0(383)	70.6	29.4	100.0(63)
수학	86.7	13.3	100.0(383)	50.6	49.4	100.0(51)
한글	80.7	19.3	100.0(383)	52.5	47.5	100.0(74)
컴퓨터	99.2	0.8	100.0(383)	100.0	-	100.0(3)
한자	94.6	5.4	100.0(383)	47.1	52.9	100.0(21)
외국어	58.7	41.3	100.0(383)	70.2	29.8	100.0(158)
기타	91.0	9.0	100.0(383)	75.5	24.5	100.0(35)



[그림 IV-3-6] 기관 변경 전·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변화

변경 전·후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변화를 보면, 변경 전 기관에서는 43,400원이었다면, 변경 후 기관에서는 49,300원으로 6,000원이 상승하였다. 기본 보육료·수업료가 111,000원이 감소되었지만,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이용 비용이 적은 금액이나마 상승함으로서 학부모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고찰한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와 동일하다. 프로그램별로 비용을 보면, 변경 전·후와 상관없이, 외국어 프로그램의 비용이 가장 비쌌고, 한글, 한자 프로그램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이 비싼 프로그램이 학부모의 선택권이 크고, 저렴한 프로그램이 의무 이용율이 높다는 점도 앞서 고찰한 내용과 동일하다.

〈표 IV-3-27〉 기관 변경 전·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변화

단위: 천원, 명

구분	변경 전		사례수	변경 후(현재 기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미술	14.1	13.3	108	16.8	16.6	133
음악	14.9	15.9	92	10.5	11.9	97
체육	14.6	15.5	81	9.4	11.3	94
과학	11.6	12.9	41	14.1	13.0	63
수학	10.9	14.4	49	16.8	49.1	51
한글	8.5	13.6	68	8.7	10.5	74
컴퓨터	14.8	12.8	3	16.8	17.6	3
한자	8.6	12.9	19	7.1	11.0	21
외국어	23.5	26.4	143	22.3	20.5	158
기타	25.6	13.3	25	29.2	21.1	35
월평균지불비용	43.4	41.6	228	49.3	46.8	228

주: 비 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변경 전·후 기관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변화를 기관유형별로 살펴 보았다. 변경 전의 어린이집이 43,800원, 유치원이 43,300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변경 후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45,300원이지만, 유치원은 50,500원으로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변경 전·후 기본 보육료·수업료에서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비용이 높았는데,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이용 비용에서는 유치원이 조금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외국어의 이용 비용이 높았다.

〈표 IV-3-28〉 기관 변경 전·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변화(기관유형별)
단위: 천원, 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어린이집	유치원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미술	9.4(13.2)	15.4(13.1)	108	12.4(14.1)	18.1(17.1)	133
음악	14.8(24.6)	24.9(11.9)	92	7.3(9.4)	11.6(12.5)	97
체육	15.7(20.5)	14.3(13.4)	81	10.7(12.0)	9.0(11.0)	94
과학	11.4(12.2)	11.6(13.2)	41	10.6(9.9)	15.0(13.6)	63
수학	13.2(16.1)	10.1(13.9)	49	11.3(14.0)	18.8(57.1)	51
한글	9.0(14.3)	8.3(13.5)	68	11.3(13.2)	7.5(8.9)	74
컴퓨터	0.0	22.0(2.8)	3	0.0	25.0(14.1)	3
한자	0.0	9.4(13.2)	19	10.0(12.6)	6.5(11.0)	21
외국어	27.1(22.1)	22.5(27.5)	143	23.6(18.4)	21.9(21.1)	158
기타	19.5(11.8)	26.9(13.5)	25	19.8(14.8)	31.9(22.0)	35
월평균 지불비용	43.8(53.0)	43.3(37.8)	228	45.3(30.9)	50.5(50.6)	228

주: 비해당은 무응답,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4. 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 홍보 및 반영 정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97.1%가 실시했다고 응답하였다(실시하지 않음 2.1%: 표 IV-4-1 참조). 실시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48.1%가 원아모집 설명회 때 실시하였고 그 외에 입학식(31.0%), 부모교육(30.3%), 부모상담(27.6%), 부모교육책자 등 관련안내문을 통해서(25.8%)인 경우가 있었다. 한편 실시하지 않은 기관도 2.1% 있었다. 이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보다 유치원에서 홍보나 설명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약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설명시기별로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입학식 때 실시한 경우가 적었고,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보다 부모교육 때 실시한 경우가 많았고 별도의 5세 누리과정 설명회를 실시한 경우도 많았다.

〈표 IV-4-1〉 이용 기관에서의 「5세 누리과정」 설명 시기

단위: %(명)

구분	전체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원아모집 설명회	48.1	44.0	44.7	48.3	51.4
입학식	31.0	23.6	30.0	33.5	32.4
부모교육	30.3	24.9	26.1	32.9	33.1
부모상담	27.6	25.5	29.1	25.3	28.9
부모교육책자 등 관련안내문	25.8	26.1	22.3	24.9	28.3
별도의 5세누리과정 설명회	12.9	8.0	11.1	13.3	15.4
기타	0.8	0.5	0.9	1.5	0.3
잘 모르겠음	6.2	10.5	6.8	5.3	4.9
실시하지 않음	2.1	1.6	3.5	1.3	1.9
계	100.0(1,605)	100.0(195)	100.0(395)	100.0(391)	100.0(624)

주: 중복응답 결과임.

이용 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가 주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비용지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고되었다(79.4%)되었다. 그 다음으로 설명을 많이 들은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이라는 내용이었다(67.5%). 한편 이전 교육·보육과정과의 차이점이나 ‘5세 누리과정’에 의해 앞으로 운영할 교육·보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들은 경우는 각각 33.5%, 28.5%로 적은 편이었다.

〈표 IV-4-2〉 이용 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

단위: %(명)

구분	전체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모 두 매월 20만원 지원을 받는다	79.4	84.9	72.3	79.4	82.0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만 5세 유아는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67.5	72.9	64.6	67.7	67.6
‘5세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연계 교육·보육 과정이다	47.6	46.8	47.4	49.5	46.7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카드나 아이즐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46.1	43.3	43.4	46.5	48.2
‘5세 누리과정’ 이전 과정과의 공통 점과 다른점은 00이다	33.5	25.4	33.8	36.3	34.0

(표 IV-4-2 계속)

구분	전체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5세 누리과정'으로 본 기관에서 운영할 교육·보육 과정은 00이다	28.5	19.0	30.7	33.0	27.4
기타	0.6	1.3	0.9	0.3	0.3
없다	0.3	0.3	1.0	-	0.2
계	100.0(1,571)	100.0(192)	100.0(381)	100.0(385)	100.0(612)

주: 중복응답 결과임.

다음은 '5세 누리과정'의 세 가지 주요 목표 각각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기본생활습관 강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85.0%로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출생순위와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둘째아나 셋째아인 경우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셋째아인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읍면지역에 사는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용기관 종류나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한편 통계적 검정은 부적절 하였지만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고, 미취업인 경우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IV-4-3〉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인지 여부 - 기본생활습관 강조

단위: %(명)

구분	인식여부			계	$\chi^2(df)$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전체	36.1	48.9	15.0	100.0(1,605)	
출생순위					
첫째	33.2	51.0	15.7	100.0(926)	9.522(4)*
둘째	39.7	47.0	13.3	100.0(591)	
셋째 이상	42.6	39.7	17.7	100.0(88)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37.0	45.7	17.3	100.0(195)	12.430(6)
민간 어린이집	40.0	45.4	14.6	100.0(395)	
국공립 유치원	39.5	47.2	13.3	100.0(391)	
사립 유치원	31.3	53.2	15.5	100.0(624)	
지역규모					
대도시	34.4	54.1	11.5	100.0(655)	17.386(4)**
중소도시	37.1	46.4	16.5	100.0(639)	
읍면	37.9	43.0	19.1	100.0(311)	

(표 IV-4-3 계속)

구분	인식여부			계	$\chi^2(df)$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7	53.8	17.5	100.0(104)	5.983(6)
200~300만원 미만	36.6	47.7	15.7	100.0(517)	
300~500만원 미만	35.7	50.1	14.2	100.0(835)	
500만원 이상	42.1	43.1	14.8	100.0(149)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37.4	52.0	10.6	100.0(557)	na
전문대졸	31.7	50.9	17.4	100.0(489)	
4년제 대졸	38.6	44.9	16.5	100.0(534)	
대학원 이상	53.2	25.1	21.7	100.0(20)	
모 부재	-	34.6	65.4	100.0(5)	
모 취업여부					
취업	35.6	51.2	13.1	100.0(734)	na
미취업	36.8	47.0	16.2	100.0(866)	
모 부재	-	34.6	65.4	100.0(5)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5$, ** $p < .01$.

누리과정 목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서 ‘기본생활습관 강조’를 교육·보육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약간 또는 매우 많이 반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7.7%로 대부분이었고 4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3.40점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 평점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3.59점으로 대도시·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빈도분포상 통계적으로 검정이 어려웠지만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거나,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 이거나 취업 중인 경우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간 더 많았다.

〈표 IV-4-4〉 이용 기관에서의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반영 정도 -
기본생활습관 강조

단위: %(명), 점

구분	기관에서 반영정도				계	평균 (표준편차)	F
	매우 많이 반영하고 있음	약간 반영하고 있음	거의 반영하고 있지않음	전혀 반영하고 있지않음			
전체	42.8	54.8	2.3	0.1	100.0(1,365)	3.40(0.54)	
이용기관 종류							
국립어린이집	35.2	61.1	3.8	-	100.0(161)	3.31(0.54)	2.409
민간 어린이집	42.6	55.3	2.1	-	100.0(337)	3.40(0.53)	
국공립 유치원	47.6	50.3	1.8	0.3	100.0(339)	3.45(0.55)	
사립 유치원	42.2	55.6	2.3	-	100.0(528)	3.40(0.54)	
지역규모							
대도시	35.5	62.2	2.3	-	100.0(580)	3.33(0.52) ^a	21.058 ^{***}
중소도시	42.2	55.0	2.7	0.2	100.0(534)	3.39(0.55) ^a	
읍면	60.8	37.6	1.6	-	100.0(251)	3.59(0.52) ^b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44.0	53.5	2.5	-	100.0(498)	3.42(0.54)	0.141
전문대졸	41.8	56.6	1.6	-	100.0(403)	3.40(0.52)	
4년제 대졸	42.2	55.0	2.6	0.2	100.0(446)	3.39(0.55)	
대학원 이상	44.2	49.4	6.4	-	100.0(16)	3.38(0.62)	
모 부재	50.6	49.4	-	-	100.0(2)	3.51(0.78)	
모 취업여부							
취업	43.1	54.1	2.8	-	100.0(638)	3.40(0.55)	0.031
미취업	42.5	55.5	1.9	0.1	100.0(725)	3.41(0.54)	
모 부재	50.6	49.4	-	-	100.0(2)	3.51(0.78)	

주: 평균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음 1점 ~ 매우 많이 반영하고 있음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a, b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01$.

다음으로 '창의·인성교육 강조'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85.1%로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는 거주지역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잘 알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한편 빈도분포상 통계적으로 검정이 어려웠으나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IV-4-5〉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인지여부 - 창의·인성교육 강조

단위: %(명)

구분	인식여부			계	χ ² (df)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전체	33.7	51.4	14.8	100.0(1,605)	
출생순위					
첫째	31.6	52.6	15.7	100.0(926)	6.794(4)
둘째	35.7	51.0	13.3	100.0(591)	
셋째 이상	42.6	41.8	15.6	100.0(88)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어린이집	31.2	51.7	17.2	100.0(195)	11.120(6)
민간 어린이집	39.0	46.1	14.9	100.0(395)	
국공립 유치원	35.4	50.6	14.0	100.0(391)	
사립 유치원	30.2	55.3	14.5	100.0(624)	
지역규모					
대도시	30.4	56.0	13.6	100.0(655)	15.188(4)**
중소도시	35.0	50.8	14.3	100.0(639)	
읍면	38.3	43.2	18.5	100.0(3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4.7	57.9	17.4	100.0(104)	12.159(6)
200~300만원 미만	34.4	50.3	15.3	100.0(517)	
300~500만원 미만	32.6	52.9	14.4	100.0(835)	
500만원 이상	44.1	42.5	13.4	100.0(149)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34.8	53.4	11.7	100.0(557)	na
전문대졸	30.5	51.2	18.4	100.0(489)	
4년제 대졸	35.6	50.3	14.2	100.0(534)	
대학원 이상	43.2	32.7	24.1	100.0(20)	
모 부재	-	54.7	45.3	100.0(5)	
모 취업여부					
취업	34.3	50.7	15.0	100.0(734)	na
미취업	33.5	52.1	14.5	100.0(866)	
모 부재	-	54.7	45.3	100.0(5)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1$.

목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서 '창의·인성 교육 강조'를 교육·보육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약간 또는 매우 많이 반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4.0%로 대부분이었고 4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평균 3.30점이었다. 이는 이용기관의 종류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

가 있었는데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6〉 이용 기관에서의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반영 정도 - 창의인성교육 강조

단위: %(명), 점

구분	기관에서 반영정도				계	평균 (표준편차)	F
	매우 반영	약간 반영	거의 반영 안함	전혀 반영 안함			
전체	36.4	57.6	6.0	0.1	100.0(1367)	3.30(0.58)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어린이집	28.4	60.4	11.2	-	100.0(162)	3.17(0.61) ^a	4.375 ^{**}
민간 어린이집	34.6	58.9	6.5	-	100.0(336)	3.28(0.58) ^{ab}	
국공립 유치원	42.7	51.6	5.4	0.3	100.0(336)	3.37(0.60) ^b	
사립 유치원	35.9	59.6	4.5	-	100.0(534)	3.31(0.55) ^b	
지역규모							
대도시	27.0	65.8	7.2	-	100.0(566)	3.20(0.55) ^a	27.598 ^{***}
중소도시	37.7	55.8	6.3	0.2	100.0(548)	3.31(0.59) ^b	
읍면	54.4	42.9	2.7	-	100.0(253)	3.52(0.55) ^c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33.4	58.8	7.7	-	100.0(492)	3.26(0.59)	1.849
전문대졸	39.6	54.1	6.2	-	100.0(399)	3.33(0.59)	
4년제 대졸	35.8	60.4	3.5	0.2	100.0(459)	3.32(0.55)	
대학원 이상	62.3	25.9	11.8	-	100.0(15)	3.50(0.72)	
모 부재	32.0	31.3	36.7	-	100.0(3)	2.95(1.04)	
모 취업여부							
취업	37.3	56.2	6.5	-	100.0(624)	3.31(0.59)	0.536
미취업	35.6	58.8	5.5	0.1	100.0(741)	3.30(0.57)	
모 부재	32.0	31.3	36.7	-	100.0(3)	2.95(1.04)	

주: 평균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음 1점 ~ 매우 많이 반영하고 있음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a, b, c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86.9%로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가구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경향을 살펴보면 아이가 셋째 이상인 경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IV-4-7〉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인식여부 -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단위: %(명)

구분	인식여부			계	χ ² (df)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전체	38.5	48.4	13.1	100.0(1,605)	
출생순위					
첫째	35.7	51.2	13.1	100.0(926)	8.882(4)
둘째	42.1	45.2	12.8	100.0(591)	
셋째 이상	43.8	40.5	15.7	100.0(88)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37.0	48.6	14.3	100.0(195)	9.555(6)
민간 어린이집	42.9	44.7	12.4	100.0(395)	
국공립 유치원	41.3	47.2	11.5	100.0(391)	
사립 유치원	34.4	51.4	14.2	100.0(624)	
지역규모					
대도시	38.1	51.1	10.7	100.0(655)	9.230(4)
중소도시	37.8	48.2	14.1	100.0(639)	
읍면	40.5	43.2	16.3	100.0(3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6.3	60.8	12.9	100.0(104)	12.496(6)
200~300만원 미만	38.1	47.7	14.2	100.0(517)	
300~500만원 미만	38.9	48.7	12.4	100.0(835)	
500만원 이상	46.0	40.5	13.5	100.0(149)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37.0	53.9	9.1	100.0(557)	na
전문대졸	37.4	46.5	16.1	100.0(489)	
4년제 대졸	40.7	45.8	13.5	100.0(534)	
대학원 이상	50.9	19.9	29.2	100.0(20)	
모 부재	17.1	17.5	65.4	100.0(5)	
모 취업여부					
취업	38.2	48.1	13.6	100.0(734)	na
미취업	38.8	48.8	12.4	100.0(866)	
모 부재	17.1	17.5	65.4	100.0(5)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목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서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교육·보육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약간 또는 매우 많이 반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6.3%로 대부분이었고 4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3.33점이었다. 이는 이용기관 유형과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할 경우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8〉 이용 기관에서의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반영 정도-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단위: %(명), 점

구분	기관에서 반영정도				계	평균 (표준편차)	F
	매우 많이 반영하고 있음	약간 반영하고 있음	거의 반영하고 있지않음	전혀 반영하고 있지않음			
전체	37.2	59.1	3.7	0.1	100.0(1394)	3.33(0.55)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어린이집	31.1	63.8	5.2	-	100.0(167)	3.26(0.55) ^a	4.558**
민간 어린이집	32.3	63.4	4.3	-	100.0(346)	3.28(0.54) ^a	
국공립 유치원	45.5	50.4	3.7	0.3	100.0(346)	3.41(0.58) ^b	
사립 유치원	36.8	60.3	2.8	-	100.0(536)	3.34(0.53) ^b	
지역규모							
대도시	30.1	66.0	3.9	-	100.0(585)	3.26(0.52) ^a	17.729***
중소도시	37.2	58.5	4.1	0.2	100.0(549)	3.33(0.56) ^a	
읍면	52.9	44.6	2.6	-	100.0(260)	3.50(0.55) ^b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34.8	60.4	4.8	-	100.0(506)	3.30(0.55)	1.863
전문대졸	40.7	56.9	2.4	-	100.0(410)	3.38(0.54)	
4년제 대졸	36.1	59.9	3.7	0.2	100.0(462)	3.32(0.55)	
대학원 이상	52.7	47.3	-	-	100.0(14)	3.53(0.52)	
모 부재	50.6	49.4	-	-	100.0(2)	3.51(0.78)	
모 취업여부							
취업	36.9	59.4	3.7	-	100.0(634)	3.33(0.54)	0.087
미취업	37.4	58.8	3.7	0.1	100.0(758)	3.33(0.55)	
모 부재	50.6	49.4	-	-	100.0(2)	3.51(0.78)	

주: 평균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음 1점 ~ 매우 많이 반영하고 있음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a, b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01$.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월간 및 주간 계획안에 '5세 누리과정'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68.6%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9.9%는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21.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용기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민간이나 사립기관 보다 국공립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빈

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고졸이하인 경우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고 대학원 이상인 경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표 IV-4-9〉 월간·주간 계획안에 「5세 누리과정」 반영 정도

단위: %(명)

구분	'5세 누리과정' 관련내용이 잘 반영됨	'5세 누리과정' 관련내용이 잘 반영이 있지않음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68.6	9.9	21.5	1000(1,605)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이 어린이집	62.2	17.5	20.3	100.0(195)	19.067(6)**
민간 어린이집	68.4	8.1	23.5	100.0(395)	
국공립 유치원	69.8	11.0	19.2	100.0(391)	
사립 유치원	70.0	7.9	22.1	100.0(624)	
지역규모					
대도시	69.2	9.0	21.8	100.0(655)	2.021(4)
중소도시	68.5	9.8	21.7	100.0(639)	
읍면	67.5	11.8	20.7	100.0(3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6.5	13.1	20.4	100.0(104)	3.533(6)
200~300만원 미만	69.3	10.0	20.8	100.0(517)	
300~500만원 미만	67.7	9.8	22.5	100.0(835)	
500만원 이상	73.0	7.8	19.1	100.0(149)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71.9	11.2	16.9	100.0(557)	na
전문대졸	64.7	8.1	27.2	100.0(489)	
4년제 대졸	68.9	10.4	20.6	100.0(534)	
대학원 이상	66.1	4.6	29.2	100.0(20)	
모 부재	54.5	-	45.5	100.0(5)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1$.

이처럼 설문조사에서는 어머니들은 '5세 누리과정'의 목표를 잘 알고 기관에 서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면담조사 과정에서는 '5세 누리과정'의 실시에 따른 변화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 있었다.

작년에 수업과정을 제가 보고, 올해 누리과정 수업이라고 해서 하는 게 거의 비 슷하더라고요. 월간계획안이나 주간계획안에서도 (내용이) 변화된 것은 못 느껴

요('5세 누리과정' 이용 사례 10).

이전에는(만 4세때)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은 나이 차이인 건지 누리과정을 해서 바뀌었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구요('5세 누리과정' 이용 사례 12)

V. 「5세 누리과정」 미이용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현재 만 5세 자녀를 두고 있어 '5세 누리과정'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학원 등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과 5세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5세 누리과정' 이용 사례를 대상으로 본 정책의 만족도나 효용, 혹은 향후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미이용 사례를 통해서도 어떠한 이유로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분석함으로써 '5세 누리과정'의 개선을 위한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 가구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던 '누리과정 미이용 사례'는 총 8사례였다. 이들은 모두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신 '유아대상 영어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사례의 가구소득은 최저 400~1,000만원 이상이며 1,000만원 이상 소득 가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소득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으나 대체로 외벌이 가구이고, 부모의 직종이 전문직인 경우가 5사례였다.

〈표 V-1-1〉 「5세 누리과정」 미이용 가구 일반특성

구분	거주 지역	연령	학력	맞벌이 여부	직업	월소득
1	서울시 강남구	40대	대졸	외벌이	전문직(부)	700~1000만원
2	서울시 강남구	30대	대졸	맞벌이	전문직(부모)	1000만원이상
3	서울시 강남구	40대	대졸	외벌이	사무직(부)	1000만원이상

(표 V-1-1 계속)

구분	거주 지역	연령	학력	맞벌이 여부	직업	월소득
4	서울시 서초구	30대	전문대졸	외벌이	사무직(부)	700~1000만원
5	서울시 서초구	30대	대졸	외벌이	사무직(부)	400~500만원
6	서울시 서초구	40대	대졸	외벌이	전문직(부)	400~500만원
7	대전시	30대	대학원졸	맞벌이	전문직(부모)	1000만원이상
8	서울시 용산구	30대	대졸	외벌이	전문직(부)	1000만원이상

주: 피면담자 모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연령, 학력은 어머니 기준임.

미이용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 가정의 아동들은 모두 2006년생으로 현재 모두 유아대상 영어 학원을 이용중이었다. 이들이 이용하는 영어 학원과 기타 사교육비를 합한 총사교육비는 최소 96만원에서 최대 275만원 사이로 편차가 컸다. 기타 사교육비를 제외한 학원비는 최소 60만원~180만원 사이였다.

〈표 V-1-2〉 「5세 누리과정」 미이용 아동 일반특성

구분	출생년도	성별	형제관계 (출생순위)	현재 이용기관	월 사교육비 (영어학원비포함)
1	2006	여자	3(2)	영어학원	약200만원
2	2006	여자	2(1)	영어학원	약180만원
3	2006	여자	2(2)	영어학원	약275만원
4	2006	남자	1(1)	영어학원	약120만원
5	2006	여자	2(2)	영어학원	약 96만원
6	2006	남자	2(2)	영어학원	약106만원
7	2006	여자	1(1)	영어학원	약111만원
8	2006	남자	2(1)	영어학원	약215만원

주: 자녀 구분은 상기 「5세 누리과정」 미이용 학부모 해당 자녀임.

형제관계에서 3(2)은 총 형제 수는 3명이고 해당자녀는 둘째 아이란 의미임.

2. 기관 이용 실태

가. 과거 이용 기관

해당 자녀가 만 5세인 현재, 모두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으나 만 5세 이전에 대체로 다른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용해 보았던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대상 학원’ 등 다양하였다. 일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일반 사교육 학원 등 다양한 기관을 이용해 본 경우도 있었다.

어린이집에 다녔었어요. 구립어린이집...한 18개월부터 영어학원 가기전까지.(사례 1)

4세때 구립(어린이집)에 한 9개월 보냈구요...5세 때 다시 일반 유치원...그 다음에 6세때는 구에서 지원하는 영어센터에서 하는 영어 키즈반에 다녔어요. 거기 다니다가 7세 때 누리과정에 보조금 지원된다고 해서 일반 유치원으로 다시 돌렸다가 두 달 다니고 아이가 영어학원으로 옮겨달라고...하도 떼를 써서 옮긴 경우예요.(사례 5)

그 전에는 어린이집에 2년을 보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사례 7).

말이 느린 애들은 빨리 친구들하고 배우는게 좋다고 해서 제가 25개월인가 놀이 학교에 보냈어요.(사례 8)

나. 현재 이용 기관

1) 일과 운영

면담에 응하였던 누리과정 미이용 사례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은 모두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이들 기관을 반일제 이상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일과 운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종일제 이용도 가능하며, 한 취업모 사례의 경우 아침 출근시 아이를 맡기고 퇴근시에 데려오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었다. 보통 2시 반~4시 사이에 정규 프로그램이 끝나면 희망자에 대하여 방과후 특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유사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규시간과 방과후 특별활동 시간으로 구성된 것은 유사하나, 정규시간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 부모 중 하나는 누리과정 시행 후 일반 유

치원과 어린이집의 정규교육과정이 동일하게 되고 이에 프로그램 운영이 비슷해졌으며, 현재 이용 중인 영어학원의 프로그램이 더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침에 9시에 버스를 타세요. 오후에 3시에 집에 오구요.(사례 1)

애가 8시 반에 갔다가 6시 반까지(있어요). 2시 반이 정규인데, ○○가 6시 반까지 있으려면 10만원을 더 내야 해요.(사례 7)

9시에 가서...지금은 4시에 오고 있어요.(사례 8)

(커리큘럼이) 일반 유치원과 비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슷했는데 누리과정이 들어오면서 훨씬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프로그램이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으니까...예전에 누리과정 없었을 때는 사실 조금 규모가 있는 유치원 같은 데서는 다른데서 하는 좋은 것을 원장님들이 해서 원생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젠 이게 안되니까...(사례 7)

일반유치원에서 하는 그런거...근데, 거기다 영어수업이 조금 더 있어서 더 늦게 끝나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사례 8).

2) 이용 이유

면담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이들 사례가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시간은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와 비슷하나,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영어학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방과후 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 '영어' 관련 프로그램이 매우 강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이용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담하였는데, 예상과 다르지 않게 이들이 영어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었다. 특히 영어학원 이용 학부모의 논리는 '영어'는 이제 잘해야 하느냐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본'이며 조기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나중에 고생하지 않고 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이다. 또한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적용되는 과정이나 프로그램은 이러한 점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영어학원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렸던 것도 있고...아이가 영어 TV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 나 영어배우고 싶어라고 먼저 말을 했어요.(사례 2)

어렸을 때 하면은 모국어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사례 2)

제가 직장 다니면서 20대때 영어회화학원을 다녔어요...일년동안 공부를 했더니 문법이 보이는거예요...이렇게 회화를 먼저하니깐 그냥 문제가 들어오는걸 왜 그때 성문종합영어를 했을까... 나는 우리 자식을 낳으면 절대 이런식으로 안가르치고 회화위주로 해야지라는게 20대 초반에 벌써 자리잡혔어요.(사례 4)

영어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큰 애를 보냈는데도 별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그래 다 필요없어 해서 (둘째는) 일반 유치원 보냈다가 이렇게 몇년을 해도 안되는 애를 아예 안시키면 나중에 다 커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이제 겁이 나는거예요...나중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할려면 큰 애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거예요(사례 6)

저희 때만해도 영어 못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저희 애들은 영어를 잘해야 되냐 하는 논의는 끝났어요...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거는 당연하고...영어는 그냥 하는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어떨하지 국어 어떨하지 (하는거고).(사례 6)

영어가 커요....영어를 뒤에 늦게 시키면 언어는 빨리 접한 애들이 차이가 있더라구요...○○도 사실 5세(만 3세)까지는 영어를 접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6세(만 4세)때 돼서 보니까 집에서 그냥 전업주부로 있는 엄마들도 영어를 따로 과외를 다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있더라구요.(사례 7)

(초등학교 3학년 정규과정 전에) 영어를 안시키는 사람이 없어요(사례 7).

...지금 이제는 영어는 너무나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됐고...이제는 더 나아가 중국어가 중요하다고...영어가 너무 중요해서 보내는 것 보다는 영어는 정말 기본적인 거라 생각을 하고...(사례 8)

영어를 조기에 익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일부 사례는 원래 거주지역의 일반 유치원을 이용하였으나 아이가 유치원 수업을 지루해 해서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일반유치원 다니고 애플터로 영어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가 엄마 너무 힘들어 한군데만 다니면 안돼?... 애는 애대로 지치고 한군데만 다니면 안되냐...△△유치원 재미없다고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어요(사례 6)

신생업체예요...선생님들이 영어거부감 느끼고 재미없어할까봐 너무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는거예요. 그러니까(유치원은)...LCD TV로 인성이란...우정이란...이러면서 공부하다가 거기는(영어학원에서는) 놀고 그러니깐...(유치원은) 주입식이예요. 사진을 봐도 굉장히 지루해 보여요.(사례 6)

3) 만족도

사례들에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지 면담한 결과, 대체로 원래 목적했던 바의 자녀의 영어습득 효과에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비용은 공통적인 불만 요인이었고, 일부 사례는 영어능력이 향상되는 만큼 한국어, 한글의 습득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 때문에 영어학원 이외 한글이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사교육을 추가로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사례는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부분보다 취학전에 영어를 먼저 접하고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액티비티도 많고 게임이나 행사도 많이 있는 편이고 그렇다고 공부를 신경안쓰지도 않아요...여러가지로 만족스러운 것 같구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비싸다는 것...가격적인 면. 애프터 클래스같은 특별활동 같은 경우도 그냥 학원보내는 것보다 결코 싸지 않아요.(사례 1)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고, 너무 영어만 하다보니 한글...물론 국어를 따로 하고 한글도 따로 하긴 하지만 표현력이...영어도 네이티브처럼 아주 훌륭한 것은 아니고 한글에 대한 표현력이 많이 부족해 졌다는 것...그게 좀 만족스럽지 못하죠.(사례 2)

3년째 보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100%충족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 애기 같은 경우는 영어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사례 2)

영어학원에 보내면 한글, 수학 이런게 미흡한게 있어요...엄마가 따로 해줘야 될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일반유치원 가면 또 영어 때문에...(사례 5)

이게 어렸을때 시작하면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어차피 선생님들도 애네들이 백지상태인 것을 다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근데, 나중에 따로 준비를 해서 오면 그게 저도 힘들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영어유치원에 보내는게(나은 것 같아요)....둘째도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사례 8)

약간 걱정이 되는거는 원어민 교사들의 자질 문제 같은게 있잖아요....근데 그 전에 어느 학원에서 아니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경력이 어땠는지 처음 오리엔테이션때 다 프린트를 해서 주시더라고요.(사례 8)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가 외국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애랑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노는데, 영어로 계속 얘기하고 영어로 노는데 우리가 없고, 그 애 엄마가 보면 잘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사례 8)

4) 기타 사교육

7세 때가 제일 바쁘게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들어가면 못할 것 같아서...지금 하루에 2개 이상씩은 사교육을...(사례 1)

지금 다니고 있는 영어학원에서 요가와 리더쉽교육을 추가로 하고 있고 피아노, 바이올린, 가베, 오카리나, 영재학원, 수학, 과학, 미술을 하고 있어요. 비용은 약 100만원정도 드는 것 같아요(사례 3).

3. 누리과정 미이용 이유

누리과정 미이용 사례들은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는 자녀가 더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경험을 갖고 있다. 이에 이들의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와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누리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가. 유치원·어린이집에 관한 인식

이들은 대체로 어린이집은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어린 아이를 부모 대신 돌봐 주는 곳으로 어린 아이 위주이며, 유치원은 초등학교 갈 준비를 위해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즉, 두 기관을 비슷한 기관이라고 생각지 않고 기능적인 면에서 구분을 하고 있었고, 어린이집은 주로 취업모가 아이를 맡기는 곳으로 이 때문에 아이들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데 굳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는 일단 육아에 대한 부담을 엄마가 좀 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사회성? 형제자매외 다른 친구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게 어린이집이다 해서 보내는거고 유치원은 학습적인 부분에서 보내는 거고...(사례 1)

어린이집은 일단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애들을 맡아 봐준다는 개념? 애들을 봐 주는 케어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많이 이용한다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은 초등학교 전단계 교육과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되죠.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기관?(사례 2)

저는 어린이집은 애 방치하면서 밥만주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교육하는 기관이라 생각을 안해서 거기는 그냥 맞벌이 부부들이 맡길데가 없어서(보내는 곳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보니까 교육도 너무 잘시키고...(사례 6)

(어린이집)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요....되게 열악하더라고요....놀이학교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사례 8)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안보내게 된 이유가 너무나 많은 케어에 관한 문제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직장다니는 엄마들이 많구요.....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보통 영어학원이나 놀이학교를 다니는 엄마들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더라고요....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교육감 노릇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직장다니는 엄마가 많아서 별로 신경을 못쓰니까...)(사례 8)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영아들이 좀 많잖아요.(조금 큰 아이는 유치원에 가는 걸로 생각해요).(사례 8)

커리큘럼이나 보내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건 거의 똑같아요. 만약 대기만 괜찮았으면 그냥 어디든 갈려고 생각을 했어요....지원도 해주고 또 교육과정도 같고 하니 어디가든 상관없고...(사례 7)

나. 누리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

면담에 응한 사례들은 누리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례 3만이 모르고 있었다. 사례 7은 기존에 이용했던 어린이집의 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적인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누리과정이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고...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영어 학원에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서명운동도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사례 1)

연초에 TV나 인터넷 매체에서 나와서 알고는 있었고 근데, 자세한 내용은 몰랐구요. 정부에서 차등없이 그냥 모든 국민들한테 교육인지 지원을 해준다 정도...(사례 2)

저는 지금(면담 시) 처음 들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사례 3)

교육과정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예산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원가가 프로젝트 무

슨 그런 킷들이 많아졌더라구요...돈도 지원이 되고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유치원이나 이런데를 지원하는구나...유치원이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정부에서 주는구나...저는 정부보조금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번달은 이것으로 가르치세요하고 딱 (지시를) 주는 줄 알았어요.(사례 6)

...보조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보조되는 것은 주변 일반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을 통해서 들었어요....유치원이 거의 공짜라고...(사례 8)

○○이가 전에 보냈던 어린이집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누리과정인데 지원을 받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을 나라에서 다 통일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야되는 거라고...(사례 7)

11월 달에 거의 알고 있었어요. (지원이) 안되는 줄...그 원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당연히 안되는 거라고...(사례 7)

다. 누리과정의 개선방향

누리과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어학원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2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누리과정 해당 기관으로 옮기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영어학원 이용 목적 중 가장 큰 것은 조기에 영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얻는 것이고 이런 목적을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사례는 길게는 3년전부터 영어학원을 이용하고 있어서 비용 지원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누리과정으로 인해 비용 지원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알아본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 가능한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영어학원에서 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이전에 2년을 미리 보내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 엄두가 나질 않았구요...현실적으로 영어학원을 지원안해준다고 해서 아쉽다 정도지 그거 때문에 바꿀 생각은 사실은 없었어요.(사례 2)

일반유치원 누리과정이 안좋다는게 아니라 나중에 학교 보내면서 영어를 시킬려니까 더 힘든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턴 이제 영어해야지 하면 그때부터 책임기 시키고 쓰기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깐 애가 뒤늦게 시작하는 영어가 싫은 거예요(사례 6)

(남편이)누리과정 지원 받는데 가까운데 유치원 보내는게 낫다고 그래서 알아보니 엄마들 사이에서 조금 괜찮고 선생님들 이동이 별로 없는 그런 유치원은 자리가 없어요...(평판이 안좋은) 그런데만 자리가 남아 있거나 다른 동네를 가야하는 거죠...직장다니는 엄마가 애를 거기다 데려다놓고 가기에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결국은 그냥 가던대로 가게 되었고 두 번째는 영어 때문에...(사례 7)

지금 상황으로는 영어학원 엄마들이 한국 유치원에 20만원 때문에 옮기는 경우는 없을거라고 봐요. 근데 정말 프로그램이 좋아진다...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에 시설적인 면, 선생님들의 자질적인 면, 프로그램적인 것 그런 것에 더 많은 투자가 있다면...그러면 저소득층은 지원도 받고 더 좋은 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거 아닌가...그렇게 생각해요.(사례 8)

또한 몇몇 사례는 기존에 다녔던 유치원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점 때문에 영어학원으로 옮긴 경우였다. 즉, 누리과정 적용 이전에도 이용하던 유치원의 규율이 엄격하였거나, 교육 내용이 매년 지루하게 반복되어 아이가 유치원 가는 것을 싫어한 경우였다.

우리 애는 일반유치원 보다 영어학원이 더 재밌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유치원은 약간 규율이 좀 엄격하잖아요. 화장실 갈 사람도 좀 참아해서 오줌싸는 아이들 있을 정도로 좀 그런게 있더라구요....(사례 5).

교육이 그렇게 색다른게 없이 그냥 10년동안 20년동안 해오던거 그 커리큘럼 가지고 하는데...같은데 2년을 보내보니까 5세 3월달에 했던거 6세 3월달에 똑같이 해요. 깊이만 달라지죠....7세되는 해에 방학마치고 갈려고 했더니...재미없다고 안간다고...(사례 6)

또 올해들어 누리과정 지원을 받기 위해 유치원을 이용을 해보다가 새로 적용되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해 다시 영어학원으로 옮긴 경우도 있었다. 이는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영어 이외에도 부모들이 생각하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내용'이 누리과정의 표면상에는 드러나지 않아 그러한 불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 학부모는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으로 '영어'를 정규과정으로 도입했으면 하는 의견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턴 정규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늦으며, 만 5세아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단계이므로 한글이나 수학, 영어 와 같은 부분이 학습적인 형태로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설명회할 때 갔었어요....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 7세를 다니면 한글을 집에서 따로 안해도 되게끔 되어 있나요? 교육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무리없이 할꺼 같데요. 초등준비반이니까. 근데 한달 두달 다녀보니까 한글하는게 하나도 없는거예요....그래서 선생님과 상담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총일반 친구만 한글(수업)을 한다는 거예요.(사례 5)

차라리 영어를 누리과정안에 정규과정으로 넣어서 지원을 하면은...유치원에도 원어민 선생님을 둘 수 있게 하면은 이렇게 안했을텐데...(사례 7)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규과정에 (영어를) 넣는 것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은....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건데, 일반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그런 것에 대한 터치가 없잖아요?(사례 8).

또한 이들은 주변에서 보았던 누리과정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몇 가지 행태를 지적하였다. 20만원의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해 다니지만, 절약한 돈으로 사교육으로 결국 학습적인 부분을 보충하고 있는 행태로서 '창의·인성'을 강조하는 공통과정의 개발과 비용 지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주변에서 비용 지원이 되니까 영어학원 다니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옮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이 동네 엄마들은 지원 받으면 좋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사교육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그래서...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교육을 더 많이 이끌어 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사례 8)

사실 일반 유치원 간 아이들 엄마들은 그 이유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거를 다 하는 거예요...영어도 가르치고 ...거의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다 투자를 하는거예요...오전에는 (유치원에서) 그냥 애들 놀리고...엄마들이 대놓고 하는 얘기가 누리과정교육을 받는데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놀러간다고...(사례7)

VI. 「5세 누리과정」 정책 만족도 및 요구

이 장에서는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 어떠한 효용이 있었는지와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효용 즉, 만족을 주었던 부분은 주로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지원된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가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봄과, 반면 이러한 비용 지원이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실제 지적되는 개선점과 대비하여 보도록 하겠다.

이밖에 5세 누리과정과 2013년도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3·4세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5세 누리과정 시행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가. 만족도: 가계 경제 도움 정도

5세 누리과정 이용시 전 소득계층에 대해 지원되는 월 20만원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비용 지원액이 가계에 어는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바, 구체적인 결과는 <표 VI-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20만원 지원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9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5.1%로 비용 지원의 '가구 경제 도움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부분에서의 이용 가구의 만족도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 특성별로는 이러한 비용 지원이 가계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여 '지역규모별', '이용 기관 세부유형별', '2011년도 기관 이용 시 비용 지원 여부별' 가계 도움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 「5세 누리과정」 비용 지원이 가계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도움 됨	조금 도움 됨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계	$\chi^2(df)$
전체	53.6	41.3	4.5	0.6	100.0(1,605)	
출생순위						
첫째	52.2	42.4	4.7	0.7	100.0(926)	3.189(6)
둘째	55.5	39.5	4.4	0.6	100.0(591)	
셋째 이상	56.1	41.3	2.6	-	100.0(88)	
기관 이용 형태						
2012년 처음 기관이용	47.6	46.9	5.6	-	100.0(143)	6.417(6)
2011년과 동일기관 이용	53.4	41.2	4.4	0.9	100.0(1079)	
2012년에 기관 변형	56.4	39.2	4.2	0.3	100.0(383)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어린이집	52.4	44.6	1.6	1.4	100.0(195)	27.057(9)**
민간 어린이집	57.4	35.4	6.8	0.3	100.0(395)	
국공립 유치원	57.9	38.5	3.3	0.3	100.0(391)	
사립 유치원	48.9	45.7	4.7	0.8	100.0(624)	
지역규모						
대도시	43.2	50.4	6.0	0.5	100.0(655)	57.076(6)***
중소도시	62.5	34.3	2.9	0.4	100.0(639)	
읍면	57.4	36.4	4.8	1.5	100.0(3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6.5	39.1	4.4	-	100.0(104)	9.331(9)
200~300만원 미만	52.7	40.7	5.3	1.4	100.0(517)	
300~500만원 미만	53.8	42.1	3.9	0.2	100.0(835)	
500만원 이상	53.8	40.2	5.4	0.7	100.0(149)	
2011년 기관 비용 지원 여부						
지원받음	54.3	39.2	5.5	0.9	100.0(851)	13.647(6)*
미지원	53.6	43.3	2.8	0.3	100.0(646)	
해당없음(기관미이용)	48.1	44.4	7.4	-	100.0(108)	

* $p < .05$, ** $p < .01$, *** $p < .001$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와 읍면지역 거주자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각기 62.5%, 57.4%로 전체 평균 53.6%보다 높았다. 반면 대도시 거주자의 ‘매우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43.2%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각 지역규모별로 소비 수준과 물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대도시의 경우 타 규모의 지역 대비 20만원의 금액 수준이 물가나 가구 소비 수준 대비 큰 효용을 주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용기관 종류별에 따른 가계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의 이용 가구와 국공립유치원의 이용 가구에서 가계 경제 도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어린이집 이용자 중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의 가계경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치원 이용자 중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아닌 국공립유치원의 이용 가구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다는 점이다. 이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비용 지원을 받기 전에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이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보다 이용 비용이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월 20만원의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면 높은 비용을 내고 있었던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이용 가구의 가계 도움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라 하겠다. 일부 면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월 2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이러한 비용 지원만큼 다른 비용을 추가하여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 후 이전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었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이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다른 지역의 어떤 엄마 하나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되더라요. 20만원을 지원 받으면 당연히 내가 내는 돈이 줄어들겠지 했는데...무슨 활동비 계속 돈이 늘어나니까...솔직히 지원 받는거 만큼 내가 지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없는거죠(사례 16).

이러한 비용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아동이 만 5세가 되기 전 유치원·어린이집에 이용 비용을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 이에 2011년도 기관 이용시 비용 지원을 받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현재의 비용 지원에 대한 가계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에 비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집단에서 현재 '도움이 안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용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집단에서 '조금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는 비율의 합이 96.9%로 높게 나타났다. 즉, 기존에 이미 비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누리과정 이용 중인 해당 아동의 출생순위와 기관이용 행태에 따라 누리과정 비용 지원이 가계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대체로 해당 아동의 출생순

위가 더 낮을수록(어릴수록)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크게 체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가구경제에의 도움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준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관 이용 형태별로는 2011년부터 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2012년도에 기관 변경 경험이 있는 경우 누리과정으로 인한 20만원 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원되는 비용은 절대적 금액보다는 기존의 소비 수준이나 거주 지역의 물가 수준, 기존에 기관 이용시 지불하던 금액이나 서비스에 대비한 상대적인 수준에서 효용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누리과정 이용 비용의 20만원 지원액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가구의 사정에 따라 주관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비용 지원으로 인해 누리 과정을 이용하는 가구는 결과적으로 지원이 없었다면 지출했어야 하는 2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누리과정 지원으로 인해 절약하게 된 20만원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표 VI-1-2>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표 VI-1-2>에 따르면 절약된 20만원은 가족생활비에 41.8%, 해당 누리과정이용 자녀의 사교육비에 39.3%, 해당 자녀 이외 다른 자녀의 사교육비로 6.8%, 다른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으로 5.8%, 그밖에 기타비용으로 6.4%가 사용되고 있어, 주로 생활비와 자녀의 사교육비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해당자녀의 출생순위별, 기관이용형태별, 지역규모별, 월평균 가구 소득별,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 지원금으로 절약된 금액의 용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해당 자녀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가족생활비와 해당자녀의 사교육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해당자녀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다른 자녀의 사교육비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아진다. 즉,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이 높은 자녀의 사교육비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VI-1-2〉 비용 지원으로 인한 절약금액의 주 사용처

단위: %(명)

구분	가족 생활비	해당 자녀 사교육 비	다른 자녀 사교육 비	다른 자녀 기관 이용비	기타	계
전체	41.8	39.3	6.8	5.8	6.4	100.0(1,605)
출생순위						
첫째	43.1	41.3	2.3	6.4	7.1	100.0(926)
둘째	40.4	36.6	12.1	5.2	5.6	100.0(591)
셋째 이상	37.9	35.9	18.0	4.4	3.8	100.0(88)
$\chi^2(df) = 76.587(8)^{***}$						
기관이용행태						
2012년 처음기관이용	50.3	24.5	11.2	5.6	8.4	100.0(143)
2011년과 동일기관이용	42.1	38.3	6.8	6.8	6.8	100.0(1,080)
2012년에 기관 변경	37.6	47.3	5.2	3.4	6.5	100.0(383)
$\chi^2(df) = 30.697(8)^{***}$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42.4	35.5	7.8	4.9	6.4	100.0(195)
민간 어린이집	42.2	37.9	5.3	8.7	5.9	100.0(395)
국공립 유치원	45.7	38.1	7.4	2.8	5.9	100.0(391)
사립 유치원	38.9	42.0	6.9	5.3	6.9	100.0(624)
$\chi^2(df) = 20.017(12)$						
지역규모						
대도시	34.6	46.2	7.6	4.7	6.8	100.0(655)
중소도시	46.9	36.2	5.6	6.5	4.8	100.0(639)
읍면	46.4	30.8	7.3	6.8	8.6	100.0(311)
$\chi^2(df) = 39.083(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2.7	17.0	3.6	10.5	6.2	100.0(104)
200~300만원 미만	50.5	32.3	7.1	3.9	6.2	100.0(517)
300~500만원 미만	36.4	43.3	7.4	6.9	6.0	100.0(835)
500만원 이상	27.5	55.9	3.9	3.6	9.1	100.0(149)
$\chi^2(df) = 81.788(12)^{***}$						
모 최종학력						
해당사항 없음	82.9	17.1	-	-	-	100.0(5)
고졸 이하	48.8	31.2	8.9	5.3	5.9	100.0(557)
전문대졸	41.7	39.4	6.2	6.3	6.4	100.0(489)
4년제 대졸	33.6	48.0	5.4	6.1	7.0	100.0(534)
대학원 이상	60.9	30.1	-	5.0	3.9	100.0(20)
$\chi^2(df) = 47.541(16)^{***}$						

*** $p < .001$

기관이용행태별로는 올해(2012년)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하게 된 경우 절약되는 20만원을 '가족생활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월등이 높고(50.3%), 예전부터 기관을 이용하던 경우는 이를 사교육비로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예전부터 기관을 이용하던 중에서도 올해 기관을 변경한 경우 동일 기관을 보내고 있는 경우보다 해당자녀의 사교육비로 절약된 2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경우 가족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앞서 '지원금액이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소도시 거주자가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즉,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월 20만원의 지원액이 가구 경제에 체감도가 큰 수준으로 이러한 비용 지원과 같은 정책이 마련되었을 때 중소도시 거주자에게 줄 수 있는 만족도가 가장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대도시 지역 거주자는 이 금액을 생활비로 활용하기 보다는 해당 자녀 혹은 다른 자녀의 사교육비로 활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53.8%), 교육·보육에의 비용 지원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절약된 금액을 어떤 용처로 사용하느냐는 어머니의 학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4년제 대졸'인 경우 해당자녀의 사교육비로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48.0%), 그밖의 학력수준에서는 모두 '가족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나. 문제점 및 개선점: 사교육에의 영향 및 프로그램 운영

1) 사교육과의 관련성

누리과정으로 인한 20만원 비용 지원으로 절약된 금액이 사교육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음이 앞서 분석한 '절약금액의 사용처'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2012년도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해당 아동이 하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와 비용을 2011년도와 비교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표 VI-1-3>에 제시된 2011년과 2012년의 사교육 종류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가 2011년도 대비 사교육 이용 비율과 이용시 종류가 증가하였음이 발견된다. 2011년도에는 조사에 응한 전체 사례수 1,605사례 대비 43.6%인 700사례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고,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가구당 평균 1.48개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2012년도에는 전체 사례수의 64.8%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이들은 평균 1.71개의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1년 대비 2012년도에는 사교육 이용 가구가 약 1.49배 증가하였고, 한 가구당 이용하는 사교육 개수도 평균 0.23개가 증가하였다.

〈표 VI-1-3〉 2011·2012년 해당자녀 이용 사교육 종류

단위: 개, 명

구분	2011년			2012년			B-A
	평균 (A)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B)	표준 편차	사례수	
전체	1.48	0.708	700	1.71	0.868	1,040	0.23
모연령							
해당사항 없음	1.00	0.000	1	2.00	0.000	1	1.00
35세 미만	1.45	0.655	248	1.78	0.905	352	0.33
35~40세 미만	1.51	0.761	358	1.70	0.861	530	0.19
40세 이상	1.43	0.633	94	1.56	0.793	158	0.13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1.57	0.705	90	1.67	0.833	130	0.1
민간 어린이집	1.40	0.682	170	1.67	0.858	255	0.27
국공립 유치원	1.42	0.714	146	1.56	0.813	244	0.14
사립 유치원	1.52	0.718	294	1.83	0.903	410	0.31
지역규모							
대도시	1.55	0.709	342	1.87	0.899	479	0.32
중소도시	1.37	0.666	244	1.53	0.762	388	0.16
읍면	1.48	0.766	114	1.63	0.920	174	0.1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41	0.796	36	1.66	0.931	37	0.25
200~300만원 미만	1.37	0.668	193	1.56	0.766	291	0.19
300~500만원 미만	1.48	0.667	378	1.69	0.869	592	0.21
500만원 이상	1.72	0.854	93	2.12	0.957	119	0.4

2011년 대비 2012년도의 가구당 평균 사교육 이용 개수를 제 특성별로 살펴 보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만 35세 미만으로 젊은 경우 아동의 사교육 이용 개수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연령이 젊을수록 더 많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관 세부유형별로는 2012년도 현재 사립 유치원 이용 가구의 사교육 이용 개수가 가장 많고 이용 개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의 사교육 이용 개수가 월등히 많고 2011년도 대비 증

가한 사교육 개수도 다른 지역규모보다 많았다. 앞서 분석한 누리과정으로 인한 월 20만원 지원의 사용처가 사교육인 경우도 대도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 바, 사교육 개수의 증가 결과를 함께 비추어 볼 때 ‘대도시’지역은 사교육의 기회가 많아 비용 지원 정책이 있을 경우 이것이 사교육을 유발할 위험성이 가장 큰 지역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 사교육 이용 개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2011년 대비 2012년도의 전체적인 사교육 비용을 살펴보았다.

〈표 VI-1-4〉 2011-2012년 해당자녀 사교육 비용

단위: 원, 명

구분	2011년			2012년			B-A
	평균(A)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B)	표준 편차	사례수	
전체	98,588	78,261	697	125,193	76,816	1,040	26,605
모연령							
해당사항 없음	40,000	-	1	80,000	-	1	40,000
35세 미만	99,127	79,336	247	124,547	73,137	352	25,420
35~40세 미만	101,600	83,239	357	128,842	81,547	530	27,242
40세 이상	86,088	50,112	93	114,631	67,426	158	28,543
이용 기관 세부 유형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99,156	65,244	56	127,555	75,525	130	28,399
민간 어린이집	86,538	64,200	200	116,195	72,661	255	29,657
국공립 유치원	96,858	70,143	146	117,414	68,650	244	20,556
사립 유치원	107,793	94,065	294	136,518	82,965	410	28,725
지역규모							
대도시	106,894	89,062	340	138,898	78,940	479	32,004
중소도시	85,872	55,478	243	111,343	73,211	388	25,471
읍면	100,879	82,257	114	118,342	72,572	174	17,46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9,972	64,657	36	113,199	84,539	37	33,227
200~300만원 미만	92,002	99,545	193	107,750	60,631	291	15,748
300~500만원 미만	95,641	59,798	376	123,360	72,172	592	27,719
500만원 이상	131,934	90,586	92	180,607	103,304	119	48,673

사교육 이용 가구의 지출 비용은 2012년도 평균 125,193원으로 2011년 대비 26,605원이 증가하였고, 어머니 연령이 40세 이상일 때, 민간 어린이집 이용시, 거주지역이 대도시일 경우,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일 때 가장 증가액수가 컸다.

앞서 살펴본 사교육 종류(개수)와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머니의 연령이 만 35세 미만일 때 사교육의 종류는 1.78개로 가장 많았으나 정작 비용 지출이 높은 것은 1.70개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 연령 35~40세 미만이었다. 기관 세부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 이용자의 사교육 종류가 가장 많고 2011년 대비 증가개수도 가장 많았고 절대 비용도 가장 컸다. 다만, 비용지출증가액은 민간 어린이집 이용자의 증가액이 가장 컸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이,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절대액수가 2011년, 2012년도 모두 가장 컸고, 증가액수도 가장 높아 대도시 거주자와 고소득층이 사교육의 기회에 가장 많이 노출되며 이용 단가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처럼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1년도와 누리과정 시행 후의 2012년도의 사교육 이용 개수와 지출 비용을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 개수와 비용 모두 뚜렷한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2011년도는 해당 아동이 만 4세였고 현재는 만 5세로 취학전 연령이 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것을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해 지원된 20만원의 지원금 효과로 곧바로 해석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지원액으로 인해 절약된 금액의 사용처'의 큰 부분이 '해당 자녀' 혹은 '그 외의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되었다는 결과에서 월 20만원이라는 비용 지원이 이를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케 하는 역효과(side-effect)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사교육에의 관심이 높은 젊은 연령대 부모의 가구나, 사교육의 기회가 많은 대도시 지역 거주자, 고소득층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누리과정 시행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누리과정 시행 기관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오후 시간에만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2: 142). 이에 이러한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는 <표 VI-1-5>에 제시되었다.

〈표 VI-1-5〉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정규시간대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오전에 실시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오전에 실시하지 않음	작년과 달리 올해 오전 시간대에 실시함	작년, 올해 모두 실시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계
전체	44.3	12.8	7.8	11.0	24.2	100.0(1,605)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어린이집	45.2	16.5	8.7	3.5	26.1	100.0(115)
법인 어린이집	65.8	2.5	3.8	10.1	17.7	100.0(79)
민간 어린이집	47.8	11.3	8.1	6.7	26.1	100.0(395)
국공립 유치원	34.0	15.0	8.2	15.7	27.2	100.0(391)
사립 유치원	45.6	13.0	7.7	12.2	21.5	100.0(624)
	$\chi^2(df) = 41.439(12)^{***}$					
지역규모						
대도시	40.4	15.3	11.9	8.1	24.4	100.0(655)
중소도시	40.7	13.9	6.0	15.1	24.3	100.0(639)
읍면	60.1	5.2	2.7	8.7	23.3	100.0(311)
	$\chi^2(df) = 83.861(8)^{***}$					

*** $p < .001$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이 오전에도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2011년도에 이용했던 기관과 비교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경우 '작년에도, 올해도 모두 오전에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로 응답하였고(44.3%), '작년에는 아니었는데 올해 오전시간대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8%를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오전시간대에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반면, 작년과 달리(작년에는 오전에 실시) 올해는 오전시간대에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가 12.8%이며 작년과 올해 모두 아무런 특별활동이 실시되지 않는 기관인 경우가 11.0%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법인어린이집이 65.8%로 가장 높았고, 민간어린이집 47.8%, 사립유치원 45.6%, 국공립어린이집 45.2%, 국공립유치원 34.0%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응답은 학부모의 응답이란 점에서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교육·보육과정의 운영을 자세히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4.0%로 2순위를 차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학부모의 응답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이용 기관에서 특별활동을 오전 시간대에 운영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지역규모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전 시간대에 특별활동이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증가하였는데 대도시는 40.4%인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60.1%로 약 20%의 격차를 보였다. 반대로 작년에는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였지만 올해는 오전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3) 누리과정의 개선 요구

여기서는 5세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들이 현재 누리과정 운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인식하는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앞서 현재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들의 약 65% 이상이 올해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들이 배우는 공통과정으로 월 20만원의 지원을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으나 취학 전 1년간만 해당되는 정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살펴보았는데¹⁹⁾, 여기서 부모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도 이러한 인식을 지닌 부모들의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누리과정이 취학전 공통과정인 만큼 ‘창의인성을 기르는 기초교육 강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었고(27.9%), 또한 취학전 공통과정이므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를 요구하는 비율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25.7%). 이밖에 누리과정 운영 평가의 강화, 가구(부모)에 대한 비용 지원보다는 기관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3.7%, 9.4%였다.

이러한 요구는 부모 면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아 대상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준비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누리과정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라는 목적을 지닌다면 한글이나 영어, 수학 등이 누리과정 안에서 좀더 눈에 띄는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전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싫지는 않지만 꼭 필요성을 느끼거나 가계에 크게 보탬이 되는 수준이라 생각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고소득 계층을 지원할 예산으로 기관 설비나 환경, 교사 인력 보충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보였다.

19) IV장 3절 참조.

〈표 VI-1-6〉 5세 누리과정 최우선 개선사항

단위: %(명)

구분	칭의 인성을 가르는 기초교육 강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의 연계성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 운영평가 강화	기관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기 타	없 음	계
전체	27.9	25.7	13.7	9.4	15.2	8.1	1000(1,605)
$\chi^2(df) = 24.232(10)^{**}$							
기관이용행태							
2012년 처음 기관이용	39.2	26.6	15.4	7.0	9.8	2.1	1000(143)
2011년과 동일기관이용	27.3	26.0	14.0	9.0	15.7	8.0	1000(1,080)
2012년에 기관변경	25.3	24.5	12.3	11.5	11.7	10.7	1000(383)
이용기관 종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22.2	32.6	6.6	6.5	20.6	11.5	1000(195)
민간어린이집	24.8	26.0	16.1	9.8	17.2	6.0	1000(395)
국공립 유치원	30.6	23.6	14.3	8.4	12.1	11.0	1000(391)
사립 유치원	30.0	24.6	14.0	10.6	14.3	6.6	1000(624)
$\chi^2(df) = 40.292(15)^{***}$							
지역규모							
대도시	29.8	25.3	15.4	8.7	15.7	5.1	1000(655)
중소도시	29.8	24.4	13.5	10.2	11.6	10.5	1000(639)
읍면	20.2	29.2	10.3	9.0	21.8	9.5	1000(311)
$\chi^2(df) = 41.721(1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4	28.6	12.8	7.0	17.9	8.3	1000(104)
200~300만원 미만	28.2	26.6	12.1	8.1	17.9	7.1	1000(517)
300~500만원 미만	27.8	25.6	14.3	10.1	13.2	9.0	1000(835)
500만원 이상	29.0	20.9	16.4	11.1	15.9	6.7	1000(149)
$\chi^2(df) = 13.653(15)$							
모 취업여부							
해당사항 없음	-	19.9	-	-	54.7	25.4	1000(5)
취업	30.6	24.1	13.8	10.8	13.3	7.5	1000(734)
미취업	25.8	27.1	13.7	8.2	16.7	8.5	1000(866)
$\chi^2(df) = 21.326(10)^*$							

* $p < .05$, ** $p < .01$, *** $p < .001$.

표면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나 ‘기관 지원 우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진 인식의 이면에는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나 실제 서비스의 질이 만족스럽지 않다 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솔직히 초등학교 가면 어차피 한글을 다 떼고 온다고 생각 하잖아요....누리 과정이라고 해서 놀게하고 신체적 그런 활동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한글을 그렇게 다 떼고와야 하는 과정이라면 유치원에서 체계적으로 3년동안 천천히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서울 희대엄마)

... 선생님들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히 아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각자 개인의 가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유치원 운영에 도움을 주는게(좋을 것 같아요)...이 돈을 받아서 아이한테 쓰지않고 엄마 화장품을 살 수도 있는거거든요. 직접적인 혜택은 유치원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그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나. 크게 보면.(서울 주영이 엄마)

(고소득층에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조금 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쓰면 오히려 사교육 부분도 더 줄어줄 수 있고...(미이용 사례 8)

이러한 개선 요구를 제 특성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기관이용행태, 이용하는 기관의 세부유형, 거주하는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기관이용행태에 따라서는 2012년에 기관을 처음 이용하기 시작한 집단에서 '창의인성을 기르는 기초교육 강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른 집단보다 높아 약 10%이상 차이를 보였다(39.2%). 앞서 이들이 올해 해당 자녀가 만 5세가 되어서야 기관 이용을 시작한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취학전에는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학습'적 요구보다는 '인성'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밖에 다른 보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비슷하였으나 '기관의 질'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특히 기관을 올해 변경한 사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기관 변경의 주된 사유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관 환경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²⁰⁾.

이용기관 종류별로는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 이용 가구가 어린이집 이용 가구보다 '창의 인성을 강조하는 기초교육 강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었고,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이용자들이 특히 '초등학교와의 연계성 강화'를 많이 요

20) 앞서 2012년 올해 기관을 변경한 사례를 대상으로 올해 기관을 변경한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약 8.9%가 '월 20만원 지원으로 원했던 기관으로 옮길 수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이 사례들은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질 높은 기관으로 올해 옮겨간 경우인데 이러한 사례들의 개선 요구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6%). 이는 부모들은 특별활동이 많을 경우 초등학교 준비에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활동을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들의 요구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만 6.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그밖의 기관 이용자에게서는 14% 이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기관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요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민간·사립 기관 이용시에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에서 '기초교육 강화', '누리과정 운영 평가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초등연계 교육 강화는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창의인성 등 '기초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비율이 미취업모에 비해 높고, 반대로 '초등교육과의 연계 강화'는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를 위해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고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이나 인격 형성을 상당 부분 이용 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으로 추측되며, 미취업모의 경우 기초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상당부분 부모 자신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교육보다는 초등학교 연계와 같은 학습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대의 가구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강화'의 요구 비율이 가장 높고, 반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서는 '기초교육 강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며 반면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강화' 요구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낮았다. 누리과정에 대한 운영평가 강화와 기관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는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특성에 따르면 '창의인성 등 기초 교육 강화'와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는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부모들은 기초교육이라 하면 기본생활습관이나 인격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며, '초등교육과의 연계 강화'라 하면 이보다는 좀더 '학습 준비'를 연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은 앞서 분석한 사교육 이용 개수나 비용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사교육을 통해 사적으로 준비하고 누리과정 시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인성적인 부분을 다듬어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2. 무상 교육·보육에 대한 의견

이 절에서는 5세 누리과정 및 2013년도 시행 예정인 3·4세 누리과정의 ‘무상 교육·보육 정책’ 성격에 대한 찬반 여부 및 반대시의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교육·보육 정책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지원을 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전소득 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확대된 현 누리과정의 비용 지원 방향에 대해 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가. 무상 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5세 누리과정」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5세아에 대해 가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만 5세아에게 사실상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만 5세 무상 교육·보육: 누리과정」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88.4%가 찬성하여 거의 대부분의 5세 누리과정 이용 가구는 이러한 취지의 누리과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관을 올해 처음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의 5세 무상교육·보육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 젊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아지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고(90.5%) 대도시 거주자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86.3%). 어머니의 취업여부별 찬성률은 눈에 띄는 차이는 아니지만 취업 모일 경우 찬성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대부분의 차등적 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맞벌이 가구가 전소득 계층에 대한 차등 없는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 있음을 추측케 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가구소득별 찬성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과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의 찬성비율이 각각 95.9%, 90.6%로 200~500만원 사이의 중소득계층보다 높았다. 이는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은 가계가 넉넉지 않음으로 인해,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은 소득기준 때문에 대부분의 차등적 비용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흔치않은 전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2-1〉 5세 무상교육·보육 찬성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계	$\chi^2(df)$
전체	88.4	9.3	2.3	100.0(1,605)	
기관 이용 행태					
2012년 처음 기관이용	83.8	12.0	4.2	100.0(142)	
2011년과 동일기관 이용	88.9	9.3	1.9	100.0(1,080)	5.288(4)
2012년에 기관변경	89.0	8.4	2.6	100.0(382)	
모 연령					
해당사항 없음	100.0	-	-	100.0(5)	
35세 미만	90.4	7.8	1.9	100.0(537)	10.587(6)
35~40세 미만	88.4	8.9	2.7	100.0(820)	
40세 이상	83.7	14.3	2.0	100.0(244)	
지역규모					
대도시	86.3	10.8	2.9	100.0(655)	
중소도시	90.5	7.9	1.6	100.0(639)	6.412(4)
읍면	88.6	9.1	2.2	100.0(3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5.9	3.6	0.5	100.0(104)	
200~300만원 미만	89.1	9.7	1.1	100.0(517)	12.644(6)*
300~500만원 미만	86.6	10.3	3.1	100.0(835)	
500만원 이상	90.6	6.8	2.7	100.0(149)	
모 취업여부					
해당사항 없음	100.0	-	-	100.0(5)	
취업	89.1	8.7	2.1	100.0(734)	1.484(4)
미취업	87.7	9.9	2.4	100.0(866)	

* $p < .05$

이처럼 응답사례의 대부분은 이러한 취지의 「5세 무상교육·보육: 누리과정」에 찬성하고 있었지만 9.3%는 반대의견을 보였는데, 반대의견을 보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표 VI-2-2>에 제시된 무상교육·보육 반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추가비용이 들고 있어 누리과정이 무상교육·보육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응답으로 전체 이유의 33.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기관의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어 누리과정을 통해 동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 24.7%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무상교육·보육 제공이 곧 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19.3%, 만 5세라도 보편화된 교육을 받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7.6%, 전소득계층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제공보다는 '소득'에 따른 차등 지

원이 낮다라는 의견이 8.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응답을 살펴보면 누리과정의 추구하며 표방하는 '누리과정 시행 기관에서의 동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보장 및 이를 무상으로 제공'이라는 정책의 취지가 이용자에게는 제대로 실감나지 않는 수준에 있음을 엿볼 수 있어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비록 반대 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전체 사례의 9.3%로 다수라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이용 중인 사례에서 나타난 응답이라는 점에서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수준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의 내실화를 기하고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VI-2-2〉 5세 무상교육·보육 찬성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추가비용이 들기때문에 무상교육·보육 이라고 할 수 없다	기관마다 질적인 수준이 달라 동질의 교육이라 보기 어렵다	세금을 더낼수도 있으므로 찬성하지 않는다	만 5세는 보편화된 형식적인 교육·보육을 받기에 아직 어렵다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	기타	계
전체	33.4	24.7	19.3	7.6	8.4	6.6	100.0(150)
모 연령							
35세 미만	32.5	36.4	13.5	3.9	6.6	7.1	100.0(42)
35~40세 미만	34.7	23.0	20.7	6.9	5.2	9.5	100.0(73)
40세 이상	31.8	14.2	23.4	13.5	17.2	-	100.0(35)
			na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34.2	19.2	22.3	5.8	12.1	6.4	100.0(47)
전문대졸	30.7	30.8	13.1	13.5	8.4	3.4	100.0(57)
4년제 대졸	37.4	23.9	25.0	2.3	4.7	6.8	100.0(44)
대학원 이상	-	-	-	-	-	100	100.0(2)
			na				
모 취업여부							
취업	28.0	29.7	22.7	7.2	6.2	6.2	100.0(64)
미취업	37.4	21.0	16.8	7.9	10.0	7.0	100.0(86)
			$\chi^2(df) = 3.791(5)$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이러한 응답을 제 특성별로도 살펴보았는데,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으나 어머니의 연령대·학력·취업여부 등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연령대일수록 기관에서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반대 이유로 많이 제기되고 있고,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세금'증가의 우려나 어린 아동에 대한 보편화된 교육·보육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 대비되었다.

어머니의 학력별로는 4년제 대졸과 고졸이하에서 무상교육·보육이라 하지만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전문대졸인 경우 이러한 이유의 비율이 낮았다. '비용 부담과 같은 맥락에서 '세금'증가에 대한 우려도 4년대 대졸과 고졸이하인 경우 높게 나타나고, 전문대졸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낮다 라는 의견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기관의 질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29.7%)과 세금의 추가 징수 우려(22.7%)에 미취업모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미취업모의 경우 '추가비용 부담'을 취업모보다 10% 가까이 많이 응답하였고,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3, 4세 누리과정

현재 시행중인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도에는 만 3, 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 확대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여기서는 부모들이 3, 4세 누리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5세 누리과정을 이용 중인 부모로서 향후 3, 4세에 확대되는 누리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3, 4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지

2013년도부터 3, 4세에 확대되어 실시될 예정인 3, 4세 누리과정도 모든 소득 계층의 3, 4세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시 공통과정을 배우며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의 응답자인 부모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56.1%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3〉 3, 4세 누리과정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계	$\chi^2(df)$
전체	56.1	43.9	100.0(1,605)	
기관 이용 형태				
2012년 처음 기관이용	46.9	53.1	100.0(143)	9.252(2)*
2011년과 동일기관이용	58.6	41.4	100.0(1,079)	
2012년에 기관변경	52.9	47.1	100.0(382)	
모연령				
해당사항 없음	37.0	63.0	100.0(5)	12.494(3)**
35세 미만	54.2	45.8	100.0(537)	
35~40세 미만	60.0	40.0	100.0(820)	
40세 이상	48.1	51.9	100.0(244)	
출생순위				
첫째	58.4	41.6	100.0(926)	11.851(2)**
둘째	55.0	45.0	100.0(591)	
셋째 이상	40.1	59.9	100.0(88)	
지역규모				
대도시	50.0	50.0	100.0(655)	19.430(2)***
중소도시	58.5	41.5	100.0(639)	
읍면	64.2	35.8	100.0(311)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인지율은 2011년부터 기관을 이용해 오고 있는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한 경우보다 높았고, 특히 동일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오고 있는 경우의 인지율이 높았다. 또 어머니 연령별로는 35세 이상 40세 미만, 즉 30대 중후반인 어머니의 인지율이 다소 높고(60.0%), 40대 어머니의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만 5세아인 해당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인지율이 높아서 대도시 지역 거주자의 인지율이 50.0%인데 반하여 읍면지역 거주자는 64.2%가 3, 4세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 어머니 연령별, 출생순위별, 지역규모별 인지율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2) 3, 4세 누리과정 찬성 여부

이처럼 약 과반수의 부모가 3, 4세 누리과정의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설문을 통해 3, 4세 누리과정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 나머지 응답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이러한 내용의 3, 4세 누리과정에 대해 찬성하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의 결과는 다음 <표 VI-2-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I-2-4> 3, 4세 누리과정 찬성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63.5	25.3	11.2	100.0(1,605)	
기관 이용 행태					
2012년 처음 기관이용	52.4	32.2	15.4	100.0(143)	10.672(4)*
2011년과 동일기관이용	64.8	25.1	10.1	100.0(1,080)	
2012년에 기관변경	64.0	23.2	12.8	100.0(383)	
모 연령					
해당사항 없음	34.6	19.9	45.5	100.0(5)	15.876(6)*
35세 미만	64.4	25.0	10.6	100.0(537)	
35~40세 미만	65.9	23.3	10.9	100.0(820)	
40세 이상	54.3	32.9	12.7	100.0(244)	
지역규모					
대도시	65.7	26.9	7.4	100.0(655)	19.126(4)**
중소도시	60.9	25.9	13.2	100.0(639)	
읍면	64.3	20.7	15.0	100.0(311)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60.3	28.7	11.0	100.0(104)	4.407(6)
200~300만원 미만	63.0	27.0	10.1	100.0(517)	
300~500만원 미만	63.6	24.2	12.3	100.0(835)	
500만원 이상	67.5	23.5	9.0	100.0(149)	
모 취업여부					
해당사항 없음	34.6	19.9	45.5	100.0(5)	na
취업	62.7	24.3	13.0	100.0(734)	
미취업	64.4	26.1	9.4	100.0(866)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5$, ** $p < .01$.

흥미로운 점은 3, 4세 누리과정이 현재 이용 중인 5세 누리과정과 적용 연령 대만 다를 뿐 내용과 취지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찬성의견이 거의 25%가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찬반 의견이 기관 이용 행태, 어머니의 연령대나 취업여부, 혹은 거주 지역의 규모,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교차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금까지 동일기관을 변경없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3, 4세 누리과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고, 반면 올해 처음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찬성률도 낮고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앞서의 관련 항목들

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2012년에 해당 자녀가 만 5세가 되어야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집단은 기관이용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관심이 다소 낮은 집단으로 사료된다. 즉, 기관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낮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기관 이용이 늦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그로인해 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취학전 아동 대상 교육·보육 기관 이용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인지가 낮고 찬성률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연령별로는 어머니가 35세 이상 40세 미만의 30대 중후반 연령대에서 3, 4세 누리과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고 반면, 40세 이상에서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찬성률이 타 지역 규모보다 높고, 찬성·반대의 의견을 뚜렷하게 보였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미취업모 간의 찬성 의견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약 25.3%의 조사 대상자는 내년도에 도입되는 3, 4세 누리과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그 이유를 함께 살펴 보았다. <표 VI-2-5>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5세 누리과정 반대 이유와는 차이가 발견된다.

3, 4세 누리과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 3, 4세는 보편화된 형식적인 교육을 받기에는 아직 어리다'라는 점으로 39.3%를 차지하고 있었다.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보인 응답자 중 약 8%정도만이 이러한 의견을 보였는 바, 이는 취학전 만 5세와 만 3, 4세에 대한 기관 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식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밖에 누리과정이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동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대 목표로 하나, 실제 기관마다 서비스의 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16.6%), 무상교육·보육을 표방하나 결국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15.2%), 세금이 추가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14.2%),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기관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10.6%)이 비슷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연령대, 취업여부 등 제특성별로도 반대 이유를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40세 이상에서 추가비용 발생과 세금의 추가 징수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불만은 35세 미만의 젊은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반대 이유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자가 추가 비용 발생을 우려하는 경우

가 많았고, 취업자는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미취업자보다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VI-2-5〉 3, 4세 누리과정 찬성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34세는 보편화된 형식적인 교육을 받기에는 아직어려다	기관마다 동질의 교육이라 보기 어렵다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상교육 ·보육 이라고 할 수 없다	기관에 대한 부모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므로	기타	계
전체	39.3	16.6	15.2	10.6	14.2	4.1	100.0(406)
모 연령							
해당사항 없음	-	-	-	-	100.0	-	100.0(1)
35세 미만	37.3	21.6	14.7	13.2	9.4	3.8	100.0(134)
35~40세 미만	41.9	14.7	11.6	11.7	15.4	4.6	100.0(191)
40세 이상	36.9	12.9	24.7	3.8	18.0	3.8	100.0(80)
$\chi^2(df) = 24.249(15)$							
모 취업여부							
해당사항 없음	-	-	-	-	100.0	-	100.0(1)
취업	36.4	18.1	12.0	12.5	18.9	2.1	100.0(179)
미취업	41.8	15.5	17.7	9.2	10.0	5.8	100.0(226)
$\chi^2(df) = 18.796(10)^*$							

* $p < .05$

다. 미이용 사례의 전계층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전소득계층에 대해 차등없이 비용 지원을 하는 누리과정을 포함해 0~2세 무상보육 등 '전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현재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다. 미이용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전계층 지원보다는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주변에서 본 전계층 비용지원의 부작용 사례, 즉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도 있고, 차등화하여 절약된 예산으로 기관 서비스의 질에 좀더 투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용 지원을 받는다면 좋지만 그렇다고 크게 좌우되지 않는 비용을 지원받지 않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시설 환경 등에 개선을 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더 낫다라는 입장이었다.

이들 사례의 소득수준에서 20만원의 지원이 기관 이용이나 정책에 대한 만족

도를 좌우하기에 크지 않는 수준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처럼 일부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굳이 일률적인 비용지원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라면) 20만원 지원을 하느니 선생님(수)를 보강을 하겠어.(사례 5)

(비용 지원을 하니) 굳이 보내지 않을 사람도 보내더라구요.(사례 4)

저는 차등화하는게 나은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을,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나머지 돈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도 있는거고, 그분들을 위해서도...그게 더 낫지 않을까...(사례 8)

20만원이 조금 큰 돈이기는 해요. 만약에 그렇게 큰 돈이 다(가능)하면 정말 똑같이 국가에서 운영되지 않는 곳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그냥 차등으로 하든가...(사례 8)

(저 같은 소득계층에겐) 그게 미미해요. 혜택이... 솔직히 20만원 받으면 좋지만 안받는다고 그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없어서 유치원 못보내는 거 아니고...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보내는 사람한테 더 보태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사례 7)

그 무상보육도 말이 많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직장다니는 엄마... 육아휴직 마치고 복직했는데...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보내야 출근하면서 보낼 수 있는데 다른 동네를 가야한다는 거예요....이거 되고 나서 집에 있는 엄마들이 다 보내가지고...이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하잖아요.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사례 7)

3. 기타 육아지원정책 수혜 경험 및 요구

이 절에서는 현재 5세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 대상의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 경험, 수혜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었던 정도 및 수혜 경험 후 추가 출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에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육아지원 정책의 수혜 경험 및 이에 따른 효과와 요구를 살펴보는 것은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누리과정'의 시행의 효과와 요구 등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 육아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본 조사에 포함되었던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는 1)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차등 교육비, 보육료 지원), 1)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 3)각종 지방정부 수당(출산장려금 등), 4)고운맘 카드, 5)장애아 무상보육·교육이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인지도, 수혜 경험, 수혜시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와 추가출산에 미친 영향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지도 및 경험 정도

가장 먼저 각 육아지원 정책의 인지 및 경험 정도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육아지원 정책은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차등 보육료·수업료 지원)’으로서, ‘잘 모른다’는 응답이 9.4%로 다른 정책에 비해 낮았다. 또한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 비율도 다른 정책에 비해 높았다(45.8%). ‘대략 알고 있다’를 포함해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는 경우가 대체로 70~80%에 해당하였으나 ‘장애아 무상 보육·교육’은 이러한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무래도 일반 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장애아가 있는 가구’에게만 특수하게 지원되는 정책이어서 일반 가구가 이러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거나 관심 자체가 적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조사의 대상은 현재 만 5세아가 있는 가구이므로, 시기적으로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이 가장 관심사이고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만 5세아보다는 다소 어린 아동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 즉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나 고운맘 카드, 출산장려금 등 지방정부 수당 보다 이 정책의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I-3-1〉 정부 육아지원 정책의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인지여부			계
	잘 알고 있음	대략 알고 있음	잘 모름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	45.8	44.9	9.4	100.0(1,605)
어린이집 미이용 0~2세 양육수당	26.2	46.5	26.3	100.0(1,605)
지방정부수당(출산장려금 등)	33.1	48.1	18.7	100.0(1,605)

(표 VI-3-1 계속)

구분	인지여부			계
	잘 알고 있음	대략 알고 있음	잘 모름	
고운맘 카드	31.2	39.8	29.0	100.0(1,605)
장애아 무상 보육·교육	18.8	35.8	45.4	100.0(1,605)

다음으로 이들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사례에 대해 실제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 응답된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경험 정도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5세 누리과정 해당 자녀 뿐 아니라 다른 자녀가 대상이 되었던 정책도 포함한 결과이다.

다음 <표 VI-3-2>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과거 및 현재를 통틀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정책은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으로 65.4%가 해당하였다. 이중 현재 받고 있는 경우가 28.2%, 과거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37.2%였다.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 다음으로 수혜 경험이 높은 정책은 임신·출산기의 의료비를 일정 금액이 충전된 카드로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제였는데, 약 50% 정도가 수혜 경험이 있었다. 가장 수혜 경험이 낮은 정책은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장애아 무상 보육·교육'으로 어느 정도 이 정책을 인지하고 있었던 876명의 사례 중 단지 18사례(2.0%)만이 수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009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의 수혜 경험도 '장애아 무상보육·교육' 다음으로 낮아 86.8%가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수치는 지방정부 수당 등을 경험한 경우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표 VI-3-2> 정부 육아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구분	수혜경험			계
	현재 받음	과거 받은 경험 있음	받은 적 없음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	28.2	37.2	34.6	100.0(1,454)
어린이집 미이용 0~2세 양육수당	3.5	9.7	86.8	100.0(1,166)
지방정부수당(출산장려금 등)	2.9	29.1	68.0	100.0(1,304)
고운맘 카드	19.0	31.3	49.8	100.0(1,139)
장애아 무상 보육·교육	0.6	1.4	98.0	100.0(876)

단위: %(명)

이러한 정책들의 인지 및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는 '장애아 무상보육·교육'을

제외하면 대체로 정책에 대한 인지는 낮지 않다고 보여지나 수혜 경험은 정책마다 편차가 심하였는데, 이는 지원 기준의 보편성의 정도에 좌우되고 있고 각 정책의 성격이나 목적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경험의 차이로 정책의 효과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육아지원정책 수혜의 효과

여기서는 앞서 제시하였던 육아지원 정책들의 수혜 경험이 어떠한 효과를 보였는지, '가계 도움 정도'와 '추가출산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육아지원 정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그러한 지원이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지원경험이 있는 경우 80% 이상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정책은 인지나 경험 정도와 마찬가지로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으로 52.4%를 차지하였고 '어느 정도 도움됨'을 포함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94.8%에 이르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94.8%)', '고운맘 카드(91.2%)',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90.0%)', '지방정부 수당(82.8%)', '장애아 무상 보육·교육(82.6%)'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3-3〉 정부 육아지원 정책 수혜시 가계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가정경제 도움여부				4점 평균		계
	많이 도움됨	약간 도움됨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평균	표준 편차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	52.4	42.4	4.4	0.8	3.46	0.621	100.0(951)
어린이집 미이용 0·2세 양육수당	36.5	53.5	8.7	1.3	3.25	0.665	100.0(154)
지방정부수당(출산장려금 등)	29.4	53.4	14.4	2.8	3.09	0.736	100.0(418)
고운맘 카드	37.2	54.0	7.9	1.0	3.27	0.644	100.0(572)
장애아 무상 보육·교육	40.0	42.6	11.5	5.9	3.17	0.876	100.0(17)

다음으로 각 정책들이 정책 수혜 이후 추가출산에 미친 영향 정도를 살펴보았다²¹⁾. 각 정책들은 대체로 60% 전후로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세부 정책별로는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을 경험한 것이 추

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62.3%), '고운맘 카드' 경험은 56.5%로 정책들 중 가장 낮았다.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이 추가 출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응답은 다른 정책의 경험시보다 높아서 23.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0-2세 양육수당'이 18.4%, '지방정부 수당'이 12.8%, 그리고 '고운맘 카드'가 10.5%로 가장 낮았다.

흥미로운 것은 '고운맘 카드'의 경우 경험한 비율도 높은 편이고, 이를 통해 가계 경제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다른 정책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출산에 미친 효과는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각 정책이 지원되는 기간이나 방식과 관련해 해석해 볼 수 있다.

조사 대상이 되었던 정책들 중에서 '고운맘 카드'외에는 대체로 해당 대상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액수는 많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에 반하여²²⁾, '고운맘 카드'는 임신기간 동안 일정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²³⁾ 일종의 '바우처'방식으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바우처 형태이므로 '의료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들은 금액을 사용하는 용처가 제약되지 않는다.

〈표 VI-3-4〉 정부 육아지원 정책 수혜시 추가출산에 미친 영향

단위: %(명)

구분	추가출산에 미친 영향			계
	매우 큼	어느 정도 영향 미침	별 영향 없음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	23.7	38.6	37.7	100.0(951)
어린이집 미이용 0-2세 양육수당	18.4	43.8	37.8	100.0(154)
지방정부수당(출산장려금 등)	12.8	47.2	40.0	100.0(418)
고운맘 카드	10.5	46.0	43.5	100.0(572)

이러한 '고운맘 카드'처럼 일정 금액을 제한된 기간 동안만 특수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가정경제

21) '장애아 무상보육·교육' 경험 사례에 대해 이 정책이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장애아가 있는 가구의 양육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조사윤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질문은 삭제하였다.

22) '지방정부수당'은 지방자체단체마다 매우 다양해서 '출산축하금'처럼 1회성 현금 지원도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수당'처럼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수당 형태도 존재한다.

23) 2012년 현재 50만원이 지원됨.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는 크더라도 장기적인 출산을 계획하는 데는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나. 누리과정 지원의 추가출산계획에의 영향

앞서 기존에 도입되어 시행중인 정책들의 수혜 경험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정책 수혜 경험이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었는데, 여기서는 응답 사례들의 현재 상황에서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2012년도에 도입되어 수혜를 받고 있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는 곧 「누리과정」의 정책 목표의 하나인 ‘출산을 증진’이라는 목표를 누리과정 수혜 경험자들로부터 달성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부분이라 하겠다.

1) 추가출산계획

전체 응답사례 중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는 7.4%로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추가 출산 계획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지만 가구의 제 특성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분석한 결과를 <표 VI-3-5>에 제시하였다.

<표 VI-3-5> 추가 출산 계획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계	$\chi^2(df)$
전체	7.4	85.8	6.7	100.0(1,605)	
기관 이용 형태					
2012년 처음 기관 이용	12.6	79.0	8.4	100.0(143)	
2011년과 동일기관 이용	6.7	85.9	7.4	100.0(1,080)	12.009(4)*
2012년에 기관 변경	7.6	88.2	4.2	100.0(382)	
모연령					
해당사항 없음	-	100.0	-	100.0(5)	
35세 미만	12.3	77.7	10.0	100.0(537)	
35~40세 미만	5.1	88.9	6.0	100.0(820)	49.654(6)***
40세 이상	4.7	93.2	2.1	100.0(244)	
총자녀수					
1명	18.2	68.6	13.2	100.0(395)	
2명	3.9	90.7	5.3	100.0(1,014)	136.361(4)***
3명 이상	4.1	94.9	1.0	100.0(197)	

(표 VI-3-5 계속)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계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8.0	82.4	9.6	100.0(655)	
중소도시	6.1	90.4	3.5	100.0(639)	24.016(4)**
읍면	8.9	83.7	7.4	100.0(3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7.2	77.0	5.8	100.0(104)	
200~300만원 미만	8.3	84.7	6.9	100.0(517)	
300~500만원 미만	5.1	88.4	6.5	100.0(835)	24.181(6)***
500만원 이상	10.3	81.6	8.1	100.0(149)	

* $p < .05$, ** $p < .01$, *** $p < .001$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기관 이용 행태', '어머니의 연령', '총자녀수' 그리고 '지역규모'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추가 출산 계획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용과 관련해서는 2012년에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의 추가 출산 계획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12.6%). 이는 2012년에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집단의 총자녀수가 한 명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는 결과(35.9%)를 고려할 때 자녀가 적기 때문에 추가출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어서 타당한 결과라 생각된다.

〈표 VI-3-6〉 정부 육아비용지원정책이 추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구분	비용지원 정책과 상관없이 추가출산할 계획 이었다	추가 출산계획 없었는데 비용지원 정책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계	$\chi^2(df)$
전체	64.7	35.3	100.0(119)	
기관 이용 행태				
2012년에 처음 기관이용	44.4	55.6	100.0(18)	
2011년과 동일기관 이용	73.6	26.4	100.0(72)	7.758(2)*
2012년에 기관 변경	51.7	48.3	100.0(29)	
모연령				
35세 미만	61.7	38.3	100.0(66)	
35~40세 미만	68.7	31.3	100.0(42)	0.558(2)
40세 이상	67.6	32.4	100.0(12)	

(표 VI-3-6 계속)

구분	비용지원 정책과 상관없이 추가출산할 계획 이었다	추가 출산계획 없었는데 비용지원 정책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계	$\chi^2(df)$
총자녀수				
1명	69.4	30.6	100.0(72)	1.636(2)
2명	57.5	42.5	100.0(40)	
3명 이상	62.5	37.5	100.0(8)	
지역규모				
대도시	71.1	28.9	100.0(52)	5.392(2)
중소도시	69.6	30.4	100.0(39)	
읍면	45.8	54.2	100.0(2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2.3	47.7	100.0(18)	5.123(3)
200~300만원 미만	60.7	39.3	100.0(43)	
300~500만원 미만	65.9	34.1	100.0(43)	
500만원 이상	87.3	12.7	100.0(15)	

* $p < .05$.

어머니의 연령대가 젊을수록 추가출산계획을 하는 비율이 높아서 만 35세 미만인 경우 12.3%가 추가출산계획이 있는 반면 40세 이상은 4.7%에 불과하였다. 약간 유동적인 입장인 '잘 모르겠음'에 답한 경우도 만 35세 미만이 가장 많은 10.0%였다. 총자녀수별로는 현재 자녀가 1명일 경우 출산계획을 하는 비율이 자녀가 2명인 경우보다 약 15%가량 높았다.

지역규모로는 대도시, 읍면지역이 추가출산계획을 하는 경우가 다소 높으며, 중소도시 거주자의 추가출산계획이 적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에서의 추가출산계획이 높게 나타났다(17.2%).

추가출산계획이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이러한 추가 출산계획이 정부의 '5세 누리과정'과 같은 육아비용지원정책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약 35%는 정부 정책 때문에 원래 출산을 계획하지 않다가 출산을 하기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용 행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올해 처음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추가출산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뚜렷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55.6%). 다음으로 2011년에도 기관을 다녔으나 올해 기관을 변경한 경우가 정부정책으로 인해 추가출산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높았고(48.3%), 2011년부터 동일 기관을 지속해서 다니고 있는 경우가 가장 정부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6.4%). 이러한 결과를 볼 때 2012년에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하게 되거나 혹은 기관을 변경하게 된 것과 같은 변화가 생겼던 집단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누리과정' 시행과 같은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즉,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어떠한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집단에서는 연장선상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출산 계획에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구특성별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어머니 나이가 35세 미만인 경우 비용지원 정책으로 인해 원래 없었던 추가출산계획을 하게 된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총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정부의 육아비용지원정책과는 상관없이 추가출산을 계획한 경우가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많아서 69.4%에 해당하였고,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정책으로 추가출산을 계획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2.5%). 그러나 이러한 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현재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향후 추가출산을 계획하는 사례수 자체가 매우 작아서 비율의 크기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용지원정책과 관계없이 추가 출산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경우가 높았고,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지원정책 때문에 추가 출산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용지원'을 통해 출산률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는 소득과 무관한 지원 정책보다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정책이 좀더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규모별로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육아비용정책지원 때문에 추가 출산을 계획하게 된 경우가 높게 나타나 읍면지역의 경우 그러한 비율이 54.2%에 이르렀다.

2) 추가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다음으로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1,378 사례에 대하여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다(표 VI-3-7 참조).

〈표 VI-3-7〉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초등학교 이후 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미취학 시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기타	계
전체	59.3	13.7	10.9	8.2	7.9	100.0(1,378)
모연령						
해당사항 없음	34.6	-	-	-	65.4	100.0(5)
35세 미만	59.6	15.8	12.8	9.2	2.6	100.0(417)
35~40세 미만	59.5	14.5	10.8	7.8	7.4	100.0(728)
40세 이상	58.7	7.6	8.4	7.4	17.9	100.0(227)
		$\chi^2(df) = 74.858(12)^{***}$				
총자녀수						
1명	42.6	17.4	14.1	8.5	17.4	100.0(270)
2명	61.8	13.8	10.0	8.8	5.5	100.0(920)
3명 이상	71.0	8.1	11.3	4.3	5.4	100.0(186)
		$\chi^2(df) = 71.194(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7.3	7.1	10.0	11.1	14.5	100.0(80)
200~300만원미만	59.1	16.9	8.0	8.0	8.1	100.0(438)
300~500만원미만	60.6	12.7	12.2	7.7	6.8	100.0(738)
500만원 이상	53.5	13.3	14.3	9.9	9.1	100.0(121)
		$\chi^2(df) = 20.753(12)$				
모 취업여부						
해당사항 없음	34.6	-	-	-	65.4	100.0(5)
취업	54.1	11.0	20.1	6.6	8.2	100.0(628)
미취업	63.9	16.1	3.3	9.5	7.2	100.0(744)
		$\chi^2(df) = 122.118(8)^{***}$				

*** $p < .00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현재 자녀수로 충분해서’라는 응답이어서 59.3%, 즉 전체 응답자의 60% 가량이 이에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비용 부담 때문에’가 13.7%,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10.9%, 그리고 ‘미취학시기의 양육부담 때문에’가 8.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추가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각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수’의 충분성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라는 인상을 주나, 결국 ‘몇 명’이 충분한 자녀수인지에 대한 생각이 각 가구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

된다.

이에 가구 특성에 따라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라는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어머니의 연령, 총자녀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총자녀수가 많을수록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추가 출산을 계획 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500만원 이상 상대적 고소득 가구에서의 '자녀 수가 충분해서'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53.5%). 어머니의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모의 63.9%가 '자녀수가 충분해서' '더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취업모는 이러한 이유로 출산계획을 하지 않는 경우는 54.1%로 약 10%의 격차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는 곧 어머니도 취업한 맞벌이 가구일 가능성이 높는데, 역시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서는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라는 이유가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게 나타났고(14.3%), 취업모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추가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비율이 20.1%로 '자녀수가 충분해서'라는 이유의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가장 많게는 '이미 자녀수가 충분해서' 추가 출산계획을 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비, 미취학 자녀의 양육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꼽히고 있으나, '자녀수의 충분성'이라는 측면도 결국 각 가구의 가구경제수준, 일-양육의 양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성되는 인식일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미취학 자녀의 양육비 부담' 보다는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비 부담'이 추가출산을 계획하는데 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취학 자녀를 위한 교육비·보육료의 지원은 단시간에 크게 확대된 상황이어서 상위 30%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고, 누리과정 등의 전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속속들이 도입되고 실제 가정경제의 도움이 되는 등 정책 효과를 많이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비 부담, 특히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으로도 이어져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교육'에 대한 어떠한 대책 없이 우회적

인 방법으로는 다른 목적이 아닌 '출산률 증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3) 비용지원정책의 출산율 증진 효과: 미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누리과정 미이용 면담 사례들에 누리과정 비용지원과 같은 육아비용지원정책이 출산률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용지원정책의 출산률 증진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에서 비용 지원을 할 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 비용이 실제 필요한 육아비용에 비해 턱없이 적은 비용이라는 것도 이유이며, 취학전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의 교육비가 더 우려되는 부분으로 이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영유아의 양육 비용을 일부 지원받는 것이 자녀를 추가 출산할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기도 하지만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향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추가 출산을 하였을 때 현재 자녀에게 지출하고 있는 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부의 비용 지원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추가 출산을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용 지원을 해준다고 애를 더 낳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글썸...제가 다른 애들한테 쏟아부었던 지원만큼 나라에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사례 1)

주위에서 많이 들어봐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다는 것은(아닌 것 같아요)...선배들이 지금 들어가는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어릴 때 지원해주는게 다는...대학교 입학때까지 한달에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죠.금액을 더 높혀달라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아주 일부분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꼭 비용이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사례 2)

아이 키우는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여자들이 생각할 때 나의 인생도 중요한데 아이한테 너무 희생을 많이...거기에 교육비나 그런 것들이 도화선 역할을 하는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도 되게 중요한데, 나한테 쓸 돈도 없는데 애들 교육비도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사례 2)

그것은 좌우가 안돼요. 그 돈을 생각해 본 적은 한번도 없어요. 그거 때문에 낳아야지(하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사례 4)

출산장려 정책 나올때마다...너무 웃긴다...저는 일을 하면서 애를 낳고 키워봤기 때문에 애를 맡기고 일을 다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10만 20만원 준다고...오죽하면 제가 회사를 그만 뒀겠어요.(사례 6)

글쎄요...될까요? ...기본적인 교육비도 교육비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닐까요?(사례 8)

전혀 (출산을 증진에) 도움 안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전혀 도움 안될 것 같아요.(사례7)

다.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

1) 5세 누리과정 이용 가구

현재 5세 누리과정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영유아의 교육·보육과 관련한 정책방안 마련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질문하였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30.1%), '민간·사립기관 수업료·보육료 경감 및 질적수준 향상'(28.0%)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이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용을 지원 하는 정책들이 확대되어 비용 부담은 많이 경감되고 있으나, 부모들은 비용 지원이 있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의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질적 수준이 높은 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수준 향상'은 16.9%가 가장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도 역시 기관의 서비스 질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측면을 반영한다 하겠다.

변인별로 보면, 지역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공립유치원이 적은 대도시 거주 학부모는 국공립기관 확충을 희망하는 정책 최우선으로 꼽았지만, 중소도시 및 읍면거주 학부모는 민간·사립 기관의 비용 경감을 국공립확충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8〉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서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사항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역규모별			가구소득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국공립 기관 확충	30.1	33.2	27.4	28.8	29.8	29.8	30.3	30.4
민간사립 기관 비용 경감 등	28.0	26.4	29.7	28.2	26.0	30.2	27.5	28.0
교사 처우개선·자격수준향상	16.9	16.2	18.3	15.7	20.2	14.1	16.9	24.3
취업모·비취업모·별정책다양화	14.0	14.2	13.1	15.7	13.5	13.3	14.5	14.9
기관이용시간별 비용지원	7.0	7.9	6.9	5.1	6.7	8.1	7.0	3.4
기관 미이용 가구 비용지원	3.1	2.1	3.0	5.8	3.8	3.7	3.1	0.7
기타	0.8	-	1.6	0.6	-	0.8	0.7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29.39(12)**			18.64(14)			

** $p < .01$

또한 기관 이용 시간에 따른 비용 차등화, 미이용 가구에 대한 지원 확충, 취업모·비취업모에 따른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 마련 등 기관 이용에 집중되지 않은 등 다양한 측면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육아지원 정책 요구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통해 만 5세에 이르러서야 기관 이용을 시작한 집단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욕구를 지닌 집단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면담조사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나타나는데, 특히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지원을 받게 된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지원이 시행됨으로써 다니고 있는 기관에 잡무가 늘어나 정작 아이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교사의 역량이 분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교사 연수를 가시는 것도 있고 만약에 그 환급됩니다...그런거 알리는 것도 하나 하나 업무고...그런게 일이 늘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걱정됩니다).
(서울 재연이 엄마)

이밖에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른 정책의 다양화나 기관 이용시간 및 비용 차등적용 등 세부 정책 형태에 대한 요구가 약 21%정도 차지하고 있고, '미이용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선택한 경우는 3.1%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2) 5세 누리과정 미이용 사례

5세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은 비용지원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기 때문에, 이외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는지를 질문하였는 바,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가장 먼저, 자녀를 보내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수적 증가나 기관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사례들 중 일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고 일부는 이용을 고려하며 기관을 방문하며 살펴보았던 경험이 있는데 모두 현재의 사교육기관의 서비스 질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아이를 맡길만한 마음에 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드물고 그런 곳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고소득층에 대한 일률적 지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예산을 절약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시설 환경, 안전성 증진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일부 국공립 기관 외 전반적인 기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결국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것처럼 교육기관에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그런 것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보육시설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질적으로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사례 1)

우리나라가 아이들에 비해 선생님 인원이 너무 적어요....선생님이 하루종일 full로 애들한테 시달리죠...야외활동 같은데 가면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도 적지않게 일어나거든요.선생님이 부족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야외활동을 해야하고 선생님은 그러면 완전히 긴장인거예요.(사례 6)

(고소득층에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거잖아요....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조금 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쓰면 오히려 사교육부분도 더 줄어들 수 있고...(사례 8)

또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사례들은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입장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요구하였다. 법이나 규정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 차원에서의 배려와 사회적 인식 개선, 일률적인 근무 형태가 아닌 업무 성격에 맞는 유연근무제의 개발과 활용성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사회생활하는 엄마들...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그런 기관을 많이 만든다든가, 법적으로 무슨 사업체는 꼭 어린이집을 두어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더 확충이 많이 되면 아이들을 좀 더 많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사례 2)

실제로 직업현장에서는 직장다니는 엄마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전혀 없어요.(태풍 때문에) 교육청에서 휴교령을 내려서 학원이 안한다는 거예요.(새벽)6시 반에 문자가 온거예요...교사는 비상이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하는거예요...우리 애가 7세라 유치원을 안하고 애기 아빠도 출장이라 휴가를 쓸 수 없고 어떨하냐고 했더니...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라는 거예요....중학생도 등교할 때 위험하다 해서 휴교를 하는데, 7살 애를 같이 출근하라고 하면 애는 뭐가 될건가...너무 속상해서... 저는 그나마 4시반에는 퇴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 물어보니까 할머니 오시고 난리났더라구요.(사례 7)

탄력적으로 근무하는거 애기가 많이 나오잖아요....교사 사회에서만 해도 애기 낳고 일 년간 한 시간 먼저 퇴근하거나 한 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어요.법적으로...그거 사용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는게 담임을 다 맡겨 버려요. 그걸 사용할 수 없도록 업무를 줘버려요....업무가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이가 조금 더 커서 엄마 손을 덜 필요로 할 때가 되면 제가 수업시간을 더 늘려서 하거나...애기가 초등학교 가있는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집중적으로 수업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사례 7)

미이용 사례들의 공통된 의견 중 하나는 초등학교 등 취학 이후 정규교과과정 및 교과과정 운영상에 사교육을 조장하는 측면이 많으니 이를 개선하여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었다. 이들이 영유아 사교육의 대표적 사례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이는 곧 이들도 어린 자녀들마저 고가의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을 편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거나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사교육 시장에 맡겨두고 묵인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검토를 통해 받아들여 저소득계층에게도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애 많이 낳아라 사교육 시키지 말아라 할게 아니라...안배운 것을 시험에 내놓고 선행하지 말라고 그러고...엄마들은 미리 해야되는구나 이려고 미리 과외하고 학원(다니고)...(사례 6)

...정규 수업만으로 모든 게 다 평가되고 그러면 되는데...사실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그런 추세...(사례 8)

Ⅶ. 「5세 누리과정」 개선 방안

Ⅶ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5세 누리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정책홍보 측면

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홍보

정부가 「5세 누리과정」 정책을 2011년 5월에 발표했는데, 학부모는 처음 알게 된 시기로는 2011년 12월~2012년 1월 기간인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다. 중요한 정책이 정책 대상자에게 전달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것이다. 학부모의 기관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므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본 설문조사에서 처음 접하게 된 경로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서가 4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인 경우가 25.0%로 많았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전달을 위해 인터넷, SNS 등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자주 가는 장소(예: 소아과, 산부인과, 문화센터 등)에 홍보 책자를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68.3%로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26.2%보다 훨씬 많았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는 누리과정의 취지나 구체적인 교육·보육과정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정책 홍보를 위한 역할 수행 담당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늘 대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는 누리과정 정책 홍보를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 기관이다. 입학 설명회뿐 아니라 부모교육이나 학부모 상담 시, 누리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는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각되면서 교육·보육과정 내용 상의 홍보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학부모들과의 면담 결과, 정부의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아교육·보육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부모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누리과정의 비용지원에 대한 홍보는 앞서 제안한 매체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만큼, 교육·보육과정 내용 상의 홍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고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원장 및 교사대상 누리과정 연수 시 이에 대한 안내 또는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보육에 대한 홍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보육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5세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생활습관 강조’나 ‘창의·인성교육 강조’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부모 면담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특별활동이나 한글, 영어 등의 학습적인 면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해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선택 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고 심지어 이러한 측면을 충족시켜주는 기관을 좋은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원아모집을 위해 학부모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9월 26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선행학습 해소 대책 추진을 발표한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보육을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것을 제안한다.

2. 관리·감독 측면

가. 기타 경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상보육·교육 제공이라는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수업료나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들이 누리과정을 위한 지원으로 절감되는 금액을 상쇄하지 않도록 추가부담이 이루어지는 항목과 금액, 상승폭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 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부모로부터 건을 수 있는 데 항목과 내용, 수납주기 등을 「보육사업안내」에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99).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은 부모에게 수납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면담조사의 몇몇 사례를 통해 누리과정에서 지원하는 비용 지원만큼, 올해 일부 비용이 상승되거나 추가되어서 실제 비용 지원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작년에 비해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이 5~6천원 가량 상승하였다(작년과 동일 기관 이용 사례 기준).

정부가 비용 지원만큼 절감되는 비용을 다른 비용이나 항목을 추가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관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 오전 정규 시간대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점검

「5세 누리과정」 운영 지침서에 따르면, 「5세 누리과정」은 오전 정규교육시간 대에 실시하며,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오후에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본 설문조사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본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 ‘작년과 올해 모두 오전에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의 응답이 44.3%로 가장 많이 왔다. 학부모의 응답이라 ‘잘 몰라서’ 또는 ‘잘못된 답’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의무 운영은 기관 내 협의를 통해 폐지 유도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이 없이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의무이용의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이는 부모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할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기관 이용 비용을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다. 또, 의무 이용이 높을수록 오전 정규시간대에 이를 운영할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그러나 기관장 입장에서는 부모의 요구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의견도 많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서 오전 정규 시간대에는 '5세 누리과정'을 충실히 실시하고, 정규시간 이후에는 학부모의 '자발적' 선택으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부모 간의 협의과정을 통해 운영 시스템을 정착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라. 「5세 누리과정」 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설문조사에서 「5세 누리과정」의 최우선 개선점으로 '창의인성을 기르는 기초교육 강화' 27.9%로 가장 많이 나왔지만, 다음을 차지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도 25.7%로 거의 비슷한 응답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면접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부모들은 더 많이 요구하였다. 부모들은 취학 1년 전인 만큼 「5세 누리과정」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긴밀한 연계를 희망하였다. 예를 들어, 취학 전에 한글을 익히고 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시적'으로 가르치지를 않아서 사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5세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공통과정이 있지만,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체계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부모 대상 '5세 누리과정'의 교육·보육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지 등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5세 누리과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연계 내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비용지원 측면

가. 모든 계층을 지원하되, 균등지원보다는 차등지원이 더 타당함

설문조사에서 월 20만원 비용지원으로 절약된 금액의 주 사용처가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월 200만원 미만 가구는 가족 생활비가 62.7%라면, 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는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라는 응답이 55.9%로 가장 많았다. 「5세 누리과정」을 통해 사실상의 10년의 의무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비용지원을 하되 금액은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면담조사에서도 가구소득별로 원하는 육아지원정책이 달랐다. 저소득층은 가구지원을 희망했지만, 중산층 이상은 가구지원보다는 자녀가 더 나은 기관에서 교육·보육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인건비 지원을 더 원했으며, 월 소득 1000만원 이상의 최상층 가구는 가구지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처럼 모든 계층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은 재정 투입 대비 어느 계층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모든 계층에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모든 계층에게 지원하되,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을 제안한다.

나. 기관 간의 이용 비용 격차 완화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기관 간의 이용 비용 격차를 좁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비용격차는 4배 차이로서, 간극을 조정내지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국공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경우, 사립유치원(또는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비용은 국공립 기관을 다니는 경우와 동일하게 지불하게 하고, 나머지 차액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는 중국 상해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다. 「5세 누리과정」을 통한 취학 1년 전 실질적인 무상 교육·보육 실현 주력

정부는 올해 월 20만원을 시작으로 2014년 월 24만원, 2016년 월 30만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비용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취학 1년 전 무상 교육·보육을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만 5세아의 무상 교육·

보육에 대해 88.4%라는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그러나 '3, 4세 누리과정' 시행에 대해서는 63.5%만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3, 4세 누리과정'을 찬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3, 4세는 보편화된 형식적인 교육을 받기에는 아직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지원 연령을 무조건 확대하기 보다는 취학 1년 전인 만 5세 유아에 정책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무상 교육·보육을 완결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의미있는 정책일 수 있다.

만 5세아의 무상 교육·보육을 완비해 나가는 방안 중에 하나로,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그렇지 않아서 급식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으므로,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유치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처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라. 지역별·가구소득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추진하여 학부모의 실질적인 기관 선택권 보장

가장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국공립 기관 확충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지역별·가구소득별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을 달랐다. 대도시 거주 가구 및 월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국공립 기관 확충을 가장 원했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저렴하고 신뢰하는 기관이 대도시에는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면담조사에서 국공립은 대기자가 많아서 입학이 어렵기도 하지만, 집주변에 없는 동네가 많아서 학부모들은 국공립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처음부터 없었다.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 거주가구, 월 200~300만원 가구는 국공립확충보다는 민간·사립 기관의 비용절감과 질적 제고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비해 집주변에 국공립 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보다는 민간·사립유치원 기관을 보내고 싶으나 비용부담으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육아지원정책은 지역에 따라, 가구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국공립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도시에는 국공립 기관을 확충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은 민간·사립 기관의 이용 부담을 절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국무총리·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1. 5. 2). 보도자료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 교육과학기술부(2012). 5세 누리과정 리플렛
-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1. 12).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 리플렛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연구소(2011). 유아교육·보육 주요 통계.
- 이윤진·문무경·김문정·양시내(2009).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최은영·김문정(2012). 지역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매뉴얼: 유치원 혼합반용. 교육과학기술부.
- 이윤진·장명림·김문정·김혜원(2010). 유아 외국어 교육의 실태와 대책.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 3.
- 통계청(2007-2012). 주민등록인구통계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2007-2012). 교육통계연보.

Abstract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Nuri Curriculum for Children aged 5” and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its Implementation

Yun-Jin Lee Jeongwon Lee Moonjeong Kim

The study proposed a plan for policy improvement of the ‘Nuri Curriculum for 5-year-olds’, which was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nvolved 1,605 parents who have 5 year old children and, use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the number of kindergarten users: 1,015, the number of childcare center users: 590) across the whole country (except Jeju Island). According to the sampling, the number of people whose children attend the same institution as they did last year is 1,079(67.3%), the number of people whose children attend a different institution from the one they attended last year is 383(23.9%), while 143(8.9 %) were parents of children attending an institution for the first time. 94.5% of all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Nuri Curriculum for 5-year-olds’, and December, 2011 ~ January 2012 was the period in which 36.7% of people found out about the Nuri curriculum, and this was the highest proportion. Also, 49.9% of people learned about the institution through ‘word of mouth’ and this was the highest ratio. The monthly mean cost of using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decreased by 90,000 won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uri Curriculum for 5-year-olds’ (Prior to the Nuri curriculum the monthly mean cost was 200,000 and afterwards it was 110,000 won). The cost of attending national kindergartens was 43,000 won, which was the cheapest, while the cost of attending private kindergartens was 163,000 won, which was the most expensive.

88.4% of people approved of the ‘Nuri curriculum for 5-year-olds’ and 94.9% of people responded that the curriculum has a positive impact on their

household finances because it adds 200,000 won to their budget every month. However, the overall costs of the various typ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have increased since last year. Moreover, households in metropolitan areas and households which receive a large income (more than 5,000,000 won per a month) often used the allowance, 200,000won, for their children's extracurricular education.

In terms of policy changes which participants hope will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parents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stated that they would like to see an expansion of public institutions, while parent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rural areas reported that a reduction of the tuition fees of private institutions would be of most benefit to them. In addition, since many households that receive large incomes used the allowance of 200,000 won for extracurricular education, a differentiated policy based on the region in which recipients live and their household income is now required.

부 록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면담조사 질문지

부록 3. 표본추출표

부록 4. 응답률과 협조율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ID -

5세 누리과정 이용실태 및 요구 조사																										
<p>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리서치연구소 면접원 ○○○입니다.</p> <p>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p> <p>본 연구소는 만 5세 유아의 사실상의 의무교육을 위해 도입한 「5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5세 누리과정」으로 비용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기관의 이용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p> <p>올해가 「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첫 해인 만큼, 「5세 누리과정」을 처음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귀하의 의견 하나하나가 「5세 누리과정」안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면 됩니다.</p> <p>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style="width: 45%;"> <p>조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동향분석연구실</p> <p>조사대행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p> </div> <div style="width: 45%;"> <p>담당연구원 김문정 연 락 처 02)398-7719</p> <p>담당연구원 이민영 실사연구원 김주연 연 락 처 02)3218-9662</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p style="margin-top: 10px;"><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p> <p>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background-color: #ffe0e0; padding: 5px; margin-top: 10px;"><설문 작성 방법></p> <p>1) 설문 내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보기번호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해주거나 <input type="checkbox"/> 빈칸에 내용을 기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25%;">지역코드</th> <th style="width: 60%;">지역</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 현황</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text"/><input type="text"/><input type="text"/><input type="text"/></td> <td> <input type="checkbox"/>1) 서울 <input type="checkbox"/>2) 부산 <input type="checkbox"/>3) 대구 <input type="checkbox"/>4) 인천 <input type="checkbox"/>5) 광주 <input type="checkbox"/>6) 대전 <input type="checkbox"/>7) 울산 <input type="checkbox"/>8) 경기 <input type="checkbox"/>9) 강원 <input type="checkbox"/>10) 충북 <input type="checkbox"/>11) 충남 <input type="checkbox"/>12) 전북 <input type="checkbox"/>13) 전남 <input type="checkbox"/>14) 경북 <input type="checkbox"/>15) 경남 </td> </tr> <tr> <td>지역 구분</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1) 대도시 <input type="checkbox"/>2)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3) 군지역(읍면동 포함) </td> </tr> <tr> <td>가구주소</td> <td>시/도</td> <td> 군/구 읍/면/동 상세주소(※번지까지 기입) </td> </tr> <tr> <td rowspan="2">면접상황</td> <td>면접일시</td> <td>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약 _____ 분간)</td> </tr> <tr> <td>면접원 성명</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25%;">수퍼바이저</td> <td style="width: 25%;">검증</td> <td style="width: 25%;">에디팅</td> <td style="width: 25%;">코딩</td> </tr> </table>							지역코드	지역	지역 현황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1) 서울 <input type="checkbox"/> 2) 부산 <input type="checkbox"/> 3) 대구 <input type="checkbox"/> 4) 인천 <input type="checkbox"/> 5) 광주 <input type="checkbox"/> 6) 대전 <input type="checkbox"/> 7) 울산 <input type="checkbox"/> 8) 경기 <input type="checkbox"/> 9) 강원 <input type="checkbox"/> 10) 충북 <input type="checkbox"/> 11) 충남 <input type="checkbox"/> 12) 전북 <input type="checkbox"/> 13) 전남 <input type="checkbox"/> 14) 경북 <input type="checkbox"/> 15) 경남	지역 구분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3) 군지역(읍면동 포함)		가구주소	시/도	군/구 읍/면/동 상세주소(※번지까지 기입)	면접상황	면접일시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약 _____ 분간)	면접원 성명		수퍼바이저	검증	에디팅	코딩
	지역코드	지역																								
지역 현황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1) 서울 <input type="checkbox"/> 2) 부산 <input type="checkbox"/> 3) 대구 <input type="checkbox"/> 4) 인천 <input type="checkbox"/> 5) 광주 <input type="checkbox"/> 6) 대전 <input type="checkbox"/> 7) 울산 <input type="checkbox"/> 8) 경기 <input type="checkbox"/> 9) 강원 <input type="checkbox"/> 10) 충북 <input type="checkbox"/> 11) 충남 <input type="checkbox"/> 12) 전북 <input type="checkbox"/> 13) 전남 <input type="checkbox"/> 14) 경북 <input type="checkbox"/> 15) 경남																								
지역 구분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3) 군지역(읍면동 포함)																									
가구주소	시/도	군/구 읍/면/동 상세주소(※번지까지 기입)																								
면접상황	면접일시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약 _____ 분간)																								
	면접원 성명																									
수퍼바이저	검증	에디팅	코딩																							

<SQ1> 귀하의 자녀는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설문중단**

<SQ2> 그렇다면, 귀하의 자녀는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5세 누리과정」대상 아동입니까?

- 1) 예 2) 아니오 **설문중단**

<SQ3> 「5세 누리과정」대상인 귀댁의 자녀가 올해(2012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2회 이상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17페이지 응답자 현황으로** 2) 아니오

<SQ4> 귀 댁에 대해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명

<SQ5> 귀 댁의 가족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 1) 부부+자녀 2) 한부모+자녀 3) 조부모+부부+자녀 4) 조부모+한부모+자녀
 5) 조부모+자녀 6) 친인척+자녀 7) 기타

<SQ6> 귀하와 자녀와의 관계는 다음 보기 중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 1) 부 2) 모 3) 조부 4) 조모 5) 기타

※ Q1~Q4은 「5세 누리과정」 대상인 귀댁 자녀(이하, 해당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설문지를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생각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Q1. 출생년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Q2.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Q3. 형제관계	총 <input type="text"/> 자녀 중, <input type="text"/> 번째 자녀
Q4.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간 외 낮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부 <input type="checkbox"/> 2) 모 <input type="checkbox"/> 3) 아이의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4) 부모의 형제자매(고모, 이모) <input type="checkbox"/> 5)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6) 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7) 비혈연 <input type="checkbox"/> 8) 없음(혼자 지냄)

※ Q5~Q10는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지도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면접원] '5세 누리과정'이란 취학전 1년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아동에게 보편적인 교육/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공통의 과정'으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3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음

Q5. 귀하께서는 「5세 누리과정」 시행 전(2012년 3월 이전)에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1)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 2) 들어는 보았으나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 3) 전혀 알지 못했다

Q6. 현재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5세 누리과정」에 대해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만 5세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공통과정이다
- 2) 취학 1년 전(만 5세 유아)만 해당되는 정책이다
- 3)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 4) 학원(유아대상 영어학원 또는 놀이학교)을 다니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 5)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6)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저출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 7) 기타 -> 구체적으로

Q7. 귀하가 「5세 누리과정」을 처음 알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 1) 2011년 5월(정부의 보도자료 발표부터)
- 2) 2011년 6월~8월(작년 여름 무렵)
- 3) 2011년 9월~11월(작년 가을 무렵)
- 4) 2011년 12월~2012년 1월(작년 겨울 ~ 올해 초 무렵)
- 5)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오리엔테이션(2012년 2~3월)
- 6) 기타

Q8. 귀하는 「5세 누리과정」을 어떤 경로로 처음 접하게 되셨습니까?

- 1) 주변 사람들(친인척, 친구, 이웃, 주위 학부모 등)을 통해
- 2)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 3) 인터넷 기사를 통해
- 4)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커뮤니티를 통해
- 5) 신문/잡지/책 등을 통해
- 6) 홍보물(정부간행 리플렛) 등을 통해
- 7) 이번 설문지를 통해
- 8) 기타

Q9. 귀하는 「5세 누리과정」 시행 전(2012년 3월 이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 Q10으로
-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 Q11로
 - 3) 기타 → Q11로

Q10.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공통과정입니다. 귀하는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5세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차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이용경험이 없으셔도 귀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생각으로만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 1)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해 두 기관의 교육/보육과정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 2) 5세 누리과정 시행과 무관하게 두 기관의 교육/보육과정 차이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 3) 기타

※ Q11~Q15은 귀하의 해당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면접원] 설문지 상의 「기관」이란?
: 해당 자녀가 하루 3시간 이상, 주 3회 이상, 한 달 이상 이용한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놀이학교, 영아학원 등)만 해당이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Q11. 기관형태	<input type="checkbox"/> 1) 어린이집 → Q12로 <input type="checkbox"/> 2) 유치원 → Q13으로
Q12. 어린이집 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2) 민간 <input type="checkbox"/> 3) 가정 <input type="checkbox"/> 4) 법인 <input type="checkbox"/> 5) 부모협동 <input type="checkbox"/> 6) 직장
Q13. 유치원 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립 <input type="checkbox"/> 2) 공립단설 <input type="checkbox"/> 3) 공립병설 <input type="checkbox"/> 4) 사립
Q14. 기관 평균 이용시간	하루 평균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시간
Q15. 현재 기관 이용 시기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월부터 ~현재까지

Q16. 현재 귀댁의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 1) 원장 | 2) 교사 | 3) 운영시간 | 4) 비용 |
| 5) 프로그램 | 6) 건강·영양(급간식 등) | 7) 시설규모(아동수) | 8) 실내외 환경 |
| 9) 안전한 환경 | 10) 집과의 거리 | 11) 국공립 여부 | |
| 12) 평가인증 통과 및 평가 실시 여부 | 13) 주변의 평판 | 14) 기타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

1순위	2순위

Q17. 귀댁의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이용 행태는 어떠합니까?

[면접원] 이용 기관 : **하루 3시간 이상, 주 3회 이상, 한 달 이상** 이용한 **어린이집, 유치원**
 3)보기 응답자의 경우, 올해 기관 이동 경험 횟수 확인 → 1회일 경우 질문 계속
 → 2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17페이지 [응답자 현황]**으로 이동
 기관 이동 경험 : 어린이집 → 유치원, 유치원 → 어린이집, 유아대상 학원 →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변경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 어린이집, 유치원 → 유치원과 같은 동일기관 변경도 해당 됩니다.

- 1) 태어나서 올해(2012년) 처음 기관을 이용한다 → **Q18로, A part, 5페이지**
- 2) 2011년부터 현재와 동일한 기관을 다니고 있다 → **Q25로, B part, 7페이지**
- 3) 2011년에도 기관을 다닌 적이 있으나, 올해(2012년) 기관을 변경하였다 → **Q36으로, C part, 10페이지**

A Q18~Q24는 귀하의 해당 자녀가 올해(2012년) 처음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Q17. 1) 응답자만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Q18. 지금까지 귀댁의 자녀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보낼만한 기관이 주변에 없어서
- 2) 보내기에는 비용부담이 커서
- 3) 취학 전에는 기관보다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더 바람직해서
- 4) 기관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5) 기관을 보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 6) 보내려고 했으나 아이가 기관에 적응하지 못해서
- 7)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 8) 보내고 싶었던 기관에 자리가 없어서
- 9) 기타 -> 구체적으로

Q19. 귀하는 올해 자녀가 만5세가 되는 시기에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육아가 힘들어서
- 2) 아이에게 또래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 3) 부모의 취업(복직)으로
- 4)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 5) 기관을 이용하면 비용지원을 받아서/이용 부담이 없어서
- 6) 다른 아이들도 다 보내기 때문에
- 7)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 8)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월 20만원 지원을 받게 되어서
- 9) 보내고 싶었던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 10) 기타 -> 구체적으로

Q20. 만약,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월 20만원 비용지원이 없었더라도 올해 기관에 보낼 계획이셨습니까?

- 1) 비용지원이 없었더라면, 기관에 보내지 않을 계획이었다
- 2) 비용지원과 무관하게 취학 1년 전은 보낼 계획이었다

Q21. 귀하께서 올해(2012년) 기관에 지불하고 있는 순수 보육료 및 수업료는 매달 어느 정도 입니까? 만약, 지불항목별로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공란)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경우는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면접원] 지불금액 작성 시,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한 월 20만원은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도록 보조 설명을 할 수 있음

- * 2012년도 기본보육료·수업료는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한 월 20만원 지원을 제외하고 적어주십시오.
- * 년 1회 또는 분기별로 내는 경우는 월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지불 항목	지불 금액
1. 기본 보육료·수업료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2. 현장학습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3. 교재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4. 급/간식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5. 종일반 (방과후 과정 비용)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6. 차량 운행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7. 행사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8. 총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Q22. 올해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특성화(특별활동)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Q23. 그렇다면, 프로그램 과목별로 월평균 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 * 년 1회 또는 분기별로 내는 경우는 월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Q24. 그렇다면, 프로그램 과목별 선택가능 여부는 어떠합니까?

프로그램 과목	Q22. 이용여부		Q23. 지불 금액	Q24. 부모선택여부	
	1) 이용 안함	2) 이용함		1) 선택가능	2) 무조건 이용
1. 미술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음악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체육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과학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수학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한글(국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한자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기타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기타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총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 Q42로 이동해 주세요.

B. Q25~Q35는 귀하의 해당 자녀가 2011년 부터 현재와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Q17. 2) 응답자만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Q25. 해당 자녀는 지금까지 기관을 변경하지 않고, 현 기관만을 이용해 왔습니까?

- 1) 예 2) 아니오

Q26. 귀하께서는 이 기관을 이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육아가 힘들어서
 2) 아이에게 또래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3) 부모의 취업(복직)으로
 4)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5) 기관을 이용하면 비용지원을 받아서/이용 부담이 없어서
 6) 다른 아이들도 다 보내기 때문에
 7) 보내고 싶었던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8) 기타 -> 구체적으로

Q27. 귀하께서는 올해(2012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 1) 옮길 계획이 있었다 2) 옮길 계획이 없었다 → Q31으로

Q28로

Q28. 기관을 옮기실 계획이었다면, 어느 기관으로 옮기실 계획이셨습니까?

Q28-1. 변경하고자한 기관형태	<input type="checkbox"/> 1) 어린이집 → Q28-2로 <input type="checkbox"/> 2) 유치원 → Q28-3로 <input type="checkbox"/> 3) 유아대상 학원(놀이학교, 영어학원 등) → Q29로
Q28-2. 어린이집 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2) 민간 <input type="checkbox"/> 3) 가정 <input type="checkbox"/> 4) 법인 <input type="checkbox"/> 5) 부모협동 <input type="checkbox"/> 6) 직장
Q28-3. 유치원 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립 <input type="checkbox"/> 2) 공립단설 <input type="checkbox"/> 3) 공립병설 <input type="checkbox"/> 4) 사립

Q29. 기관을 옮기실 계획이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2) 새로운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접하게 하고자
 3) 비용 부담/비용이 비싸서
 4) 원장 또는 교사가 바뀌어서
 5) 자녀의 친한 친구가 옮겨서
 6) 보내고 싶었던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7) 시설·설비가 더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8) 이용시간이 편한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예: 일찍 또는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관)
 9) 기타 -> 구체적으로

Q30. 귀하께서는 기관을 옮길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2012년) 기관을 변경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 2)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육/보육과정 차이가 없어서
- 3)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월 20만원 지원을 받게 되어서
- 4) 보내려고 했던 기관에 자리가 안 나서
- 5) 보내려고 했던 기관의 비용이 너무 비싸서(지금 이용 기관과 비교해서)
- 6) 현 기관에서 계속 재원할 것을 요청해서
- 7) 기타 -> 구체적으로

Q31. 귀하께서는 기관을 변경하지 않고 현 기관을 작년(2011년)과 동일하게 계속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초등학교 준비를 하기 적절하다 생각해서
- 2) 새로운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서
- 3) 비용 부담이 없어서
- 4) 원장 또는 교사의 자질에 만족해서
- 5) 자녀의 친한 친구가 다니고 있어서
- 6) 주변에 보낼만한 다른 기관이 없어서
- 7) 타 기관 대비 시설·설비가 좋아서
- 8) 편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서(예: 일찍 또는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관)
- 9) 기타 -> 구체적으로

Q32. 귀하께서 작년(2011년)과 올해(2012년) 기관에 지불하고 있는 순수 보육료 및 수업료는 매달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지불항목별로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공란)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경우는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면접원] 지불금액 작성 시,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한 월 20만원은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도록 보조 설명을 할 수 있음

* 2012년도 기본보육료/수업료는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한 월 20만원 지원을 제외하고 적어주십시오.
 * 년 1회 또는 분기별로 내는 경우는 월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지불 항목	2011년	2012년
1. 기본 보육료/수업료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2. 현장학습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3. 교재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4. 급/간식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5. 중일반 (방과후 과정 비용)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6. 차량 운행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7. 행사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8. 총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Q33. 이용하고 계신 기관의 작년(2011년)과 올해(2012년) 특성화(특별활동)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Q34. 그렇다면, 작년(2011년)과 올해(2012년) 프로그램 과목별로 월평균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 년 1회 또는 분기별로 내는 경우는 월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Q35. 그렇다면, 프로그램 과목별 선택가능 여부는 어떠합니까?

[2011년]

프로그램 과목	Q33-1.이용여부		Q34-1. 2011년	Q35-1. 부모선택여부	
	1) 이용 안함	2) 이용함		1) 선택 가능	2) 무조건 이용
1. 미술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음악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체육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과학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수학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한글(국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한자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기타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기타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총계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2012년]

프로그램 과목	Q33-2.이용여부		Q34-2. 2012년	Q35-2. 부모선택여부	
	1) 이용 안함	2) 이용함		1) 선택 가능	2) 무조건 이용
1. 미술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음악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체육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과학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수학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한글(국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한자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기타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기타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총계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 Q42로 이동해 주세요.

C. Q36~Q41은 귀하의 5세 자녀가 2011년에도 기관을 다닌 적이 있으나, 올해(2012년) 기관을 변경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Q17. 3) 응답자만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Q36. 귀하는 올해(2012년) 지금의 기관으로 변경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 2) 새로운 교육/보육프로그램을 접하게 하고자
- 3) 월 20만원 지원을 받게 되면서 기관을 옮기는 게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므로
- 4) 월 20만원 지원을 받게 되면서 원했던 기관으로 옮길 수 있어서
- 5)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육/보육과정 차이가 없어서
- 6) 자녀의 친한 친구가 옮겨서
- 7) 보내고 싶었던 기관이었는데 마침 연락이 와서
- 8) 이전 기관에서 자녀가 잘 적응하지 못해서
- 9) 원장 또는 교사가 바뀌어서
- 10) 기타 -> 구체적으로

Q37.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으로 변경하기 바로 직전에 이용했던 기관은 무엇입니까?

Q37-1. 기관형태	<input type="checkbox"/> 1) 어린이집 → Q37-2로 <input type="checkbox"/> 2) 유치원 → Q37-3으로 <input type="checkbox"/> 3) 유아대상 학원(놀이학교, 영어학원 등) → Q38로
Q37-2. 어린이집 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2) 민간 <input type="checkbox"/> 3) 가정 <input type="checkbox"/> 4) 법인 <input type="checkbox"/> 5) 부모협동 <input type="checkbox"/> 6) 직장
Q37-3. 유치원 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립 <input type="checkbox"/> 2) 공립단설 <input type="checkbox"/> 3) 공립병설 <input type="checkbox"/> 4) 사립

Q38. 귀하께서 변경 전후 기관에 지불한(지불하고 있는) 순수 보육료 및 수업료는 매달 어느 정도 입니까?

만약, 지불항목별로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공란)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경우는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면접원] 지불금액 작성 시,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한 월 20만원은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도록 보조 설명을 할 수 있음

- * 2012년도 기본보육료/수업료는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한 월 20만원 지원을 제외하고 적어주십시오.
- * 년 1회 또는 분기별로 내는 경우는 월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지불 항목	현재 이용 기관 직전에 이용한 기관(Q37)	현재 이용 기관
1. 기본 보육료/수업료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2. 현장학습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3. 교재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4. 급/간식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5. 종일반 (방과후 과정 비용)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6. 차량 운행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7. 행사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8. 총계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월 평균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원

- Q39. 변경 잔후 기관에서 이용한(이용하고 있는) 특성화(특별활동)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Q40. 그렇다면, 현재 이용 기관 직전에 이용한 기관과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과목별 월평균 비용은 어느 정도 인니까?
 * 년 1회 또는 분기별로 내는 경우는 월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Q41. 그렇다면, 변경 잔후 기관의 프로그램 과목별 선택가능 여부는 어떠합니까?

[현재 이용 기관 직전에 이용한 기관 Q37]

프로그램 과목	Q39-1. 이용여부		Q40-1. 현재 이용 기관 직전에 이용한 기관(Q37)	Q41-1. 부모선택여부	
	1) 이용 안함	2) 이용함		1) 선택 가능	2) 무조건 이용
1. 미술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음악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체육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과학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수학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한글(국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한자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기타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기타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총계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현재 이용 기관]

프로그램 과목	Q39-2. 이용여부		Q40-2. 현재 이용 기관	Q41-2. 부모선택여부	
	1) 이용 안함	2) 이용함		1) 선택 가능	2) 무조건 이용
1. 미술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음악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체육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과학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수학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한글(국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한자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기타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기타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총계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 Q42로 이동해 주세요.

※ 다음 문항부터는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Q42~Q50은 귀하의 5세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5세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지를 잘 읽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2. 다음 중 해당 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언제 실시했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1) 원아모집 설명회 2) 입학식 3) 부모교육(부모대상 집합교육)
- 4) 부모상담 5) 별도의 5세 누리과정 설명회 6) 부모교육 책자 등 관련 안내문
- 7) 기타 8) 잘 모르겠음 9) 실시하지 않음 → **Q44로**

Q43. 해당 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에 관해 원장이나 교사가 설명한 내용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모두 매월 20만원 지원을 받는다
-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만 5세 유아는 공통의 과정으로 배우게 된다
- 3) 「5세 누리과정」이 이전의 유치원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과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000이다
- 4)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작년과 다르게 본 기관에서 운영할 교육/보육과정은 0000이다
- 5) 「5세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연계 교육/보육과정이다
- 6) 매월 2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카드나 아이즐거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7) 기타 -> 구체적으로

Q44. 다음은 「5세 누리과정」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까?

Q45.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서는 교육/보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44. 인식여부	Q45. 기관에서의 반영정도
「5세 누리과정」 주요 목표	1) 잘 알고 있음 → 2)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3) 잘 모름 ↓	1) 매우 많이 반영하고 있음 2) 약간 반영하고 있음 3)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음 4)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음
1. 기본생활습관 강조		
2. 창의인성교육 강조		
3.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Q46. 매월 또는 매주 기관에서 배포하는 월간 및 주간계획안에 「5세 누리과정」에 관해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1) 「5세 누리과정」 관련 내용이 월간 및 주간계획안에 잘 반영되어 있다
- 2) 「5세 누리과정」 관련 내용이 월간 및 주간계획안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 3) 잘 모르겠다

◎ 2011년부터 현재와 동일한 기관을 다니고 있는 경우(Q17. 2)

Q47. 「5세 누리과정」시행으로 인해 이용하는 기관의 교육/보육 내용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1) 작년과 비교해서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한 교육/보육의 내용 변화는 거의 없다 → **Q50으로**
- 2) 작년과 비교해서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한 교육/보육의 내용 변화가 조금 있다
- 3) 「작년과 비교해서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한 교육/보육의 내용 변화가 크게 달라졌다
- 4) 「작년과 비교해서 교육/보육과정이 변화는 있지만, 「5세 누리과정」 이라기보다는 만4세에서 만5세로 올라가면서 내용이 변화(심화)된 것 같다 → **Q50으로**
- 5) 잘 모르겠다 → **Q50으로**

Q48로

◎ Q47에서 2), 3) 응답자만

Q48. 「5세 누리과정」시행으로 교육/보육의 내용 변화를 느끼고 계신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Q47에서 2), 3) 응답자만

Q49. 「5세 누리과정」시행으로 교육/보육의 내용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 4) 만족 5) 매우 만족

◎ Q50은 모두 응답

Q50. 영어나 기타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오전 정규시간대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 1)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오전 시간대에 영어 및 기타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2)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오전 시간대에 영어 및 기타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다
- 3)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오전 시간대에 영어 및 기타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4) 작년에도 올해도 오전에 영어 및 기타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다
- 5) 잘 모르겠다

Q51~Q65는 귀하의 만 5세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정부의 육아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지를 잘 읽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1. 「5세 누리과정」도입과 함께 정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만 5세유아의 교육/보육비 월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지원은 귀하의 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 1) 매우 도움됨 2) 조금 도움됨 3) 별로 도움 안됨 4) 전혀 도움 안됨

Q52. 귀하께서는 「5세 누리과정」으로 월20만원을 지원받음으로써 절약된 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 1) 가족 생활비
 2) 해당 자녀 사교육비
 3) 다른 자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비
 4) 다른 자녀 사교육비
 5) 저축
 6) 기타 -> 구체적으로

Q53.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하여 해당 자녀의 사교육 종류 및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은 제외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접원] 사교육 :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육 과정,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외한 학습지,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 이용

	Q53-1 사교육 종류	Q53-2 사교육 비용
2011년	_____ 개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원
2012년	_____ 개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원

Q54. 다음 중 「5세 누리과정」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을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 카드발급 등 지급 절차 개선
 2) 취학 전 공통과정인 만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3) 취학 전 공통과정인 만큼 창의인성을 기르는 기초교육 강화
 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5세 누리과정」 운영 평가 강화
 5) 가구(부모) 지원보다는 기관의 질 개선을 위한 우선 지원
 6) 보육료/수업료 분기별 납부 기관인 경우 현재 월별 지원 개선 필요
 7) 기타 -> 구체적으로
 8) 없음

Q55. 정부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만 5세에게 사실상의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찬성하십니까?

- 1) 예 → **Q57로** 2) 아니오 → **Q58으로** 3) 잘 모르겠음 → **Q57로**

Q56. 다음 중 「5세 무상교육/보육」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만 5세는 보편화된 형식적인 교육/보육을 받기에는 아직 어리다
 2) 현실적으로 기관마다 질적인 수준이 다르므로 동질의 교육/보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상교육/보육이라고 할 수 없다
 4)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의 기관에 대한 부모의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
 5)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므로 찬성하지 않는다
 6) 기타 -> 구체적으로

◎ Q57은 모두 응답

Q57. 정부는 내년부터 「3, 4세 누리과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3, 4세 누리과정」이란 「5세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만 3~4세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시, 공통과정을 배우며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1) 알고 있다 2) 모른다

Q58. 이러한 취지의 「3, 4세 누리과정」에 찬성하십니까?

[면접점] 「3,4세 누리과정」: 대한민국의 모든 만 3~4세 아동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시, 공통과정을 배우며 소득과 상관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

- 1) 예 → **Q60으로** 2) 아니오 → **Q59로** 3) 잘 모르겠음 → **Q60으로**

Q59. 다음 중 「3, 4세 무상교육」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만 3, 4세는 보편화된 형식적인 교육을 받기에는 아직 어리다
 2) 현실적으로 기관마다 질적인 수준이 다르므로 동질의 교육/보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상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4)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의 기관에 대한 부모의 선택이 제한되므로 찬성하지 않는다
 5)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므로 찬성하지 않는다
 6) 기타 -> 구체적으로

◎ Q60은 모두 응답

Q60. 귀하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인 자녀가 작년(2011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시 비용지원을 받았습니까? (비용지원에는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교육, 둘째아 이상 지원 등 모두 포함됨)

- 1) 받았음
 2) 받지 않았음
 3) 해당없음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Q61. 귀하는 다음의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을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 가정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며, 추가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 5세 누리과정 대상 자녀뿐 아니라 다른 자녀도 포함됨

[면접원] 육아지원정책 보기가드 제시

	구 분			
	Q61-1 인지	Q61-2 수혜경험	Q61-3 가정경제 도움	Q61-4 추가 출산에 미친영향
<보기 문항>	1) 잘 알고 있음 → 2) 대략 알고 있음 → 3) 잘 모름 ↓	1) 현재 받음 → 2) 과거 받은 경험 있음 → 3) 한 번도 받지 않음 ↓	1) 많이 도움됨 2) 어느 정도 도움됨 3) 별 도움이 안됨 4) 전혀 도움 안됨	1) 매우 큼 2)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침 3) 별 영향이 없음
1. 소득계층별 보육료/수업료 감면				
2. 어린이집 미이용 0~2세 양육수당				
3. 지방정부수당 (출산장려금 등)				
4. 고운맘 카드				
5. 장애아 무상보육/교육				

Q62.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1) 예 → **Q63으로** 2) 아니오 → **Q64로** 3) 잘 모르겠음 → **Q65로**

◎ Q62에서 1) 응답자만

Q63.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5세 누리과정」정책과 같이 정부의 출산·육아비용지원정책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 1) 비용지원정책과 상관없이 추가 출산을 할 계획이었다
 2) 추가 출산 계획이 없었는데 비용지원정책으로 낳기로 생각이 바뀌었다

◎ Q62에서 2) 응답자만

Q64. 다음 중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미취학 시기(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2) 초등학교 이후 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3)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4)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5) 건강이 안 좋아서
 6) 나이가 많아서
 7) 기타 -> 구체적으로

◎ Q65는 모두 응답

Q65. 다음 중 현재 정부가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 2) 민간·사립기관의 수업료·보육료 경감 및 질적 수준 향상
- 3) 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수준 향상
- 4)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따른 육아지원정책의 다양화
- 5) 기관의 이용시간 다양화 및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차별화
- 6) 기관 미이용 가구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
- 7) 기타 -> 구체적으로

※ 다음은 부모 및 가구에 대해 몇가지 여쭙보겠습니다.

	부	모
DQ1. 부모의 연령	만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세	만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세
DQ2. 부모의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2) 전문(2~3년)대졸 <input type="checkbox"/> 3) 4년제 대졸 <input type="checkbox"/> 4) 대학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1) 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2) 전문(2~3년)대졸 <input type="checkbox"/> 3) 4년제 대졸 <input type="checkbox"/> 4) 대학원 이상
DQ3. 부모의 직업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DQ3. 보기문항> <보기카드 제시>	1) 관리자 2) 전문직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관련 종사자 9) 전업주부 10) 학생 11) 무직 12) 기타	
DQ4. 가구 특성 <보기카드 제시> (해당 사항에 모두 응답)	<input type="checkbox"/> 1) 맞벌이 가정 <input type="checkbox"/> 2) 외벌이 가정 <input type="checkbox"/> 3) 한부모 가정 <input type="checkbox"/> 4) 다문화 가정 <input type="checkbox"/> 5)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6) 기타	
DQ5.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input type="checkbox"/>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2) 차상위 계층 <input type="checkbox"/> 3) ①, ② 모두 해당 없음	
DQ6. 귀댁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 세금 공제전 금액	월 평균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원	
DQ7. 만약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시면 아래 보기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1) 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4)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8)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9) 7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1,000만원 이상	

[응답자 현황]

성명	전화	()-()-()	휴대폰	()-()-()
----	----	-------------	-----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보다 자세한 의견을 여쭙보기 위해 향후 5세 누리과정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
려고 합니다. 면담조사에 응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응해 주실 분은 1) 동의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의 2) 비동의

◆ 긴 시간 동안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주요 면담 내용

1.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2.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언제부터 이용하게 되었습니까?
 - 「5세 누리과정」 정책 시행이 현재 기관 선택에 영향이 미쳤습니까?
 - 「5세 누리과정」 정책 시행으로 이용 기관이 변경되었습니까?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선택하게 된 주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영어학원(또는 놀이학교)을 보낼 계획이었다가 「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하셨습니까?
 - 평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셨는지요? 「5세 누리과정」으로 두 기관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4.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20만원)을 제외하고 월평균 지불 금액과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5.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서 입학설명회 또는 부모교육 등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6.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기관에서의 교육·보육과정의 변화가 있습니까? 기관에서 보내는 월간·주간 계획안의 변화 또는 기관 운영의 변화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7. 「5세 누리과정」으로 월 20만원 정부지원이 가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5세 누리과정」 정책 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또는 받은 적이 있는) 비용이 있습니까?

8. 「5세 누리과정」과 같이 비용지원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9. 「5세 누리과정」 비용지원으로 사교육을 더 하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10.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바라는 점이나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 「5세 누리과정」 미이용 학부모 질문지

「5세 누리과정」 미이용 학부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5세 누리과정」 이용실태 및 요구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연락처 이윤진 부연구위원 02-398-7717, leeyunjin@kicce.re.kr

이정원 부연구위원 02-398-7788, dian74@kicce.re.kr

김문정 연구원 02-398-7719, moon@kicce.re.kr

※ 귀하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지역 구분	<input type="checkbox"/>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읍면
자녀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조부 <input type="checkbox"/> 조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Q1~Q4은 현재 영어유치원을 다니는 귀댁 자녀(2013년 취학 예정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Q1. 출생년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Q2.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Q3. 형제관계	총 <input type="text"/> 자녀 중, <input type="text"/> 번째 자녀
Q4. 현재 영어유치원 이용 시간 외 낮시간 동안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부 <input type="checkbox"/> 2) 모 <input type="checkbox"/> 3) 아이의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4) 부모의 형제자매(고모, 이모) <input type="checkbox"/> 5)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6) 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7) 비혈연 <input type="checkbox"/> 8) 없음(혼자 지냄)

주요 질문

1.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시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으며, 알고 계시는 「5세 누리과정」의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2.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시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영어유치원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영어유치원)은 언제부터 이용하게 되었습니까? 선택하게 된 주요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4.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영어유치원)의 이용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컨대 등하원 시간, 월 평균 비용(수업료), 추가로 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 종류와 비용 등을 적어주십시오.

5.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영어유치원)의 만족하는 점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적어주십시오.

6.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영어유치원) 이전에 놀이학교(예: 하바놀이학교 등)나 다른 영어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선택이유, 이용시기(언제부터 다녔는지), 이용기간(언제까지 다녔는지), 월평균 비용 등등을 적어주십시오.

7. 귀하의 자녀(2013년 취학 예정 자녀)가 현재 하고있는 사교육의 종류와 월 비용을 적어주십시오
(예: 피아노 10만원, 태권도 10만원, 학습지 5만원 총 25만원)
※ 여기서 사교육이란 영어유치원 수업료와 영어유치원에서 추가로 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은 제외합니다. -> 5번 질문 뒤로 가는데 좋을 듯 합니다.

8. 귀하의 자녀(2013년 취학 예정인 자녀)가 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어떤 종류(국공립? 민간? 등)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녔는지, 그리고 만족/불만족한 점이 있었다면 적어주십시오.

9. 귀하께서는 평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10. 「5세 누리과정」과 같이 **정부의 자녀양육 비용지원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11. 귀하께서 자녀 양육을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다음은 부모 및 가구에 대해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부	모
DQ1. 부모의 연령	만 <input type="text"/> 세	만 <input type="text"/> 세
DQ2. 부모의 최종학력		
<DQ2. 보기문항>	1) 고졸 이하 2) 전문(2~3년) 대졸 3) 4년제 대졸 4) 대학원 이상	
DQ3. 부모의 직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Q3. 보기문항>	1) 관리자 2) 전문직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관련 종사자 9) 전업주부 10) 학생 11) 무직 12) 기타	
DQ4. 가구 특성 (해당 사항에 모두 응답)	<input type="checkbox"/> 1) 맞벌이 가정 <input type="checkbox"/> 2) 외벌이 가정 <input type="checkbox"/> 3) 한부모 가정 <input type="checkbox"/> 4) 다문화 가정 <input type="checkbox"/> 5)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6) 기타	
DQ5. 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input type="checkbox"/>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2) 차상위 계층 <input type="checkbox"/> 3) ①, ② 모두 해당 없음	
DQ6. 귀책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 세금 공제전 금액	월 평균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1) 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 100만원 이상~15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3)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4)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8)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9) 7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1000만원 이상	
DQ7. 만약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시면 아래 보기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면답이 끝났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표본추출표

〈부록 표 1〉 표본추출

행정구역	모집단 조사구 규모 (기초 지자체)	표본 조사구수 (조사구 당 15개 표본)	목표 표본수 (표본 가구)	기관유형				표본 조사구 ²⁴⁾ (기초 지자체)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전국	228	107	1605	391	624	195	395	
서울 북서부	6	4	56	11	23	9.5	13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서울 북동부	8	5	77	14	32	12	19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울 남서부	7	5	75	14	31	12	18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울 남동부	4	4	63	12	26	12	13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부산	16	5	79	13	39	11	15	강서구 남구 부산진구 사하구 연제구
대구	8	5	75	15	36	1	23	남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수성구
인천	10	6	85	21	36	5	24	강화군 계양구 남구 동구 서구 옹진군
광주	5	4	65	14	25	8	18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대전	5	4	64	14	29	4	17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울산	5	4	54	13	25	2	13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시	27	12	185	48	72	14	51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동두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성시 양주시 용인시 의정부시 파주시

(부록 표 1 계속)

행정구역	모집단 조사구 규모 (기초 지자체)	표본 조사구수 (조사구 당 15개 표본)	목표 표본수 (표본 가구)	기관유형				표본 조사구 ²⁵⁾ (기초 지자체)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경기-군	4	2	26	7	10	3	6	가평군 여주군
강원-시	7	4	54	16	17	8	13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태백시
강원-군	11	2	31	9	9	8	5	고성군 철원군
충북-시	3	3	53	16	15	6	16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충북-군	9	2	37	11	11	8	8	괴산군 음성군
충남-시	8	4	67	19	22	5	20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아산시
충남-군	8	3	40	12	13	8	7	금산군 연기군 태안군
전북-시	6	4	64	16	22	8	18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전주시
전북-군	8	2	27	7	9	4	7	고창군 완주군
전남-시	5	4	54	16	15	8	15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전남-군	17	3	42	12	12	9	8	강진군 보성군 정읍군
경북-시	10	5	75	20	30	6	18	경산시 구미시 울경시 안동시 영천시
경북-군	13	2	34	9	14	4	7	군위군 성주군
경남-시	8	6	90	23	27	8	23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경남-군	10	2	31	8	13	4	7	가창군 창녕군

24) 추출한 기초지자체에서 3개 읍면동을 계통추출하였으며 최종단위의 조사 읍면동수는 327개임.

25) 추출한 기초지자체에서 3개 읍면동을 계통추출하였으며 최종단위의 조사 읍면동수는 327개임.

부록 4. 응답률(Response rate: RR)과 협조율(Cooperation Rate: COOP)

가. 응답률(Response rate: RR)

응답률은 조사의 충실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응답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여론조사협회(AAPOR, 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에서 제시한 응답률 기준을 많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하여 응답률과 협조율 등을 산출하였다.

응답률은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대상 목록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사가 최종 완료되기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응답률이 산출되며, 협조율은 조사대상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조사가 완료되기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지표가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5세 누리과정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적격자가 있는 가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적격 가구 여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5세 어린이 없거나 있더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는 비적격가구로 간주하였다. 또한 가구원 접촉이 있었으나, 5세 누리과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며, 적격가구이에도 불구하고 조사응답자의 사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조사를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적격가구이고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전체 설문응답이 완료되지 못한 가구도 존재하였다. 이상의 정보와 함께 최종 조사가 완료된 가구 규모를 바탕으로 응답률과 협조율을 산출하였다.

〈부록 표 2〉 응답률과 협조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종류

정보의 종류	영문내용과 약자	정보의 내용	본 연구의 사례수
(1)적격자 면접완료	Complete interview (I)	적격가구원과 면접 성공	1,601
(2)적격자 거절/중단	Refusal and break-off (R)	적격가구원과 접촉했으나 거절 등으로 실패하거나 중단한 경우	263
(3)적격자 면접불능	Others (O)	적격가구원과 접촉했으나 상황적 요인으로 면접이 불가능했던 경우	16

(부록 표 2 계속)

정보의 종류	영문내용과 약자	정보의 내용	본 연구의 사례수
(4)적격자 접촉불능	Non-contact (NC)	적격자와의 면접을 위해 여러 번 방문 했으나 적격자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0
(5)적격자 미확인	Unknown if eligible respondent(UO)	가구원과 접촉했으나 해당 가구에 적격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	3,059
(6)비적격 가구	Not eligible	가구원과 접촉했으나 해당 가구에 적격자가 1명도 없었던 경우	0
(7)가구원 부재	Unknown if housing unit(UH)	4회 이상 방문했으나 가구원 부재로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던 경우	0
(8) 부분 완료자	Partial interview(P)	적격가구원 부분 성공	0

미국여론조사협회(AAPOR)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방식으로 응답률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이 부재하여 가구의 누구와도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구원 부재인 경우와 적격자 접촉 불능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간에 거절한 경우는 적격자 거절 중단에 포함하였다. 결국 부분 완료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선 응답률1(RR1, Reponse Rate 1)은 가장 보수적인 응답률로, 모든 조사대상자를 분모로 하고 완전응답자만을 분자로 하므로 최소응답률이 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경우 응답률 1은 0.324로 산출되었다.

$$RR1 = I / [(I+P)+(R+NC+O)+(UH+UO)]$$

$$= 1601 / (1601+0)+(263+0+16)+(0+3059) = 0.324$$

응답률2(RR2)는 면접부분 완료자도 응답자로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분 완료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응답률1(RR1)과 동일하다.

$$RR2 = (I+P) / [(I+P)+(R+NC+O)+(UH+UO)] = 0.321$$

응답률 3과 응답률 4는 적격미확인자 중 적격자 비율을 추정하여 추정된 값을 분모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적격미확인자 중 적격자 비율을 조사된 가구 중에서 적격자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RR3 = I / [(I+P)+(R+NC+O)+e(UH+UO)]$$

$$\begin{aligned} * e(\text{적격률}) &= [(I+P)+(R+NC+O)] / [(I+P)+(R+NC+O)+(\text{비적격자})] \\ &= [(1601+0)+(263+0+16)] / [(1601+0)+(263+0+16)+3059] = 0.381 \end{aligned}$$

따라서 응답률3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다.

$$\begin{aligned} RR3 &= I / [(I+P)+(R+NC+O)+e(UH+UO)] \\ &= 1601 / [(1601+0)+(263+0+16)+(0.381*3059)] = 0.526 \end{aligned}$$

응답률4(RR4)는 면접부분 완료자도 응답자로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분 완료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응답률3(RR3)과 동일하다.

$$RR4 = (I+P) / [(I+P)+(R+NC+O)+e(UH+UO)]$$

응답률5(RR5)는 미확인자중에는 적격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 e=0을 대입하여 RR3에서 분모를 계산한 응답률로 최대응답률이 된다. 산출식은 아래와 같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응답률5는 0.852이다.

$$\begin{aligned} RR5 &= I / [(I+P)+(R+NC+O)] \\ &= 1601 / [(1601+0)+(263+0+16)] = 0.852 \end{aligned}$$

응답률6(RR6)은 면접부분 완료자도 응답자로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분 완료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응답률5(RR3)와 동일하다.

$$RR6 = (I+P) / [(I+P)+(R+NC+O)]$$

나. 협조율(Cooperation rate: COOP)

협조율은 모든 적격접촉자수 중 면접에 성공한 비율로 미국여론조사협회 (AAPOR)에서는 4가지 방식으로 협조율을 정의하고 있다.

협조율1(COOP1)은 최소 협조율로 면접완료자, 면접부분완료자, 면접거절자 및 중단자, 면접을 수행할 수 없었던 조사적격자를 분모로 하고 완전응답자를 분자로 계산한 협조율이다. 본 연구에서의 협조율1(COOP1)은 0.852이며, 응답율 5와 동일하다.

$$\begin{aligned} \text{COOP1} &= I / [(I+P)+R+O] \\ &= 1601 / (1601+0)+263+16 = 0.852 \end{aligned}$$

협조율2(COOP2)는 면접 부분완료자를 포함하나 본 조사에서는 부분완료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협조율1(COOP1)과 동일하다.

$$\text{COOP2} = (I+P) / [(I+P)+R+O]$$

협조율3(COOP3)은 접촉한 모든 적격자중에서 조사수행이 가능한 경우(기타만을 제외함)를 분모로 하고 완전응답자를 분자로 계산한 협조율이다. 본 연구에서의 협조율3(COOP3)은 0.859이다.

$$\begin{aligned} \text{COOP3} &= I / [(I+P)+R] \\ &= 1601 / [(1601+0)+263] = 0.859 \end{aligned}$$

협조율4(COOP4)는 면접부분완료자를 포함하나 본 조사에서는 부분완료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협조율3(COOP3)과 동일하다.

$$\text{COOP4} = (I+P) / [(I+P)+R]$$

연구보고 2012-30

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 및 요구조사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18-3 93370